文化市民으로서의 自矜心과 내 고장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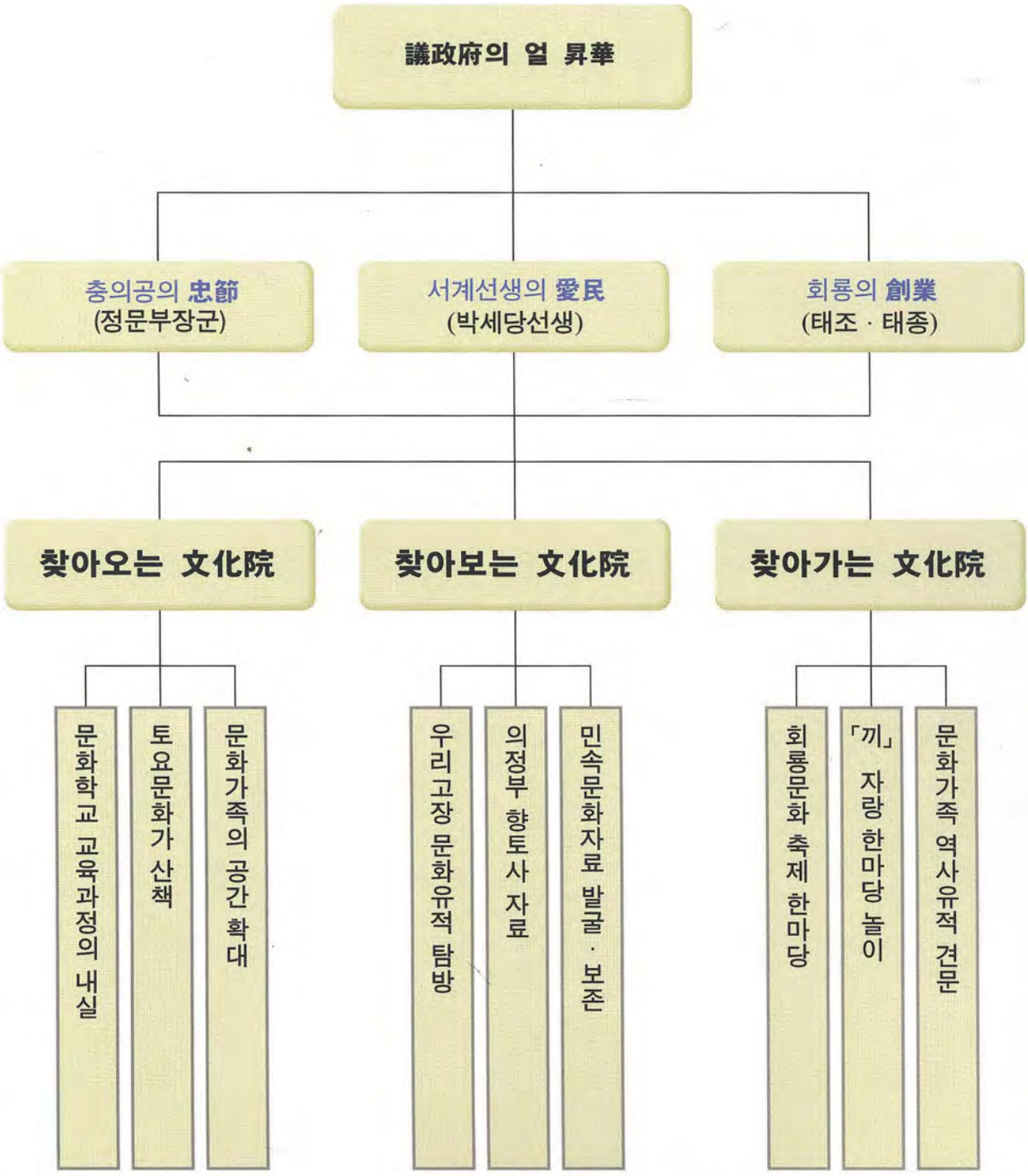
미륵문화

2006년 통권 제21 · 22호



의정부문화원

文化市民으로서의 自矜心과 내 고장 사랑





CONTENTS

차 례

발간사 ····· 2

축사 ····· 4

지상(紙上)제21회 회룡문화제 한마당 ····· 6

기획특집 I
우리고장 문화재 바르게 이해하기 ····· 24

서계 박세당의 「사변록(思辨錄)」 해설 ····· 45

충남 서산·예산지역 답사기행 ····· 68

기획특집 II
국립중앙박문관 소개(하) ····· 90

우리고장 노포(老鋪)
만우 양복점 ····· 124

우리고장 문화예술인
惠元堂 송동은 여사 ····· 128

역사문화추계탐방 ····· 138

2006 문화원 소식 ····· 142

發刊辭

새롭게 열리는 議政府文化院이 '文化的 인프라 구축' 위해 혼신의 노력



○ 어느덧 2006년을 마감하는 아쉬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議政府를 감싸고 있는 천보산, 도봉산 자락의 낙엽이 지고 서서히 흰 옷으로 바꿔입는 겨울의 정서를 담뿍담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 議政府文化院은 시민들의 마음과 문화에 풍요로움을 안겨 주기 위해 나름대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 院長(김태훈)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고장에서…
향토문화가 살아 숨쉬는 '의정부 가꾸기' '의정부의 얼' 구현을 위해 서계선생의 '애민사상' 과 충의공 장군의 '충절정신' 선양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2006년 한해동안 초등학교 3학년 6000여명 모두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내고장 역사 문화 탐구' 만화교재를 제작 제공하는 등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에 심혈을 경주하였고 '제6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주관하고 의정부의 '거북마을 거북놀이'가 민속예술 분야에서 우수상과 소품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화려한 계절 '가을' 상달(上月)에 온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뜻깊고, 흥겨운 문화 축제인 '제21회 회룡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서 의정부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살찌게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 이렇듯 우리 의정부문화원은 지역 시민들과 같이 모두가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우려 「향기로운 의정부」건설에 노력해 왔습니다.

「살맛나는 의정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부 가꾸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원이 소망하는 '충절정신'과 '애민사상'을 바탕으로한 『議政府의 얼』이 41万 시민 모두의 가슴속에 확고히 자리 잡을 때야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丁亥年 새해에 새롭게 열리는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丙戌年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회룡소식지' 통권 21~22호를 발간함으로서 정치와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자합니다.
'이태백은 달을 보고 놀았다'고 하지만 우리 배달민족은 아예 달에다 초가 삼간을 짓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옛서울 교토의 고찰 '광륭사'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의 국보 제1호 '반가사유상'의 뿌리가 우리조상이라는 자긍심은 우리를 가슴벅차게하고 포만감을 늘 느끼게 해주는 문화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우리 문화를 창조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문화국민중에서도 의정부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 앞으로도 議政府文化院은 지역문화의 선두주자로서 『찾아오는 文化院, 찾아가는 文化院, 찾아보는 文化院』으로 시민곁으로 한발짝 더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문화시민 여러분! 지난해 구진일들은 모두 버리시고 丁亥年 새해는 '마음이 부자인 집'이 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가정마다 활기와 웃음이 넘쳤으면 합니다.

2006년 12월

의정부문화원장 金 泰 勳

「회룡문화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문화 창달의 선두주자인 의정부문화원에서 「회룡문화」 제21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 애쓰시며 우리지역의 주요문화사업에 노력하시는 김태훈 의정부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에도 차별화 된 우리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만 급속한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자칫 사장되거나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어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는 문화 주체의 개성이 한껏 드러날 문화의 지방분권화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행이 의정부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니 안심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룡문화」의 발간을 통해 우리 지역문화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집필에 참여해 주시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가 크신 원장님과 여러 연구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의정부시장 **김 문 원**

자랑스런 시민, 살 맛 나는 의정부

의정부시 상징

휘장



의정부시 휘장(심벌마크)은 2000. 7. 29부터 시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CIP : City Identity Program)을 위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의지와 청정의 전원도시, 정보화도시, 문화와 교육이 함께 공존하는 의정부시의 미래상을 두가지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기본구성 : 비둘기, 산, 강, 나뭇잎)

마스코트 – 의돌이



2000. 7. 29 마스코트로 지정된 '의돌이'는 의정부라는 지명의 유래를 표현하기 위해 조선시대 정승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형상으로 표현,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시화 – 철쭉



시화는 1986. 7. 25 철쭉꽃으로 지정하였으며 아름답고 정열적인 꽃의 색깔은 사랑과 충절의 시민정신과 열심히 노력하는 강인한 의지의 시민정신을 묘사하고 진녹색 활엽은 시민의 젊음과 의욕을 상징.

시조 – 비둘기



시조는 1972. 10. 7 비둘기로 지정하였고 자태가 깨끗하고 아름다움은 쾌적한 도시를 뜻하며 번식력이 강하고 온순함은 날로 번창하는 시세 확장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상징.

시목 – 잣나무



1986. 7. 25 시목으로 지정된 잣나무는 상록침엽수로서 추위에 강하고 사계절 푸르름은 항상 희망에 차 있는 시민의 기상과 활기찬 시민상을 상징.

활기찬 도시, 따뜻한 도시, 희망찬 도시

지상(紙上) 제21회
회룡문화제 한마당



의정부에서 개최되는 제일 큰 축제의 한마당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 까지 5일간 시내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는 소식에 가슴 뿌듯하다. 그래서 지난 회룡제를 뒤돌아보며 내년에는 좀더 발전된, 그리고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회룡제 준비를 다짐하며 그 기록들을 회상하고자 한다.

개막식



10월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경기제2청사 앞 특설무대에서 의정부시 합창단이 우리 귀에 익숙한 〈향수〉, 〈농부가〉 등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며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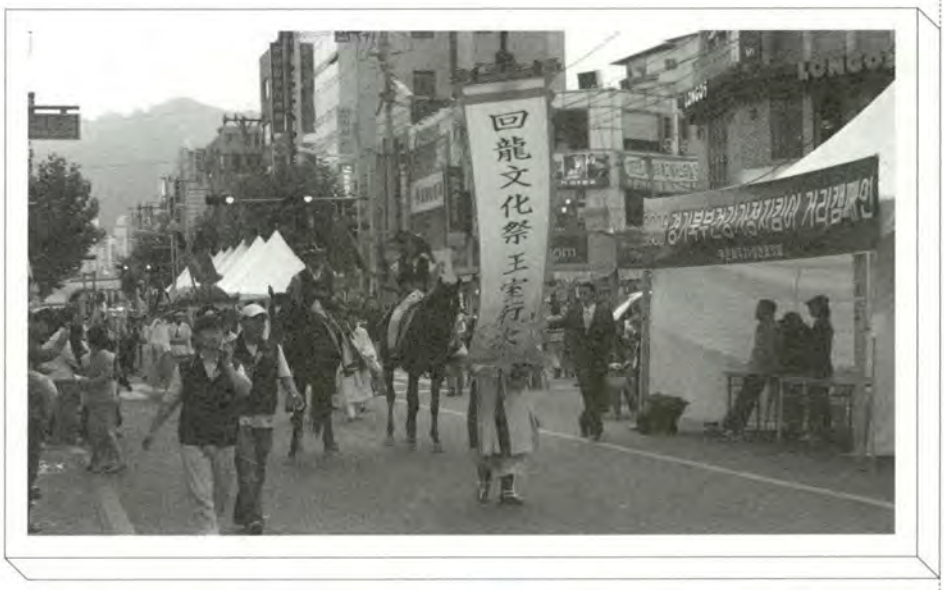
오후 8시, 관내 기관장 및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룡제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어서 벌어진 축하공연에는 SBS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연주와 초청가수 김동규, 주현미, 인순이의 흥겨운 무대가 진행되었고, 끝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축제 등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왕실 행차

10월 14일(토) 오후 4시 반부터는 시내 일원과 중앙로 주변에서 조선시대 왕실 행차재현 행진이 있었다. 행차구성은 ①취타대(연례대, 고적대) ②왕실행렬(태조, 태조비, 태종, 태종비) ③문무배관 행렬 ④가무악행렬 순이다.
행사코스는 경의초교를 출발하여 경의교차로를 경유하여 송산교차로, 파발교차로를 경유하여 중앙교차로를 거쳐 의정부역전(동부)을 거쳐 중앙로 무대까지 도착하는 코스이다.












동산
7500
부동산
CROWN
바디
약


回龍文化祭王室行次








부동산
847-7500
부동산


47-7500



끼자랑 한마당

10월 11일부터는 "끼 자랑 한마당"으로 열리는 노래자랑예선전이 관내 4곳에서 개최되었다.

첫날은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의정부 팝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연주와 노래자랑 예선이 있었으며 오픈 공연으로 의정부문화원 크로마하프동아리의 크로마하프앙상불이 있었다.

둘째날인 12일에는 어수정공원에서 의정부 여성합창단의 감미로운 노래와 함께









예선 노래자랑이 있었으며, 오픈공연으로 경민대학교 댄스동아리 〈PHCrew〉의 춤공연이 있었다.

셋째날인 13일에는 동막교 광장에서 의정부 윈드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연주와 더불어 예선 노래자랑, 그리고 오픈공연으로 의정부 실버밴드와 직장밴드의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넷째날인 14일에는 시내 중앙로 특설 야외무대에서 예선 노래자랑이 있었고, 오후 6시 반부터는 '까자랑 한마당'의 최종 하이라이트인 결선 노래자랑이 열렸다.








화제


제21회 회룡문화제


제21회 회룡


회룡문화제

전시회

10월 10일부터 의정부예술의 전당 전시장에서는 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닥종이, 목공예, 사진, 생활 · 규방도예 등 각종 전시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신곡2동에 위치한 의정부우체국 1층에서는 우표전시회가 열렸다.










한 국 화 전


경
2006 제4회 회룡우표 전시회
• 기간 : 2006.10.10(화)~10.14(토) 5일간 • 장소 : 의정부우체국 1층 • 주관 : 의정부우체국 • 주최 : 회룡우취회
EVER RICH


목공예 전시전


사진 전시전



10월 12일에는 의정부 교육청강당에서 제3회 회룡동요제가 열렸다. 회룡동요제는 어린이들에게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발전의 기초를 다지며 정서를 순화하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밝은 심성으로 미래 지향적인 음악적 재능과 꿈을 심어주어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발견하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린이 참여 문화행사이다.

10월 14일(토)에는 의정부예술의 전당 소강당에서 제8회 회룡한국무용제가 열렸다. 이는 무용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무용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대경험은





물론 무용을 통해 예술 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용예술의 보급 및 발전에 기여코저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14일(토) 제1회 회룡 전국 음악콩쿨대회가 의정부문화원 문예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음악적 기량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내 및 세계적인 음악인으로써 문화경쟁의 역할자로 21세기 음악계를 이끌어 나아갈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폐막식 행사

금년도 회룡문화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시민참여행사가 특히 눈에 띈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10월 14일) 정오부터 중앙로 특설무대에서는 소리마당풍물패(경민대)의 사물놀이, 실버공연단의 포크댄스, 경민대 동아리 한소리밴드, 필댄스 아카데미의 댄스, 실버공연단의 무용, 어룡초교의 독수리13호 줄넘기, 의정부 뮤지션협회 직장인밴드의 직장인밴드연주, 정주당놀이 보존회의 정주당놀이, 효자중학교 학생들의 거북놀이, 문화원무용반 동아리 춤누리의 민속무용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뤄진 행사가 많았다. 뿐만아니라 중앙로 특설무대에서는 나래예술치료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미술치료 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흙사랑 도예학원에서는 생활도예체험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편 신흥대학 뷰티아트디자인과 학생들이 왕실스타일 무료 체험이라는 프로그램, 소천목공예실에서는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으로 대형 장승만들기, 문화원 요가교실에서는 요가 체험으로 요가의 기본동작 배우기 프로그램, 경찰서 팀에서는













경찰복을 직접 입고 경찰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경험하는 경찰체험 프로그램, 소방서 팀에서는 소방관복을 입고 소방차를 타고 직접 경험해 보는 소방관체험 프로그램 등 실로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했다.

10월 14일 예술의 전당 야외무대에서는 12시부터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의 인도로 청소년 회룡제가 열렸는데, 십대지기들의 젊음을 발산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10월 14일 저녁 6시 반부터는 중앙로 특설무대에서 제21회 회룡문화제 폐막식과 함께 축하공연으로 의정부 뮤지션협회 회원들 무대와 오랜만에 만나는 인기가수 정수라의 활기찬 무대를 끝으로 5일간 펼쳐졌던 회룡문화제는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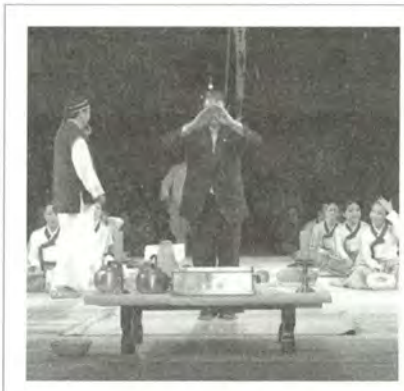




마당놀이

의정부 체육관에서는 마당놀이 한마당 축제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극단 미추의 〈마포 황부자〉가 성황리에 열렸다. 마당놀이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윤문식(황득업), 김성녀(이선달), 김종엽(꼭두쇠) 등의 걸쭉한 입담과 재치가 한층 빛났으며, 그 외 극단 미추의 노련한 배우들이 벌이는 흥겨운 마당으로 젊은층 관객들을 위해 '베니스의 상인'을 마당놀이로 각색해 멋들어진 놀이판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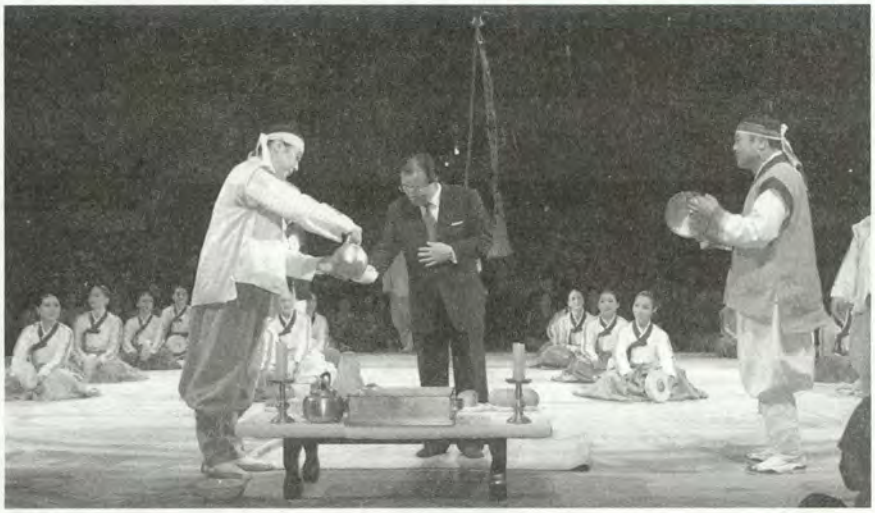
















우리고장 문화재 바르게 이해하기

최영희 |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우리고장 의정부에도 지정문화재가 적지 않다. 그러나 홍보부족인지 시민들의 관심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책자로 만들어진 문화재 해설을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좀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고장 문화재를 자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재란 무엇인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문화재는 우리가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 있는 성곽 · 옛무덤 · 불상이나 불탑, 그리고 옛 그림 · 도자기 · 고서적 등을 비롯한 유형의 것과, 판소리 · 탈춤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무형문화재가 있다. 또한 자연유산으로서 일상생활 및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여 문화재에 포함하기도 한다.

문화재를 종류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 전적 · 서적 · 고문서 · 회화 ·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자료를 말한다.

2. 무형문화재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성곽 · 옛무덤 · 궁궐 · 도자기 가마터 등 사적지로서 역사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학술 · 경관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 · 식물 · 광물 · 지질 · 동굴 · 특별한 자연현상 등 생성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4. 민속자료

의식주 · 생업 · 신앙 ·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 ·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 기구 · 가옥 등으로서 일상생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형 · 무형의 문화재는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 발전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현상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값진 재산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문화재 중, 먼저 경기도 유형문화재 · 기념물 · 문화재자료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망월사 혜거국사 부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소재지는 호원동 산 91번지로, 도봉산 아래 망월사 큰 법당에서 남서쪽으로 바위 언덕을 넘어가면 양지바른 곳에 혜거국사부도가 있다.

부도(浮屠)란 이름난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해 두는 돌무덤을 말하는데, 대개 절 근처에 세우며 승탑(僧塔)이라고도 한다. 부도의 주인공인 혜거국사는 속성이 노씨이며, 자(어렸을 때 이름)가 홍소로서 고려시대 국사(國師)를 지냈다고 전해지나 자세한 행장(行狀 :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평생의 행적을 적은 글)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탑과 부도의 양식은 건조물의 기초가 되는 기단부, 중심을 이루는 탑신부, 맨 위쪽 부분을 장식한 상륜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혜거국사 부도 또한 평면이 팔각형인 기단부와 탑신부는 둥근 공 모양의 탑신석(몸돌)을 안치하고, 팔각형의 옥개석(지붕돌)과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의 높이는 3.4m이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기단부에는 3단의 팔각형 계단 형태로 되어있는 지대석 위에 50cm높이의 팔각형 괴임대(臺石)를 얹어 놓았다. 탑신부(塔身部)는 크게 탑신석(몸돌)과 옥개석(지붕돌)으로 결구되어 있으며, 탑신석(몸돌)은 둥근 공 모양으로 밑 부분에 앙련(仰蓮)이 양각으로 장식되었다. 또한 옥개석(지붕돌)의 아래쪽 부분에 홈을 파고, 괴임대 상면에도 홈을 파서 원구형 탑신을 올려놓아 전체 부도의 안정감을 도모했다.

그리고 옥개석(지붕돌)은 상륜부의 복발과 보주까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는데, 팔각형 지붕돌의 낙수면은 목조건물의 기왓골 지붕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상륜부는 특별한 부재를 마련하지 않고 보주를 중심으로 지붕돌과 연결된 부분에 연주(連珠)를 돌려서 간략하게 장식한 형태이다.

2. 약수선원 목조보살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6호)



소재지는 호원동 226-54번지로, 호원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다.

목조보살입상이란 불교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만든 서있는 나무보살모습을 말한다. 이 목조보살상은 전형적인 조선 중기의 보살상으로 재료는 행자목(杏子木 : 은행나무)이며, 겉에 금(金)으로 도금한 모습이다. 행자목은 조각도를 쓰기에 좋고 자체 독성(毒性)이 있어 해충에 강하다고 한다.

보살상의 양식을 살펴보면 형태는 작은 이목구비를 한 통통한 얼굴과 원형 귀걸이가 간략화 되었고, 높게 땋아 올린 머리형태가 귀 뒤로 돌아가 어깨까지 내려온 모습이다. 이 같이 땋아 올린 머리형식 및 귀걸이 표현은 고려 말부터 유행하여 조선초기에는 간략화 되었던 표현수법이다. 어깨는 얼굴에 비해 좁고 쳐져서 다소 왜소한 느낌이며, 팔찌를 장식한 오른 손을 들어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살상은 대승불교의 특징을 상징하는 대표적 존재이다. 부처님처럼 깨달았지만 중생(衆生)구제(救濟)에 전념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를 거부하는 보살의 자세는 대승불교의 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살이란 자신이 수행하고 진리를 구하여 열반에 들기보다는, 생사(生死)의 세계에 태어나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의 원(願)을 세워 수행하는 존재를 말한다.

3. 하석 박정 영정(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7호)



소재지는 장암동 197번지로, 조선 중기의 문신인 하석(霞石) 박정(朴烶)의 영정은 푸른색과 녹색의 관복상이 있다. 하지만 하석 박정 영정의 진품은 정신문화원에 보존되어 있으며, 서계고택 사당에 있는 것은 복제품이다.

박정의 푸른색 관복상(가로 153㎝, 세로 82㎝) 영정은 관모를 갖춘 형태로, 가슴부분에 백학(白鶴)문양이 표현된 흉배가 보이는 의자상(椅子像)이다. 얼굴은 다소 우측을 향해 왼쪽 귀가 드러난 좌안칠분면의 모습이다.

영정이나 초상화는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삶의 모범이 된 선현의 훌륭한 업적을 후대에까지 널리 알리고 전하기 위하여, 또는 지혜로운 성현(聖賢)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에서 그 분들의 높은 뜻을 일깨우고자 사당(祠堂)이나 서원(書院)등에 봉안하기 위해 그려졌다.

서계 박세당 가문(家門)이 전남 나주의 반남 박씨 대종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계파를 형성한 것은 박세당의 조부 박동선(1562-1641) 때부터이다.

박동선은 1589년(선조 22)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 후 여러 벼슬을 거쳐 의정부 좌참찬을 역임하였다.

박동선의 외아들로 태어난 박정(朴烶)은 1615년(광해군 7) 진사를 거쳐 1619년(광해군 11)에는 문과에 합격하여 가문의 전통을 충실히 지켜나갔다.

그는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3등)에 책훈되고 금주군(錦洲君)에 봉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곳 일대(의정부시 석천동)를 사패지(賜牌地)로 하사받게 되어, 자손들에게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하석 박정(朴烶)은 박세당이 유아기인 4세 때 37세의 젊은 나이로 부친인 박동선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전한다.

4. 회룡사 오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6호)





소재지는 호원동 411번지, 회룡사 경내 극락보전 앞에 위치하고 있다.

〈회룡사 5층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든 사각형의 5층 돌탑을 말하며, 지면과 닿아 있어 건조물의 기초가 되는 기단부, 중심부인 탑신부, 그리고 맨 위쪽의 장식적인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탑은 본래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에서 비롯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탑(塔)이란 부처의 사리를 모신 건조물로 부처의 무덤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리란 부처나 승려 등 덕망 높은 사람의 시신을 화장한 뒤 마지막에 남게 되는 구슬모양의 작은 유골을 말한다.

이러한 불탑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목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등으로 구분된다.

이 석탑은 1950년 한국동란 때 심한 파손을 입어 지붕돌(옥개석)은 거의 완전한 것이 없었고 몸돌(탑신부)과 상륜부 또한 없어져, 1979년 깨어지고 없어진 것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다. 이 석탑은 전체적으로 섬세한 느낌을 주며 안상이나 연화문 등이 비교적 간결하게 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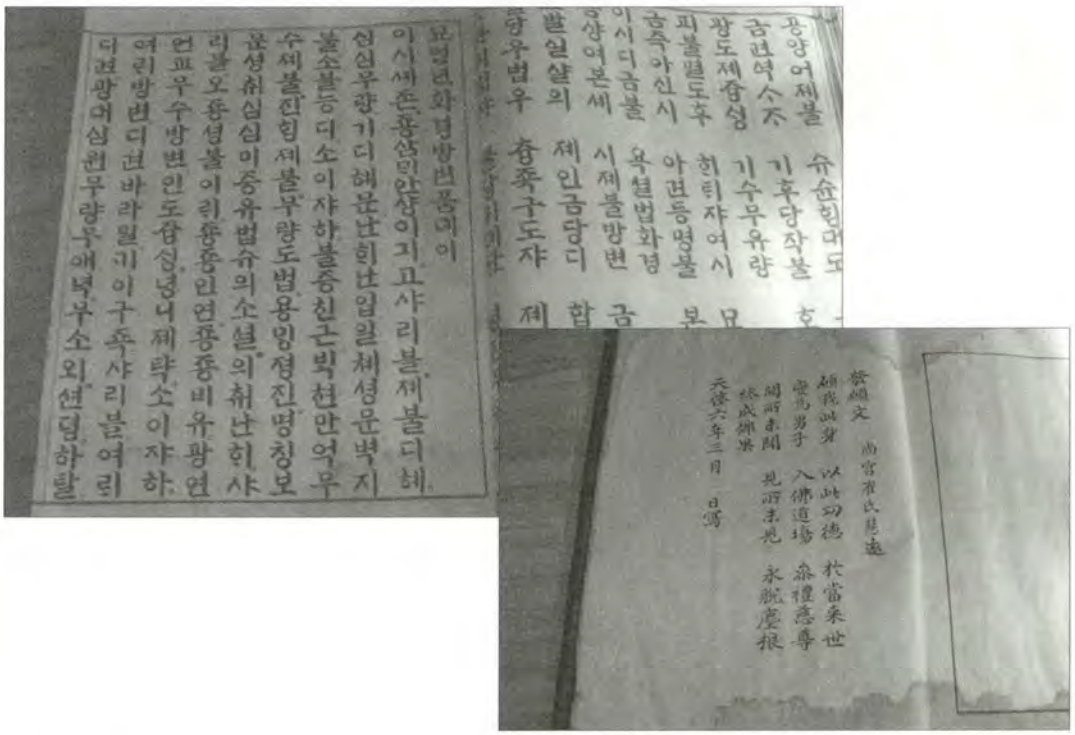
이 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단부는 높직한 1매석의 지대석 위에 괴임대를 돌출시키고 기단을 받쳤는데, 괴임대에는 5구간을 마련하여 5구씩의 안상을 장식하였다. 기단은 단층으로 또 하나의 괴임대와 기단면석이 동일석인데, 괴임대에는 4구간 내에 각각 1구씩의 안상(眼象)이 있으며 그 상면을 복판(伏瓣)의 연화문으로 장식하였다.

면석은 각 면을 세장(細長)한 2줄의 탱주(撐柱)로 3분(分)하고 있다. 또한 그 위의 갑석은 1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졌는데, 측면에는 4구간 내에 1구식의 안상을 배치하고 복련(伏蓮)을 장식하였다.

탑신부의 탑신석(몸돌)에는 각 면에 세장한 탱주와 장방형 액(額)으로 3분하였고, 옥개석(지붕돌) 받침은 3단씩 조각되었으며, 정면(頂面)의 옥신 괴임은 1단씩 돌출시켰다. 상륜부는 모두 새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탑의 조각수법은 전체적으로 낮은 부조(浮彫)이나, 섬세하고 장식적인 경향이 보인다.

5. 원효사 묘법연화경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96호)



소장처는 원효사로서 호원동 229-149번지에 위치한다. 『묘법연화경』은 흔히 『법화경』이라고도 하며, 당시로선 드물게 한글(훈민정음)로 필사(筆寫)된 것으로, 글씨모양이 인쇄한 것같이 반듯반듯하게 쓰였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묘법연화경』은 17세기 초 상궁인 최혜원(崔慧遠)에 의해 작성한 공덕경(功德經)[1]이란 점에서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글 표음법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원효사 『묘법연화경』은 전체 7권중 일부인 제1권과 제2권(제1 서품, 제2 방편품, 제3 비유품, 제4 신해품)이 한권의 책으로 필사된 것이 소장되어 다행이나, 나머지 부분도 발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란 모든 법은 묘하여 더러운 물에서 나지만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연꽃과 같이 언제나 청정하다는 의미이다. 이 경전은 전체가 제7권 제28품의 한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혀진 경전이다.

1)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만든 불경

8. 송산사 (경기도 기념물 제42호)





소재지는 민락동 285번지이며, 고려 말 충신인 조견, 원선, 이중인, 김주, 김양남, 유천 등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위패란 죽은 사람의 기록이 담긴 나무판으로, 의식에 사용되는 위패는 죽은 사람의 혼(魂)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고려를 패망시키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이때 새로운 나라 조선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고려의 옛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고, 고려왕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지키기로 한 신하들은 두 명의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여 뜻이 맞는 사람끼리 깊은 산속에 숨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조견은 의정부에 들어와 살면서 스스로 호를 송산이라 하였는데, 이는 개성의 송악산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송산동은 조견의 호인 송산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며, 조견, 정구, 원선 세 분이 돌아왔다 하여 '삼귀마을'이 생겼다.

이들이 사망한 후 이들을 모시는 사당을 '삼귀서사'라 하였으나 1804년 '송산사'라 고치고 조견, 원선 두 분만을 모셔오다가 1871년에 이중인, 김주, 김양남, 유천 등 고려왕조를 위해 충절을 지킨 다른 분들과 함께 6분의 위패를 모시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충의공 정문부 묘역(경기도 기념물 제37호)



소재지는 용현동 379-28번지 일대이다. 충의공 정문부는 문무(文武)를 겸비한 임진왜란때의 명장이라고 흔히 불린다. 그러나 충의공 정문부를 선생이라 칭하는 것은 선생이 문과 시험인 과거시험에 급제한 문신(文臣) 출신이기 때문이고, 또 그가 장군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대장을 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어느 명칭으로 불려도 상관없을 것이다.

충의공 정문부의 묘 앞 동남쪽에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碑文)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왜적을 무찌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편 정문부의 영정은 새로 만들어져 2002년 신축된 의정부시 용현동 충덕사(忠德祠)에 배향되었다. 또한 보훈처는 의병장으로서의 혁혁한 공과 애국충정의 얼을 기리고 이어받고자, 2003년 11월의 호국인물로도 선정했다. 저서로는 『농포집(農圃集)』을 남겼다.

충의공 정문부는 1584년(20세)에 생원과 진사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24세에 문과 갑과에 급제하였다. 후에 자원하여 북평사(정6품)로 근무하던 중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중에 함경도 일대는 왜군의 침탈과 국경인 등이 적에게 항복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등 도저히 회복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할 즈음, 북평사 정문부는 의병대장이 되어 난국을 수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그의 공과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후 정문부가 40세가 되던 160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를 용현동 선영에 모시고, 3년 동안 시묘살이(부모의 거상중에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지냄)를 하였다. 그리하여 정문부 선생의 효성이 지극하다하여 부친 묘소가 있는 산봉우리를 효자봉이라 한다.

그 후 1607년부터 다시 외방의 수령으로 나가, 지방의 목민관으로서의 직책을 차례로 수행했다. 외직 수령시절 그는 부역을 공평히 하는 한편, 치안질서와 혜민에 힘쓰는 등 강직한 목민관으로서도 진면목을 발휘했다. 1615년 병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당시의 혼란스러운 중앙정계를 통탄해 거절하고 천하를 주유하며 시를 읊었다. 그러나 정문부는 1624년 이괄의 난에 관계했다는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참혹하게 사망하였으니, 그때 그의 나이 60세였다.

정문부 사후 43년만에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임진왜란 당시의 전공(戰功)도 서서히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문부가 사망한지 85년 뒤인 1708년에 마침내 그의 전공을 기념하는 북관대첩비가 길주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는 임진왜란(1592-1598)때 북평사 정문부(鄭文孚, 1565-1624)가 이끄는 의병들이 함경도 길주 백탑 등지에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왜군을 격파한 북관대첩(北關大捷)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승전비이다. 이 비(碑)는 숙종 때인 1708년 함경도 북평사로 부임한 최창대(崔昌大, 1669-1720)가 글을 짓고 이명필(李明弼)이 글을 썼다.

지난해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북관대첩비』가 100년 만에 한국에 왔을 때 이곳 선생의 사당 앞에서 고유제(큰 일이 생겼을 때 사당이나 신명(神明)에게 알리는 제사)도 지냈다. 그런 연후에 북관대첩비는 본래 있었던 자리인 북한 땅 길주로 보내졌다.

7. 노강서원 (경기도 기념물 제41호)



소재지는 장암동 산 146-1번지로 조선조 숙종 때의 문신 문열공 박태보(朴泰輔)를 기리기 위한 사당형식의 간략한 서원이다.

서원이란 조선시대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이며 공립교육기관은 향교라고 한다. 원래 서원양식은 맨 위쪽의 선현을 봉사할 수 있는 사당과, 공부하는 학생의 기숙사인 재(齋)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강당과, 서적을 보관하는 장경각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노강서원은 모두 생략되어 있고 사당과 동재, 서재만 있는 형편이다.

노강서원 역시 서원의 일반적인 항례를 따라 삼문을 갖추고 있다. 삼문 중 가운데의 중대문은 망자(亡者)인 박태보의 영혼만이 출입할 수 있으므로 제향을 올릴 때 외에는 열리지 않는다. 평시의 방문객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왼쪽 문으로 나오는 것이 사당 관람의 바른 예의이다. 노강서원의 동·서재가 배치된 앞 뜰 잔디밭 북편의 한길 남짓한 언덕위에 아담한 삼칸 사당이 있다. 이곳은 문열공 정재 박태보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향사를 지낸다. 사당은 제향이 있는 날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박태보는 서계 박세당의 둘째 아들로, 당숙인 박세후의 양자로 들어갔다. 후에 박태보는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2] 때, 서인(西人)으



로서 인현왕후의 폐위를 강력히 반대하는 상소(上疏)를 올리는데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이에 그는 곧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 가는 도중 장독(매를 맞아 생긴 상처)으로 노량진에서 별세하니 그때 그의 나이는 향년 36세였다.

박태보가 별세한 후에 숙종은 곧 후회하여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정문을 내리고 영의정에 추증하였다. 숙종은 21년(1694)에 노량진에 사당을 짓고 '박태보지사(朴泰輔之祠)' 라는 사액현판을 내렸다. 그 후 정조 15년(1791)에 '노강(鷺江)'이라는 사액현판을 다시 내렸다. 그러나 1925년 큰 홍수로 한강물이 넘쳐흐르는 바람에 노강서원이 강물에 떠내려갔다. 그리고 1969년에 그의 무덤이 있고 아버지의 고택이 있는 박태보 어린 시절의 고향인 의정부 장암동에 그의 후손들에 의해 옮겨 건축되었다. 그 후 1977년에 경기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았다.

---

2) 1689년 숙종은 희빈 장씨 소생의 아들(후일의 경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인현왕후 민비를 내쫓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은 이에 반대하는 서인이 정권을 잃게 되는 정치적 사변이었다.

9. 보한재 신숙주 묘역(경기도 기념물 제88호)





소재지는 고산동 산53-7번지로 구성마을에 있으며 부인 윤씨와 쌍분을 이루고 있다. 묘 앞에는 묘비석, 상석, 장명등, 무인석, 문인석, 그리고 한글창제비와 1971년에 건립한 신도비 등 각종 석물(石物)이 있다.

신숙주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을 도와 한글창제에 공헌한 학자이며 정치가이다. 또한 그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가장 뛰어난 어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신숙주는 과거시험의 시험관을 열세 차례나 하여 사람을 얻음이 당대에서 가장 많았고, 예조판서를 십수 년, 병조판서를 여러 해 동안 각각 겸임했다고 한다. 또한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송설체에 뛰어났다고 한다. 전하는 필적으로 송설체의 유려함을 보여주는 〈몽유도원도〉의 찬문(贊文)이 있다.

한편 신숙주는 세종 때부터 문종 · 단종 · 세조 · 예종 · 성종에 이르기까지 여섯 임금을 30년 동안 충성으로 보필하였고, 특히 계유정란[3] 때부터는 조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신숙주는 1475년 6월 21일 향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문장으로 국가에 공헌하였으므로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3) 수양대군(후에 세조)이 허약한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약탈한 사건. 당시 왕권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수양대군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대신들이 죽음으로 항변했는데, 이들 여섯 사람을 사육신이라 한다.

10. 망월사 천봉당 태흘탑(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6호)



소재지는 호원동 산91번지 망월사 경내로 조선시대 천봉스님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부도)이다. 망월사 영산전 아래쪽 계곡에 위치한 이 부도는 뒷면의 암벽을 배경으로 가파른 절벽 경사진 곳의 반반한 평면위에 세워졌으며 크기는 240cm×120cm이다.

탑신석(몸돌) 면에는 「西山五世孫」, 「天峯堂泰屹之塔」, 「崇禎紀元後三甲寅暮春下浣立」이라고 새겨져 있어 부도의 주인공을 탑신의 표면에 음각하는 것이 일반화된 사례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도의 주인공인 천봉당 태흘은 서산대사의 오세손(五世孫) 제자이며, 1794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천봉당 태흘탑 왼쪽으로 탑비가 있는데, 비문에 의하면 천봉스님은 황해도 서흥 태생으로 김두필의 아들이며 속명은 태흘이요, 자는 무등이다. 16세에 유덕사에서 삭발하고 도원사에 가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20세에 음월 우점사에게 수업정진하고 백천 호국사에서 득도하였다. 1793년 호국사에서 84세로 입적하니 정골사리 2과와 사리 64쪽을 백천 호국사, 문화 월정사, 양주 망월사 등에 승탑을 세워 분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천봉당 태흘탑의 양식은 팔각타원형으로, 지면과 닿아 있는 팔각의 기단부(基壇部) 위에 탑신부에는 타원형 탑신석(몸돌)을 안치하고 팔각형 옥개석(지붕돌)과 위쪽에 장식적인 상륜부를 갖추고 있다.

11. 망월사 천봉선사 태흘탑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7호)





이 태흘탑비는 천봉스님이 입적한지 4년 후, 탑을 세운지 3년 후에 건립된 것이다. 무늬가 없는 4각 대석 위에 탑비를 세웠으며, 그 위에 한식기와 팔작지붕을 조각한 지붕돌을 얹었다.

이 탑비문은 1797년 수관거사 이충익이 새겼으며 사각형의 안정된 기단부와 탑신석(몸돌)과 옥개석(지붕돌)으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에는 천봉당에 관한 기록이 새겨져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글자가 마모되어 남아있는 일부 글자만 희미하게 보인다. 옥개석은 목조건물의 팔작지붕을 간략하게 모방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지붕의 형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도 건립에 따르는 탑비는 고승 개인의 일대기나 행적을 기록한 비문(碑文)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탑비는 고승이 입적한 후에 유골안장, 다비식, 진영 봉안, 부도 건립 등과 같은 모든 장례가 마무리된 후에 최종적으로 세워지는 기념물이었다. 이러한 탑비는 고승 개인뿐만 아니라 사찰과 산문(山門)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형물이었으며, 불법을 계승하고자 하는 호법활동(護法活動)의 일환이었다.

한편 석비는 우리에게 제작 당시의 네 가지 중요한 문화적 요소를 전달해 준다.

첫째는 비문 자체가 역사적 사실의 기록으로써 역사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둘째로 석비는 제작연대가 확실한 작품으로 석비 제작에 부여된 모든 예술적 감각은 당시의 시대적 예술 역량을 정확히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그리하여 여타 예술작품의 제작편년을 판정하는 기준작품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셋째로 비문에 새겨진 내용은 그 자체가 명문장으로써 문학작품이다. 이를 테면 최치원의 명문장을 우리는 사산비명(四山碑銘)에서 읽어볼 수 있다.

넷째로 빗돌에 새겨진 글씨는 명필가의 작품으로 특히 중세 서예사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최치원의 친필은 오로지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비문에서 찾을 수 있으며, 김생(金生)의 글씨는 태자사 낭공대사비문에서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의 모든 석조예술 분야에서 석비예술은 단연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2. 서계 박세당 사랑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3호)



소재지는 장암동 197번지로서 현재의 사랑채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서계 박세당(朴世堂 : 1629~1703)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기거하며 저술활동을 하였던 곳이다. 집 앞에 있는 고목인 은행나무와 그 옆의 계류를 따라 세워진 정자, 학당 터 및 그 뒤의 영당과 묘역 등의 일곽이 조선후기 사대부 건축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교육적, 문화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아쉽게도 6 · 25한국전쟁 당시 고택 대부분이 소실되고 지금은 바깥 사랑채만 남아 있는 형편이다.

이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북쪽의 정면 1칸 측면 3칸, 이어서 중간 측면 2칸 정면 3칸이 방으로 되어있고, 앞쪽은 마루로 되어 있으며, 계곡 쪽으로 1칸짜리 누마루가 있다.

사랑채란 조선시대 집안의 남자들이 거주하던 생활공간으로, 학문을 연마하는 서재인 동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던 공간을 말한다.

서계(西溪) 박세당은 1629년(인조 7년)에 이조참판을 역임한 하석 박정(朴炡)과 양주 윤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31세인 1660년(현종 1)에 증광문과에 장원을 시작으로 예조좌랑, 정언, 병조정랑, 지평, 홍문관교리 겸 경연 시독관, 함경북도 병마평사 등 내외 관직을 두루 거치게 된다.

그 후 서계는 1668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후 당쟁에 혐오를 느껴 40세에 관료생활을 포기하고 지금의 의정부시 장암동(당시 양주 석천동)에 칩거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학문연구와 저술, 그리고 제자양성에 매진하게 된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농사에 관하여 쓴 「색경(穡經)」이 있는데 이 책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한 것을 글로 남긴 책으로서 귀중한 사료로 인정된다. 또한 고전연구에 관한 저술로서 「사변록(思辯錄)」등이 있다.

13. 의정부2동 성당(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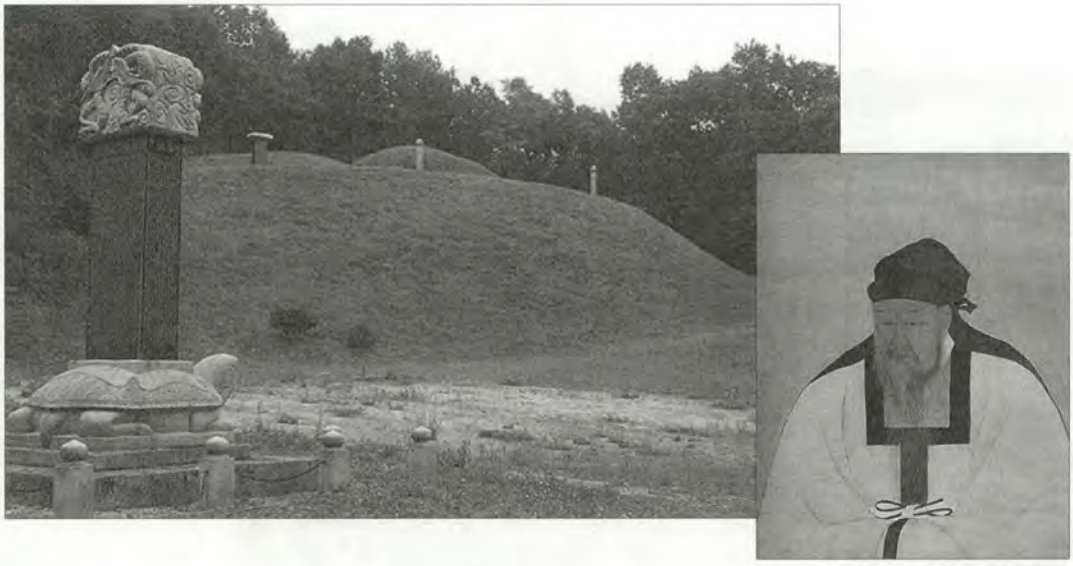


소재지는 의정부 2동 429-6번지로 의정부의료원 부근에 위치한다.

이 성당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3년 이계광(요한) 신부가 당시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던 미1군단의 군종신부인 로제스키 신부의 협조로 미1군단 가톨릭 신자의 헌금을 건립비로 지원받아 석조로 지어졌으며, 1953년 8월 29일 성전건립이 완공되었다.

흔히 성당건물은 적벽돌이지만, 이 성당의 경우 공사비 견적 결과 적벽돌 보다 석재가 더 저렴한 것으로 판정되어 석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석재는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돌산에서 채석하여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석공들에 의해 건축되었다고 전한다.

14. 서계 박세당 묘역(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3호)



소재지는 장암동 소재 석촌동 북쪽 언덕에 있다.

박세당은 1629년(인조 7) 8월 19일 남원부 관아(지금의 남원시장 관사)에서 아버지 박정(朴炡)과 어머니 양주 윤씨 사이에서 4형제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의 나이 4세 되던 해 아버지 박정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불운은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3년후에는 큰형마저 사망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소년 박세당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을 다녀야만 했다. 후에 집으로 돌아온 박세당은 할아버지에게서 천자문을 배웠고 11세에 이르러서야 둘째형에게서 본격적인 수업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3세 때부터는 고모부 정사무(鄭思武)가 공부를 전담하게 되어 석학(碩學)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해 주었다.

한편 박세당은 그의 나이 17세 되던 해인 1645년(인조 23) 의령남씨인 남일성의 딸과 혼인을 하였는데, 가난 때문에 이후 10년 동안 부인 남씨 친정인 정릉에서 처가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박세당의 처가살이는 단순한 경제적 원조에 그치지 않고, 처남 남구만, 처숙 남이성과의 줄기찬 학문토론으로 박세당이 학자로 대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박세당은 1666년(현종7) 38세에 부인 남씨와 사별하게 된다. 박세당은 전에 부인 남씨와 같이 자신의 장지(葬地)로 정해두었던 이곳, 수락산 서쪽 기슭에 부인 남씨를 묻고 자신의 만년을 이곳에서 보내고자 했다.

서계 박세당은 관직을 떠난 40세 이후에는



재취한 부인 정씨(鄭氏)와 함께 이곳 장재울에 은거했다. 그는 이곳을 석천동(石泉洞)이라 개명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저술활동을 해나갔다. 그러나 노론계인 송시열 계에서는 박세당의 《사변록(思辨錄)》의 내용을 문제시 하여, 반주자(反朱子)인 사문난적(斯文亂賊)[4] 으로 몰렸고 삭탈관작(削奪官爵)과 문외출송(門外黜送)의 처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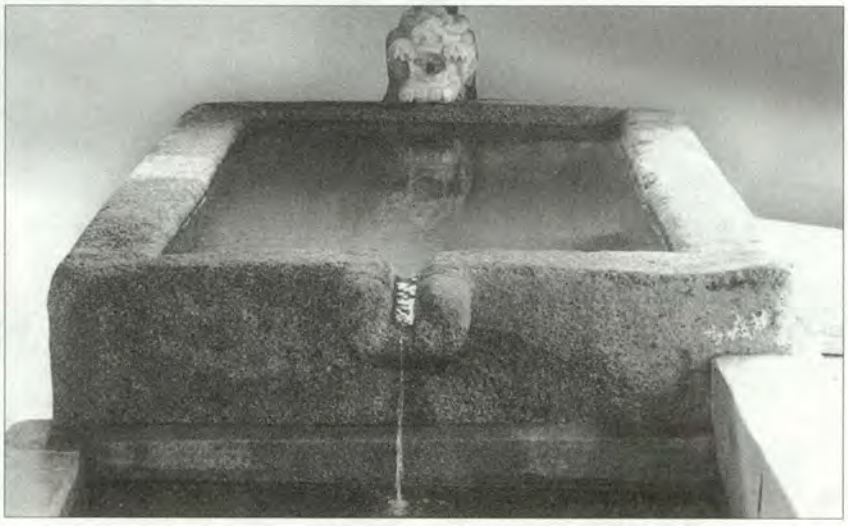
이에 그는 1703년 노구(老軀)를 이끌고 동대문 밖에서 대죄했고, 전라도 옥과(玉果)로 유배되었다. 이 상황에서 그가 75세의 노령으로 노환 중에 있음과 숙종 때 그의 아들 박태보(朴泰輔)가 인현왕후의 폐출에 반대하다 죽음을 당했던 공을 감안하여 유배형이 과하다는 상소가 제기되었다. 이 상소에 힘입어 그는 그해 5월 유배가 풀렸으나, 8월21일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난 두 부인 남씨(南氏), 정씨(鄭氏)와 함께 수락산 서쪽 기슭에 합장되었으며 그의 명예는 이인엽(李寅燁)의 상소로 사후 4년이 지나서야 회복될 수 있었다.

---

4) 사문(斯文) 즉 주자 성리학의 학문 체계나 가치를 어지럽힌 도적이란 의미이다. 주자(朱子) 중심의 성리학이 지배하는 속에서 주자와 다르게 경전을 해석하고 경전의 편차(編次)를 구성하려 한 사람들을 사상적 · 정치적으로 매장할 때 사용된 명분이었다. 서계 박세당(朴世堂)과 백호 윤휴(尹)는 그 대표적인 희생자이다.

15. 회룡사 석조(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7호)





호원동 411번지 회룡사 경내 범종각 아래에 있다.

돌로 만든 물통을 석조(石槽)라 부르는데 물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사찰의 필수품 중의 하나이다. 이 석조는 길이가 244cm, 폭이 153cm, 깊이가 67cm, 돌의 두께가 21cm나 되는 대형석조(大形石槽)로 하나의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석조 표면의 상면과 측면은 물론 내부도 곱게 치석하였고,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완만하게 내곡(內曲)을 이루어 시각적으로 안정되게 보이고 있다. 이 석조의 특징은 물이 흘러내리는 주구(注口)에 돌출된 U자형의 홈통을 마련하여 물이 가득 고이면 자연히 이곳으로 넘쳐 흐르게 만든 것이다. 즉 보통의 석조와는 달리 물을 받기에 편리한 구조로 만들었다.

16. 회룡사 신중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8호)





회룡사 경내 대웅전 왼쪽 벽면에 위치하고 있다.

신중(神衆)이란 부처나 보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불교의 여러 신(神)들을 말한다. 이들 여러 신(神)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신중도(神衆圖), 또는 신장탱화라고 한다.

이 신들은 석가불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의 토속신(土俗神)으로 부처의 자비심에 감화되어 불교에 귀의하였다. 또한 이 신들은 본래 부처와 경전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으나 점차 국가를 수호하거나 재앙을 막고 복을 주는 신(神)이 되었으며, 불교가 전파된 지역의 토속신들이 포함되면서 신(神)의 종류도 늘어났다.

신중도(神衆圖)에는 대체로 상단에 하늘의 신(神)을, 하단에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무장신(武將神)을 그린다. 인도 힌두교의 고대 신인 브라마(Brahma), 인드라(Indra)는 불교에서 범천(梵天), 제석천(帝釋天)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신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무장신의 으뜸을 차지하는 이는 위태천(동진보살)이다. 그는 머리에 깃털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으며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용맹스러운 신, 스칸다(Skanda)에 기원을 두고 있다.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사천왕과 그 무리(팔부중)도 인도에서 유래한 신이다. 이밖에 한국의 민간신앙에서 유래한 산신(山神), 부엌신(조왕신)도 신중도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신중도는 불법승(佛法僧) 삼보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신(神)들과 그 부하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회룡사 신중도는 전체적으로 붉은 색조를 띠고 있으며, 화폭을 2분하여 윗부분에는 제석과 범천을 배치하고 아랫부분에는 위태천(동진보살)을 중심으로 그 권속들을 배열한 2단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범천 · 제석 · 위태천은 역 삼각형 구도로 배치되어서 시선을 화폭중앙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이 신중탱화의 도설(圖說)상 중심인물임을 알 수 있다.

☞ 다음호에는 의정부 향토유적과 전통사찰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思辨錄
사변록

홍정덕 |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서론

「사변록(思辨錄)」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선생[1] 이 저술한 유교 경전의 주해서(註解書)이다.

선생은 1629년(인조 7년)에 당시 남원부사였던 인조(仁祖) 반정공신(反正功臣) 박정(朴炡)의 네째 아들로 남원 현지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선생의 나이 8세 되던 해에 부친이 사세(辭世)하시고 이어 호란(胡亂)을 맞으면서 불우한 초년(初年)을 맞이하게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선생은 학령(學齡)이 되었어도 배움에 입문(入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세(家勢) 가운데 13세가 되던 해에야 비로소 고모부로부터의 가르침으로 본격적인 학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천성적으로 학문의 자질을 갖추었던 선생은 17세 되던 해에 금성현령 남일성의 따님 되시는 의령 남씨와 혼인하면서 비로소 안정된 학업의 여건을 갖추고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가운데 마침내 23세 되던 해에 처음 과거를 치러 초시(初試) 3등에 입격(入格)하였다 그러나 당시 형이 아직 등과(登科)를 하지 않았기에 중시(重試)를 치르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여 32세 되던 해(1660년, 현종 원년) 가을에 시행된 식년(式年)시에 응시하여 사마시(司馬試) 회시(會試)를 2등으로 통과하였고, 이어 증광(增廣) 문과(文科)에서 장원(壯元)을 차지하였다. 선생은 장원 급제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에 따라 청요직(淸要職)인 6품직 성균사서(成均司書)로 환로(宦路)에 나아갔다. 천성이 강직하고 굽히거나 타협할 줄 몰랐던 선생은 관직, 특히 언로(言路)를 관장하는 언관(言官)으로 있으면서 원칙에 어긋나는 선배들의 잘못을 결코 묵과하지 않고 질타하였으며 이는 마침내 조정(朝廷) 안에 선생에 대한 반대세력을 형성케 하는 결과로 작용하였고,[2] 후일 선생으로 하여금 관직에서 물러나 산림에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선생은 40세가 되던 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었던 첫 부인 의령 남씨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를 계기로 관직에서 물러났고, 이후로는 부친의 사패지(賜牌地)였던 의정부시 장

1) 자는 계긍(季肯), 호는 서계(西溪). 본관은 반남(潘南).

2) 예조좌랑, 병조좌랑, 춘추관 기사관을 거쳐 사간원 정언에 나갔다. 언론을 담당하는 대간의 자리였다. 그는 공조판서(工曹判書) 「김좌명(金佐明)」과 〈대사성(大司成)〉 「이은상(李殷相)」의 인선이 부당하다고 공박(攻駁)하였다 「김좌명」은 현종(顯宗)의 국구(國舅) 「김우명(金佑明)」의 아우였고, 「이은상」은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의 손자로 모두 다 손꼽는 당대의 명문이었으니 言官으로서의 서계의 강직함이 현저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으로 있던 1663 (현종 3)년에는 공개적으로 인사를 청탁한 좌의정 「원두표(元斗杓)」를 탄핵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도승지 「임의백(任義伯)」을 탄핵하기도 하였다.

자울 수락산록에 은퇴하여 스스로 농사지으면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몰두하는 산림처사(山林處士)의 길을 선택한다. 조정은 이후 노 · 소론의 정쟁(政爭)을 겪으며 때로는 선생의 후배들이 득세하여 그를 다시 조정으로 부르려는 노력이 거듭되지만[3] 그는 일체의 부름을 거절한 채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치열한 학문세계에 침잠(沈潛)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 그는 자신의 생애를 모두 투자한[4] 세 종류의 저술을 이루어 내는 데, 이는 각각 농서(農書)인 「색경(穡經)」과 도가서(道家書)인 「장자(莊子)」, 「노자(老子)」의 주해서, 그리고 유교 경전의 주해서인 「사변록」의 편찬이다. 그는 산림에 묻힌 처사답게 자유로운 학문세계와 사유(思惟)를 추구하였는데, 농서인 「색경」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사대부에게는 금기(禁忌)였던 도가 서적의 주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가 추구(推究)했던 자유정신이 가장 빛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변록」의 저술이었다.

평생에 걸치는 작업이었던 「사변록」의 편찬은 그러나 완성되지 못한 필사본(筆寫本)으로 남았다.

그리고 이 저술은 그의 사상체계의 독특함과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역작(力作)으로 남아 오늘날 역사 · 철학계의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동시에 시대를 거스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 사유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그를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간[5] 문제작이기도 하다.

본론

1. 양난 이후의 조선 사상계

유교 성리학적 이상사회의 구현을 모토로 개창(開倉)된 조선왕조는 성리학(性理學)적 사유가 난만(爛漫)하게 피어나는 성리학 사회를 형성하였지만 사상적 유일체제의 확립은 동시에 정치적, 사상적, 학문적 위기를 몰아왔다. 사화(士禍)가 그랬고, 당쟁(黨爭)이 그랬으며, 외척(外戚)정치가 바로 그랬다. 수취체제를 비롯하여 가혹한 계급적 수탈체제는 농민피 압박층의 저항[6] 을 초래하였고, 결국은 외세(外勢)의 침략을 불러오는 내적 요인으로

3) 그는 100 차례에 걸치는 출사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다.
4) 그는 40세에 벼슬에서 물러나 74에 돌아가시기 까지 34년을 오로지 산림처사로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5) 사변록과 이경석 신도비문으로 사문의 난적으로 몰린 그는 겨우 죽음을 면하고 삭탈관작된 채 옥과로 귀양가도록 명을 받았으나 평생에 걸치는 그의 산림처사로서의 정결함과 아들 박태보의 순절 그리고 연만한 나이가 고려되어 유배를 면하고 수락산에 돌아와 겨우 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6) 임꺽정의 난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도 작용하였다.

조선 사회에 양난(兩難)이 끼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요동(搖動)을 하였고 사상 · 학문 분야 역시 온전할 수 없었다. 붕당(朋黨)정치가 본격화되었고, 균전(均田)체제가 붕괴하며 부농(富農), 소작(小作)체제가 본격화되는 한편, 상업 및 수공업 분야에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경영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신분체제가 본격적으로 붕괴(崩壞)되는 것이다.

양난이 불러 온 사상, 학문계의 동요는 크게 2가지의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하나는 기존의 가치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이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상체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었다. 때마침 중국에서는 양명학(陽明學), 고증학(考證學)이 유행하며 중국에 출입하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더하여 서양의 학문과 종교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가치를 수호하고자하던 기득권층은 양명학을 이단(異端)으로 규정하고 서학을 사학(邪學)으로 배척하였지만 그들의 영향은 조선 사상계를 흔들기에 충분한 파고(波高)로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조선의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은 그렇게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그 도전은 실학(實學)과 서학(西學)이라는 두 갈래의 흐름으로 진행되지만 그 이면에는 성리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라는 입장이 깔려있었고, 두 흐름 모두 성리학에 대한 대안(代案)이라는 측면에서 반향(反響)을 증대시켜 가고 있었다.

2. 서계의 반 우암(尤庵)적 정서

서계 선생이 조정에 출사하고 있을 당시, 그의 입장은 철저한 현실론자였다. 특히 대청(對淸) 외교에서 그는 국익 우선의 현실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바로 이점이 비현실적인 명분론을 주창하던 우암 송시열과 충돌하는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교리(敎理) 김만균(金萬均)의 사직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당시 청에서 사신이 오면 사대(事大)의 예를 따라 국왕이 경외(京外)에 나아가 이를 영입(迎入)하는 예를 행하고는 하였는데 당시 관리 중 호란 당시 청병(淸兵)에 의하여 가족이 화를 입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사임을 허락하여 청사의 환영의식에 참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例)가 있었다. 당시 교리(校理) 김만균(金萬均)이 호란 당시 조모(祖母)가 강화전투에서 순난(殉難)하였던 사실을 들어 이에 따라 사직을 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온 조정이 힘을 모아야하는 외교의 현장에 개인적인 사혐(私嫌)을 핑계로 사직하려는 태도는 군신(君臣)의 도리(道理)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도승지 서필원이 이를 탄핵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복잡하여 졌다. 이 상소는 바로 조정의 물의를 야기하여 이를 둘러 싼 중론(衆論)이 물 끓듯 일어나고 치열한 논쟁을 불러오게 된다.

우암 계열의 서인 산당(山黨)은 호란 이래 정론(廷論)을 주도하면서 화이(華夷)의 분변을 정론(政論)의 주 논지(論旨)로 삼아 왔고, 상하의 반 여진족 여론을 배경으로 북벌론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명, 청 교체가 완료되고 여진족에 의한 중원(中原) 장악이 확실한 대세로 굳어지면서 점차로 그 정론(廷論)의 현실적 토대를 상실해 가는 초조함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북벌론의 강력한 지주였던 효종(孝宗)이 훙거(薨去)하고 현종(顯宗) 대에 이르면 송시열 등의 관심은 여하(如何)히 북벌론을 유지하며 정론을 이어 갈 것인가에 집중되게 된다. 뒤에 일어나는 소위 〈회니논쟁(懷泥論爭)〉역시 그 배경에는 화이(華夷)론을 둘러 싼 갈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만균에 대한 서필원의 논척(論斥)은 사안(事案)의 내용 그 자체를 떠나 지금까지의 명분론적 정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름하는 양측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전(變轉)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조금은 도가 지나쳤다고 보여지는 김만균의 사직과 이에 대한 탄핵이라는 애초 사안의 내용은 이를 뛰어넘어 정론수호를 위한 명분론과 현실론의 대립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 대개 복수하는 의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냐 형과 동생 관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조부와 손자의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와 구별지은 글이 없다. 서필원이 굳이 복제(服制)로 비교를 해서 그 경중을 나누어 의리를 절충한 것처럼 한 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그가 쟁론한 김만균의 일과 같은 것은 《예경(禮經)》에서 이른바 복수라고 한 것과는 같은 일이 아니다. 병자 · 정축년의 난리 뒤로 우리 나라는 청나라에 대해서 온 백성이 원수로 여겼다. 신하된 자는 모두가 영원토록 꼭 갚아야 할 원수가 있게 되었으니, 어찌 오로지 하찮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리를 가지고 분별을 한단 말인가. 우리의 형세가 약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보면 개인적인 의리에 있어서는 분풀이를 할 수 없는 바가 있었으니, 반드시 이것을 두고 복수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윤리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짓이라고 몰아 부치는 것도 역시 꼭 정당한 의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하는 의리에 있어서는, 세도(世道)를 염려하는 자가 밝혀서 알려주고 뜻을 키워주어서 세월이 오래되어 점점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송시열이 일의 단서를 인하여 그 의리를 펴서 서필원을 심하게 논죄한 이유이다. 당시에 서필원을 공격한 자들은 이러한 뜻도 잘 모르면서 다만 김만균의 일로써 해당시켰으니, 또한 매우 미혹된 것이다. 더구나 서필원은 허황되고 무식하여 깊이 논할 것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도 조정에서 반드시 서필원을 편파적으로 비호하고 공론을 막으려고 하여, 공론이 여러 차례 발론되고 여러

차례 정지되다가, 마침내 대각이 오래도록 비고 온 조정이 엉망이 되게 하였으니, 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었다.[7]

서계는 현실적인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흔연 서필원의 입장을 지지하였고[8] 이는 결국 서인의 영수 송시열 계열의 산당(山黨)으로부터 〈5사(五邪)〉의 하나로 규정되는 극한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서계가 「색경」 서문에서 밝힌 바 그의 사직 원인 역시 그 근본 원인은 이 우암과의 갈등이 아닌가 짐작되는 것이다.

○ 그러면 그대는 장차 이 책을 지어 무엇에 쓰려는가? 군자가 아닌 야인이 되려는가?

이르기를 그렇다. 나는 진실로 야인이 되고자 한다. 무릇 선비가 조정에 나아가 그 도를 행하면 이를 일러 군자라 하고 물러 나와 들을 경작하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밥 먹으면 이를 일러 야인이라 하는데 나는 이미 들을 경작하고 있으니 야인 되기를 구하는 것 외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벼슬하면서 나의 도가 이 시대에 별로 쓸모가 없음을 알아 물러나고 싶었고 또한 내 힘으로 (들을 경작하여) 밥 먹어 온지가 이미 오래되었다.[9]

거기에 더하여 서계를 둘러 싼 인적(人的) 구성이 서계와 우암을 반목(反目)하게 하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계의 형 세후(世厚)는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후사를 얻지 못하고 일찍 타계하여 서계가 자신의 2자인 태보(泰輔)를 출계(出系) 입양하였고 이로서 서계와 미촌의 아들인 명재(明齋) 윤증(尹拯)은 사돈이 되었다.[10] 미촌 윤선거는 성리학을 배척하던 윤휴(尹鑴)의 학문적 입장[11]을 둘러싸고 그 학문적 성향은 배척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배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를 무조건 배척하는 송시열과 갈등을 빚게 되고[12] 이에 송시열은 마침내 윤선거의 강도(江都) 구명 자체를 문제 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즉, 강화도가 청병에게 포위 함락되는 상황에서 윤선거의 부인은 순절하였지만 윤선거는 변복(變服)하여 탈출 구명(求命)한 일을 송시열이 절의를 버린

7) 현종개수실록 5년 6월 12일 (임신)

8) 서계는 당시의 사대부 모두가 청의 연호 사용을 거부하고 명의 마지막 연호인 〈숭정〉을 사용하는 것 조차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9) 색경 서문

10) 윤증은 친히 석천동으로 서계를 찾아온 적이 있었고, 서계와 윤증은 집안의 대소사를 서로 편지로 의논하는 사이이기도 하였다. 윤증이 서계에게 보낸 편지가 현재 〈명옹간첩〉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11) 백호 윤휴는 성리학을 반대하여 결국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죄명으로 죽임을 당한다.

12) 미촌 윤선거는 우암과 백호 윤휴의 논쟁에서 중립에 서려 하였지만 우암은 미촌의 중립적 입장을 자신에 대한 적대로 해석하였다.

구차한 사건으로 규정하여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윤선거가 죽고 그 아들 윤증이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송시열에게 아버지의 비문 찬술(撰述)을 부탁한바 송시열은 박세채(朴世采)가 지은 윤선거의 행장(行狀)을 그대로 베껴 주었을 뿐 끝내 성의 있는 문장을 지어주지 않았다. 결국 윤증과 송시열은 이 문제로 갈등하게 되어 서인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분열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게 된다.[13]

서계는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이 논쟁의 전말(顚末)과 시비(是非)에 윤증과 동반(同伴)할 수밖에 없었다. 서계와 윤증이 사돈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서계는 송시열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이다.

윤증 뿐 아니라 서계는 소론의 지지자인 남구만(南九萬), 박세채와도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남구만은 서계와 처남 매부 간이었고, 젊은 시절 함께 동문(同門) 수학(修學)하며 밤새워 학문을 토론하던 처지인데다, 서계의 퇴관(退官) 후에도 자주 석천(石泉) 유거(幽居)에 찾아와 환담하는 벗이기도 하였다.[14]

약천(藥泉)대감 박세채는 서계와 8촌지간인 동종(同宗) 동항(同行)이었으니 서계의 당론은 그의 지론과도 상관없이 이미 소론으로 분류되는 실정이었다.

거기에다가 출사(出仕)한 두 아들 태유(泰維)와 태보(泰輔) 또한 소론의 맹장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박태유는 훈척(勳戚)인 김익훈에 대한 논척(論斥)과 송시열이 제기한 〈태조존호가상(太祖尊號加賞)〉문제를 둘러싸고 송시열과 대립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 태보 역시 소론의 선두에서 송시열과 대립하고 있었다.

결국 태유는 우암 계열의 탄핵을 받아 고산(高山) 찰방(察訪)으로 좌천되었고 그 벽지(僻地)에서 얻은 풍토병(風土病)이 문제가 되어 요절(夭折)하였고 박태보 역시 인현왕후(仁顯王后)의 폐출(廢黜)을 반대하다가 장사(杖死)하게 되니 서계의 우암에 대한 갈등과 혐원(嫌怨)은 깊어 갈 수밖에는 없었다.

결국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서계 선생은 우암 송시열과 반목하였고 그의 저술에는 반 우암의 정서(情緖)가 깊게 드리워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서계의 농서 색경에는 우암의 격려사가 들어간 관찬농서 〈농가집성(農歌集成)〉은 단 한 줄도 인용되지 않았고, 특히 농가집성이 옹호(擁護)한 부농 경영에 대응(對

13) 이를 회니논쟁(懷尼論爭)이라 한다.

14) 현재 석천동 계곡에 남아있는 〈水落洞天〉이라는 초서 암각을 남구만이 썼다고 추론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應)하여 노동 집약적인 농업 경영을 집중적으로 피력하게 된다. 나아가 주희의 학맥을 계승한 것으로 자처하는 우암에 대하여 성리학이 절대 이단으로 규정하는 〈노자(老子)〉, 〈장자(莊子)〉를 주해하는 한편, 주희의 입장에 반하는 반 성리학적 대저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하게 되는 것이다.

3) 사변록의 편찬

(1) 사변록의 편찬[15]

서계 선생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부분을 모두 투자하여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한다. 그러나 서계의 대표적 저술인 이 「사변록(思辨錄)」은 미완성인 채로 남고 만다.

그가 경전의 새로운 주해(註解)에 착수한 것은 숙종 6년 그의 나이 52세 때였다. 이 해에 〈大學思辨錄〉을 짓고, 59세 때인 숙종 13년에 〈中庸思辨錄〉을, 60세 때에 〈論語思辨錄〉, 61세 때에 〈孟子思辨錄〉, 63세 때에 〈尙書思辨錄〉을 짓고나서, 65세 때에 〈詩經思辨錄〉에 착수하였으나 〈小雅〉 〈채록편〉에 그친 채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책은 일명 「通說」로도 불리며 모두 14책으로 구성되었는 데, 1冊이 〈大學〉, 2冊이 〈中庸〉, 3冊이 〈論語〉, 4, 5冊이 〈孟子〉, 6, 7, 8, 9책이 〈尙書〉이며, 제 10冊에서 14책까지가 미완으로 끝난 〈詩經〉이다.

이 중 저자가 가장 힘을 기울이고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4서 사변록〉이었다. 이 책을 통하여 그는 지금까지의 통설이었던 주자(朱子)의 〈사서집해(四書集解)〉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특히 〈중용〉과 〈대학〉은 그 장구(章句)의 편차(編次)까지 수정하여 버렸다. 이 두 책은 원래 〈예기(禮記)〉 중에서 따로 발취(拔取) 편집된 것으로 〈대학(大學)〉의 경우에는 서계 이전에도 그 편차가 혼동되었다하여 이를 갱정(更定)하고자 한 이가 있었으나[16] 서계는 〈대학(大學)〉 뿐 아니라 〈중용(中庸)〉에 대하여도 편차(編次)의 고정(考正)을 시도하였다.

그는 당시의 학자들과는 달리 경전에 의해 경전의 본의를 탐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학자였다.[17] 그는 처음 학문에 임함에 있어 고원난행(高遠難行)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문제나 연역적(演繹的) 연구보다는 초보적인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 문제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심원(深遠)한 세계로 이행(移行)하는 귀납적(歸納的) 방법론을 강조하였다. 사변록의 서문에서 서계는 당시 학자들의 고답적(高踏的)인 연구 자

15) 본고의 이하 부분은 이병도의 〈한국유학사〉를 주로 참고 하였음을 밝힌다.
16) 회재 이언적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17) 바로 그런 면에서 서계를 실학의 선구자라고 부를 수 있다.

세를 비판하며 자신의 학문 태도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무릇 가깝고, 얕고, 소략하고 추솔한 것은 헤아려서 알기가 쉽다. 그 용이한 점을 근거로 하여 더욱 깊이 추구해 간다면 지극히 멀고, 깊고, 정밀하고, 구비된 것까지도 모두 인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반드시 여러 장점을 모으고, 조그마한 선(善)도 버리지 아니하여야만 추솔, 소략한 것도 유실되지 않으며, 얕고 가까운 것도 누락되지 않아, 깊고, 심원하고, 정밀하고, 구비된 체제가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18]

(2) 「대학 사변록」에 대하여

그는 먼저 대학 첫머리의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新)民 在止於至善[19]

에 대한 주자의 삼강령설(三綱領說)을 반대하였다.[20] 즉 주자가 "止於至善"을 "明明德", "親(新)民"과 함께 삼강령으로 내세운 것을 그는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대학(大學)」에는 명덕(明德), 친(신)민(親(新)民)의 목(目)은 있으나, 지어선(止於善)의 목이 없으니 강(綱)이 있으면 반드시 목(目)도 있어야 하는데 지어선(至於善)의 목(目)이 없으니 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하여도 서계는 격(格)을 지(至), 궁지(窮至), 물(物)을 사물(事物)의 뜻으로 해석한 주자의 이론에 반대하여 격(格)에는 즉(則), 정(正)의 뜻이 있고 물(物)이 있으면 법칙(法則)이 있는 것이니 "물(物)을 격(格)한다는 것은 즉 그 법칙을 구하여 물(物)의 정상(正相)을 얻도록 힘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격물설(格物說)을 격(格)을 정(正), 물(物)을 사(事)라고 해석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물(物)의 잘못됨을 치양지(致良知)로 바로 잡는다(正)는 의미로 풀이한 왕양명(王陽明)의 학설과 흡사하다.

그의 주자에 대한 반론의 요지는 만일 주자가 말한 대로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사물의 이치가 이르지 않음이 없고 지(知)가 다하지 아니함이 없어, 성(誠)이 성(性)을 진(盡)하여 화육(化育)에 찬(贊)하고 천지에 참(參)하게 된다면 이는 곧 성인(聖人)의 극치(極致)적 공효(功效)로써 학(學)의 능사(能事)가 다 끝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그 다음에 정

18) 사변록 서문, 1966년 민족문화추진회 발간
19) 대학의 길은 명덕을 밝히고 민(民)을 새롭게 하며, 지선(至善)에 머무르는데 있다.
20) 「대학사변록」 제 1장

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등이 수양단계가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그의 공격의 요점이었다. 그의 논지는 유교의 수양단계가 "지근(至近)한 데서 지원(至遠)한 데로, 지비(至卑)한 데서 지고(至高)한 데로" 점진(漸進)하는 것을 그 방법으로 삼고 있으며, 아울러 「대학(大學)」이라는 책 자체가 초학(初學), 입문(入門)의 서(書)인데, 여기에 곧바로 막연(邈然)한 도정(道程)을 말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 뜻을 학자가 일상생활 속의 일사(一事), 일물(一物)에 따라 사물이 지닌 법칙을 살펴 그 법칙의 "정상(正相)", "정체(正體)"대로 처응(處應)하면 의(意)의 소발(所發)도 따라서 성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그의 설명을 통하여 격치(格致)와 성의(誠意)의 관계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물에는 법칙이 있고, 마음에는 지(知)가 있다. 지(知)를 가지고 법칙을 구하면 그 정(正)을 구할 수 있다. 지(知)가 물(物)의 정칙(正則)에 미치면 내 마음은 환해져서 조금도 의폐(疑蔽)됨이 없게 되므로 사물(死物)의 응(應)함에 있어서 의(意)의 작용이 스스로 진실(眞實)한 리(理)를 따르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성(誠)이다."

(3) 「중용 사변록」에 대하여

그는 첫 째 「중용(中庸)」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였다.

「중용(中庸)」 에 대하여 정자(程子)는

"치우치지 않은 것을 일러 중(中)이라 하고, 바뀌지 않는 것을 일러 용(庸)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중(中)은 천하의 바른 도리요 용(庸)은 천하의 정해진 이치니라"

(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 中者天下之正道 庸者天下之定理)

라고 하였고, 주자는 중(中)에 대하여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으며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것을 이른다."

(不偏不倚 無過不及之名)

라고 하였으며 용(庸)에 대하여는

"'평상심', 또는 '본질에 의지할 뿐 이상하거나 괴이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平常心, 依本分 不爲怪異之事)

라고 하여 정자와는 다른 해석을 가하였다. 서계는 우선 용(庸)에 대한 정주(程朱)의 해석이 다름을 지적하고, 이와는 다른 해석을 하여 "용(庸)은 항(恒)의 뜻이 있다"고 하여

"중용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자 하여 그 중(中)을 얻었거든 이를 더욱 굳게 견지하여 잠시라도 이에 미혹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

(中庸者 旣欲事得其中, 尤欲恒持於此而無暫時之或失也)

이라고 하였다. 이는 정자의 해석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중(中)과 용(庸)을 연결시켜 중(中)을 항지(恒持)하는 뜻으로 본 것은 큰 특색이라고 하겠다. 그는 중(中)에 대하여서도 정주와는 다른 해석을 하였다. 즉 그는 정주와 같은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좀 더 고전(古典)의 입장에서 고찰하여, 「상서(尙書)」의 "유정유일(唯精唯一)"과 「중용(中庸)」의 "道也者不可須臾離也"[21]의 두 구절이 서로 표리(表裏)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상서(尙書)의 정(精)은 중(中), 일(一)은 용(庸)에 해당하고, 중용(中庸)의 道也者 는 중(中), '不可須臾離'는 즉 용(庸)이라고 해석하였다. 서계의 이 견해가 정곡(正鵠)을 얻은 여부에 대하여는 금방 판단하기 어려우나 어쨌든 재미있는 일설(一說)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용(庸)을 '恒常恒久'의 뜻으로 보아 '중(中)을 항지(恒持)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한 것은 뒷날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학설과 다름이 없다. 자세하지는 않으나 다산의 설은 아마 서계의 영향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어서 그는 「중용(中庸)」 첫 장의

"천명(天命)을 일러 성(性)이라 하고, 솔성(率性)을 일러 도(道)라 하며, 수도(修道)를 일러 교(敎)라 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에 대한 주자의 해설을 틀리다고 비판하였다. 주자의 주(註)에 '인(人)과 물(物)이 각각 그 성(性)의 자연(自然)에 순(循)하니 일용(日用) 사물(事物) 중에 각각 마땅한 할 바가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인(人)과 물(物)을 병거(竝擧)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물(物)에도 성(性)이 있지만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자연히 구별되어야 하며, 더

21) "도는 잠시라도 분리할 수 없다"

욱이 중용(中庸)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책이요, 물(物)까지 포함하여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능히 도(道)를 알 수 있지만, 물(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의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22] 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 대하여도 그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첫째 주자가 앞에서 도(道)를 천리(天理)의 자연(自然)에 순(循)하는 일용(日用) 사물(事物) 간의 각각 당행(當行)의 로(路)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는 성(性)의 덕(德)으로 심(心)을 구(具)한 것을 도(道)라고 한다면, 앞뒤의 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도(道)란 명칭이 생긴 것은 사람의 인성(人性)에 순(循)하여서 행하는 것이 마치 도로(道路)와 같은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지금 성(性)의 덕(德)으로 심(心)에 갖추어진(具) 것을 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循)도 아니고 행(行)도 아니니 거기에 다시 도(道)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하여 성(性)에 순(循)하여 사물에 행하는 도(道)가 심중(心中)에 갖추어 있다면 비록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중용(中庸)의 학(學)이 솔성(率性)의 도(道)를 강조한 것은 사람이 때로 도(道)에서 이탈이 있는 까닭이니, 만일 도가 심중(心中)에 있다면 이탈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수도(修道)의 필요와 여지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주자의 말에 그 도(道)가 '無物不有 無時不然'[23] 하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더욱 인력으로 능히 떠날 수 없을 것이요, 도(道)가 성(性)의 덕(德)이 되어 인심(人心) 중에 갖추어 있다고 하면서 물(物)마다 그것을 가지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니 그 물(物)은 그 도(道)를 어디에서 취득한 것인가?, 물(物)이 사람을 취한 것이냐, 사람이 나누어 준 것이냐고 비꼬았다.

대개 서계는 중용(中庸)의 '명(命)', '성(性)', '도(道)', '교(敎)'를 그 귀취(歸趣)를 따진다면 결국 서로 같다고 하겠으나, 명칭이 다른 이상 그것을 혼동하여서는 사리 상 본말(本末)의 차제(次第)를 상실하게 될뿐더러 그 개념을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부도불문(不覩不聞)'에 대하여 주자는 만사가 아직 싹트지 않은 '적연부동(寂然不動)'의 상태라고 하였는데, 서계는 그것도 의아(疑訝)를 자아내는 말이라고 하였다. '이미 일심(一心)이 적연(寂然)하였다면 계구(戒懼)를 하려고 하여도 붙일 수가 없을 것이요, 이미 계구(戒懼)를 하였다면 어찌 적연(寂然) 부동(不動)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한 서계는 다시 계구(戒懼)에 대한 예(例)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이 군중 사이에 있어서는 자연 수치심이 있으므로 감히 마음대로 불선(不善)한 짓을 하지 못하지만, 은미(隱微)한 곳에서는 남의 이목(耳目)에 띄지 아니함으로 그 마음이

22) "도는 잠시라도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23) (도가) 없는 물(物)은 없고, 작동하지 않는 때가 없다.

놓여서 불선(不善)한 짓을 하기 쉽다. 이는 도(道)를 떠난 것이니, 도를 떠나고 또 떠나서 습성(習性)을 이루게 되면 비록 군거(群居)하여 드러난 곳에서도 수치를 모르고 불선(不善)을 행할 터이니, 그러면 인도(人道)는 진멸(盡滅)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계신공구(戒愼恐懼)를 하게 하는 것은 그 미점(微漸)을 막아서 잠시라도 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주자의 "미발공부(未發工夫)"에 대한 서계의 비평으로서는 이외에도 소위 "적연부동(寂然不動)"을 무지무각(無知無覺)의 고초사물(枯草死物)에 비하는 상당히 기다란 혹평이 있는데,[24] 이는 마치 뒷날의 정다산(丁茶山)이 주자의 이 설을 비판하여 일념미맹(一念未萌)의 고목사회(枯木死灰)와 같은 상태는 있을 수 없다고 한 것과 서로 공통된다. 이상 서계의 입장을 요약하면, 주자를 비롯한 송(宋) 이래의 성리학자들의 너무나도 관념적인 해석은 실감을 주지 못할뿐더러 도리어 학자로 하여금 혼란과 미혹을 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에 귀착된다.

다음의 문제는 중용(中庸)의 "君子之道 費而隱"에 대한 해석이다. 주자는 이 장에서 '비(費)'를 '用之廣', '은(隱)'을 '體之微' 라고 하여, '비은(費隱)'을 곧 체용(體用)으로 보고, 아래 문장에 이어지는 '夫婦之愚 可以與知焉 及其至也 雖聖人 亦有所不能焉 ..... 天下莫能破焉'[25] 를 모두 비(費)에 관한 설명으로 보았다. 그리고 '은(隱)'에 대하여는 '其理之所以然則隱而莫之見也'[26] 라고 설명하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추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계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즉 말함에 있어 단서(端緖)만 발(發)하여 그 귀취(歸趣)를 말하지 않고, 또 일단(一端)만 들고 다른 일단(一端)에 언급치 않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비(費)를 용(用), 은(隱)을 체(體)로 보는 것은 본지를 잃은 해석이다".

자신의 견해로는 "비(費)는 천근(淺近), 은(隱)은 고원(高遠)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이은(費而隱)'은 군자의 도가 처음에는 낮고 가까운데 지나지 않지만은 그 극치에 이르러서는 성인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심원(深遠)하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 심원(深遠)함은 결코 천근(淺近)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천근(淺近)으로부터 시작하여 얻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

24) 〈중용 사변록〉 제1장 '道也者不可須臾離也' 아래의 주

25) 부부의 어리석은 것으로도 가히 더불어 알 수 있되 그 지극한 데 미쳐서는 비록 성인이라 하여도 또한 능히 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며 ..... 천하라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다.

26) 그 이치가 이와 같으니 그런즉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상에서 주자의 체용(體容)에 대하여 서계가 반대의 뜻을 표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마 체용(體用)이라는 관념적(觀念的)인 용어(用語)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 다시 말하면 서계는 주자의 비실감적(非實感的)인 해석에 반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농암 김창협은 서계의 '비(費)'에 대한 해석을 반박하여

'비'자(費字)에는 절대로 천근(淺近)하다는 의미가 없는데, 그가 제멋대로 두찬(杜撰)하였다.

라고 하였으나, 중용(中庸) 원문의 전후 문맥에 보면, 특히 서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원문의 하문(下文) 중에 '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27] 라고 있음을 보면 '비(費)'를 비근(卑近), '은(隱)'은 고원(高遠)의 의미로 보는 편이 보다 적절한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28] 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서도 주자와 견해를 달리 하였다.[29] 주자는 여기서 인(人)과 물(物)이 본성에 있어서는 공통과 다름이 없으므로 사람이 능히 물성(物性)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계는 "인성(人性)에 있어서는 피아(彼我)의 다름이 없다 하겠지만, 물성(物性)이 어찌 인성(人性)과 같을 수 있으랴"고 전제하고, 맹자(孟子)의 고자(告子)와의 논변을 인용하여 "류(類)가 같으면 성(性)도 또한 같지만 류(類)가 다른데 어찌 성(性)이 같을 수 있겠느냐"고 더욱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본문을 부연 해석하되

○ 남과 나의 성(性)은 다 같으므로 나의 성(性)을 진(盡)하면 그 교화(敎化)가 내쳐서 또한 남으로 하여금 그 타고난 성(性)을 다하게 할 수 있다. 인(人)과 물(物)은 그 성(性)이 비록 다르나 그 물리(物理)를 사람이 가히 추지(推知)할 수 있으니, 그것은 나의 마음이 이미 리(理)에 밝아 류(類)로 미루어 동(動), 식물(植物)로 하여금 각각 그 타고난 성(性)을 진(盡)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사람은 리지(理智)를 통하여 사물의 성질과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27) 군자의 도는 멀리 가고자 하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높이 오르려하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28) 능히 그 성(性)을 다하면 타인의 성(性)을 다하고, 타인의 성(性)을 다하면 물(物)의 성(性)을 다하며.. 〈주용 29) 사변록〉 제 13장

에 의하여 사물의 사물 된 소이(所以)의 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상기 주자의 관념적(觀念的)인 해석에 비하여 월등(越等)히 합리적(合理的)이고 실증적(實證的)임을 알 수 있다.

(4) 맹자(孟子) · 논어(論語) 사변록

다음으로 맹자(孟子)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중용(中庸)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성(人性), 물성(物性)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 〈離婁 下〉의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人去之 君子存之"[30] 에 대하여서도 서계는,

○ 인(人)과 물(物)이 다른 소이(所以)는 오직 그 성(性)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위 기희(幾希)이다. 범인(凡人)이 성(性)을 버린다는 것은 그 성(性)을 갖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며 군자(君子)가 그것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 성(性)을 따르기 때문이다.[31]

라고 풀이하였다. 그런데 주자의 영향을 받은 성리학자들은 대개 인성(人性) · 물성(物性)은 다 같이 천지의 이치를 타고나서 성(性)을 삼는데, 단지 형기(形氣)의 차(差)로 인한 편(偏)과 전(全) 때문에 다르다고 하였다. 서계는 이에 대하여 매우 불합리(不合理)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 만일 사람이 그 성(性)이 전(全)한 이유로 금수와 구별된다면, 저 금수들은 부전(不全)하기 때문에 모두 그 성(性)이 같다고 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

○ 만일 개와 소가 인성(人性)의 일편(一偏) 씩을 가졌음에 대해 사람은 그 전(全)을 구유(具有)했다고 하면 합당한가? 부서진 구슬이라도 온전치 못하기는 하나 본래 성(性)이 같지 않은가? 따라서 편(偏)과 전(全)으로 인(人) · 물성(物性)의 차이를 말함은 불가(不可)하다.

라고 하였다.

부서진 구슬이나 온전한 구슬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인성(人性)은 전(全)하고 물성(物性)은 편(偏)하다 하여 양성(兩性)이 다르다는 주자학

30) 점은 매우 적은 것이니, 일반 사람은 〈성性〉을 버리고 군자는 〈성性〉을 보존한다.
31) 〈맹자 사변록〉 이루 하

적 해석은 논리상 성립될 수 없다. 인(人).물성(物性) 편전(偏全)의 문제가 당시 학계에 대두하기 시작한 때이므로, 그는 여기에 더욱 변핵(辨覈)을 거듭하였던 것이거니와, 그의 전후의 논지를 살피면 성리학자 류의 관념적 견해에서 차차 탈피하여 실증적인 학문에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예는 〈盡心 上〉의 "萬物皆備於我矣"[32] 에 대한 해석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자는 만물(萬物)의 이치가 내 몸의 성(性) 속에 갖추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서계는 이렇게 보지 않고 단지 외물(外物)과 나와의 상관성을 말한 것으로 보았다. 즉 그는 리(理)가 갖추어 졌다는 주관적(主觀的)인 해석을 물리치고, 실증적(實證的)인 관점에서 외물(外物)과의 접촉 관계에 있어 그 대비(對備)하고 대응(對應)하는 도(道)를 성실하게 하여 외물(外物)로 하여금 그 성(性)과 본분(本分)을 얻게 하면 그것이 바로 "萬物皆備於我矣"요, 그 책임과 즐거움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매우 실감나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는 역시 〈盡心 下〉의 한 부분에 대한 해석문제이다. 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먼저 본문(本文)을 들고 해석의 차(差)를 말하는 것이 편리할 듯하다.

孟子曰 (a)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於安保也 性也 有命焉 君子不性焉 (b)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之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 有性焉 君子不謂命也[33]

위의 A절(節)은 구(口), 이(耳), 목(目) 비(鼻), 사지(四肢)와 관련된 다섯 가지의 감성(感性)을 말한 것이고, B절(節)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및 천도(天道) 등 다섯 가지 이성(理性)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정주(程朱)의 해설을 들어보자. A절(節)에 대하여 주자는 정자의 설을 인용하면서, 이(耳), 목(目), 구(口), 비(鼻), 사지(四肢) 등 다섯 가지가 '성(性)'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성(聲), 색(色), 취(臭), 미(味), 안보(安保) 등이 부귀(富貴), 빈천(貧賤) 등과 같이 반드시 나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닌 즉, 명(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자는 그것을 성(性)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B절(節)에 대하여 정주(程朱)는

32) 만물이 모두 내게 갖추어 졌나니라.

33) 입의 맛에 있어서, 눈의 색(色)에 있어서, 귀의 소리에 있어서, 사지의 안보(安保)에 있어서 그것은 성(性)이나 명(命)이 있으므로 군자는 성(性)으로 삼지 않느니라.
인(仁)의 부자(父子)에 있어서 의(義)의 군신(君臣)에 있어서 예(禮)의 빈주(賓主)에 있어서 지(智)의 현자(賢者)에 있어서 성인(聖人)의 천도(天道)에 있어서 그것은 명(命)이나 성(性)이 있으므로 군자(君子)를 일러 명(命)이라 하지는 않느니라.

앞의 절과는 달리 품부(稟賦)의 명(命)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계는 같은 명자(命字)에 있어 앞뒤의 뜻이 다를 리가 있느냐고 반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위의 맹자(孟子)의 원문을 해석하되,

○ 이(耳),목(目),구(口),비(鼻) 및 사지(四肢)의 용(用)은 모두 성(性)이 아님이 아니나 성(聲), 색(色), 취(臭), 미(味), 안보(安保)에 있어 득(得), 부득(不得)이 있으므로 명(命) 이라고 한 것이며,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및 천도(天道) 등 다섯 가지도 또한 사람의 성(性)이 아니나, 부자(父子), 군신(君臣), 빈주(賓主), 현부(賢否) 및 행도(行道)에 있어 역시 득(得), 부득(不得)이 있으므로 명(命)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성(聲), 색(色), 취(臭), 미(味), 안보(安保)와 같은 것은 군자(君子)가 사실 이를 본성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구하여 얻으면, 그 명(命)에 편안할 따름이므로 '有命焉'이라 한 것이요, 인(仁), 의(義), 예(禮), 지(智)와 성인(聖人)이 부자(父子), 군신(君臣), 빈주(賓主), 현부(賢否), 천도(天道)에 있어 군자는 그것을 명(命)으로 삼지는 아니하나 오직 나의 도리를 다 할 뿐이므로 '有性焉'이라고 한 것이니 성(性)과 명(命)의 분별이 뚜렷하지 않은가?

라고 하였다.

정주(程朱)가 A절(節)의 성(性)과 명(命)에 대하여는 이를 기질과 명분(名分)으로 구별하면서 B절(節)의 그것에 대하여는 단지 리(理)와 기(氣)로 구분한 것을 서계는 비판한 것이다.

위에 인용한 맹자(孟子)의 원문은 성론(性論)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로서 성리학적 입장에서 논한다면 a절(節)의 다섯 가지는 이른바 기질지성(氣質之性)이고 b절(節)의 다섯 가지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인데, 정주(程朱)는 a절(節)의 명(命)을 득(得), 부득(不得)이 달린 명분으로 보고 b절(節)의 명(命)을 순전히 기품(氣稟)으로 보아 동일한 글자에 대하여 상하(上下)의 해석을 달리 하였기 때문에 b절(節) 전체의 해석을 그르치고 말았다.

다음은 〈논어 사변록〉에 대해 논급할 차례인데, 여기에는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에서처럼 그렇게 도도한 해설이 많지 않다. 원래 논어(論語)에는 이론 보다 실천윤리에 대한 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 서계의 핵심 해설 중 재미있는 것은 농암(農巖)이 비판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다.

〈위정편(爲政篇)〉의 '詩三百一言以蔽之 曰思無邪'[34] 에 대하여 주자는 독시자(讀詩者)로 하여금 무사(無邪)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 서계는 이러한 도학(道學)적 해설에 대하여 "사무사(思無邪)"는 분명히 시 삼백(詩三百) 자체의 내용을 가르쳐 말한 것

이라 하고 이어서 정자의 '思無邪者誠也'[35] 의 해석이 옳다고 하였다.

서계의 이 해석에 대하여 농암(農巖)은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다.[36] 즉 서계가 인증한 정자의 주석 가운데의 성자(誠字)는 실상 '일호(一毫)의 인욕(人慾)이 없는 무망(無妄)을 의미한 것'이므로 그 인증이 틀렸다는 것이다.

농암의 이 비판은 순전히 성리학적 견지에서 서계의 학설을 공격한 것이나, 농암의 변설은 오직 '사무사(思無邪)'에만 그치고 그것과 '詩 三百 一言以蔽之'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즉 주자의 해설을 좀 더 부연하여 변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정자의 성(誠)이 과연 서계의 입장에서 인증적 자료가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나, 시가(詩歌)란 그 내용이 좋건 그르건 간에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곧 '사무사(思無邪)'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시경(詩經)의 시(詩) 삼백 여 편은 공자가 친히 산정(刪定)한 것이라고 전하거니와 그 중에는 음란한 시가도 여럿 들어 있음을 보면 그 산정(刪定)의 표준은 내용의 호(好), 불호(不好) 보다는 도리어 감정 표현의 솔직 여부에 있었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가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때 서계의 '思無邪' 해설은 그 뜻을 얻은 해석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5) 서계 사변록의 반주자적 입장[37]

서계는 「사변록」을 통한 자신의 반 주자적 경전 주해를 두 가지 측면에서 행한다. 고증(考證)의 측면이 그 하나이고, 의미(意味)의 측면이 그 하나이다. 그는 특히 주자의 주해를 이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일일이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그것과 비교되는 자신의 주해를 제시한다. 경학에 입각한 정주(程朱)적 성리학의 극복을 위하여 그는 이 두 가지 통로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우선 경전(經典)에 있어서의 문구 장절의 순서와 형식에 대한 고증을 보면, 그것은 특히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의 경우에 철저하다. 그에 의하면 이 두 가지 경전은 진시황(秦始皇)의 이른 바 분서갱유(焚書坑儒)에 의하여 그 원형(原型)을 잃었다가 한유(漢儒)에 의하여 재정리되고 다시 정자, 주자에 의하여 개편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그 복원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程朱)의 견해에 구애(拘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증(考證)에 입각한 그의 반정주론의 요지이다.

그러나 서계의 고증은 훈고(訓詁)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오로지 맹목적인 객관성에만

34) 시경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삿된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35) 삿된 생각이 없다는 것은 바로 誠이다.
36) 농암집(農巖集) 卷15 與權有道論思辨錄
37) 이하의 부분은 윤사순 등의 〈한국의 사상〉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충실하려는 것이 아닌 점에 특색이 있다. 그의 고증은 결코 문의(文意), 내용을 무시한 채 경전의 원형 복구에만 주력하는 종류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상 내용을 이루는 문의(文意)에 치중하는 방법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고증은 사상의 합리성을 밝혀내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그에 있어서의 주자학 극복은 어디까지나 사상적 측면을 주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다.

서계에 의하면 사상적으로 볼 때, 육경(六經)의 본지(本旨)는 매우 정밀(精密)하여 이해하기 어려운데다가 그 실마리는 천만 갈래로 갈라져서, 비록 뛰어난 지식과 깊은 조예(造詣)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어느 한 두 사람으로서는 그 귀추(歸趨)와 미세(微細)한 부분까지 다 알 수 없다.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적은 이해라도 버리지 말고 한데 모아서 이해하여야만 그 만전(萬全)을 기할 수 있다.

결국 정주(程朱)의 주해(註解) 만으로는 육경(六經)의 본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전치 못한 약점을 보충(補充), 보완(補完)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해를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辯)을 앞세우면서 서계는 다음과 같이 정주(程朱)이 약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한다.

○ 전(傳)에서 말하기를 멀리 가는 것은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롯한다고 했다. …… 그러므로 이른 바 깊다는 것도 얕은 곳에서 들어가야 한다. …… 오늘날의 육경(六經) 탐구는 거의 다 그 얕고 가까움을 뛰어 넘은 채 깊고 먼 곳으로 달린다. 그 조략(粗略)한 것을 경솔히 하는 반면에 정비(精備)한 것을 본 뜰 것으로 여긴다. 어찌 이상하지 않은가? …… 저들은 다만 그 심원(深遠), 정비(精備)함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천근(淺近), 조략(粗略)한 것 마저 다 잃게 될 것이다.

일상적인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의 천근(淺近), 조략(粗略)부터 탐구하여 실제적 성격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 이른바 '절문(切問) 근사(近思)'에 의한 '下學而上達'하는 공자의 학문 정신이었다. 서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정주(程朱) 철학은 이러한 유학(儒學) 본래의 정신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자가 말하기 싫어한 천명(天命), 인성(人性), 귀신(鬼神) 등 형이상학(形而上學) 문제가 학문의 전부인 듯이 착각되고 비실제적인 형이상학을 도입한 주해(註解)를 일삼는 다는 비판이다.

요컨대 실(實) – (질(質))과 함께 문(文) – (허(虛))의 성격을 조화롭게 갖추려는 것이 공자의 정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문(文)보다 실(實)의 조건을 갖추려는 것이 공자의

정신이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계에 의하면 주자의 학문은 이와 상반된다는 것이다 주자의 학문 성격은 실(實)보다 문(文)에 치중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박세당의 주해는 주자학의 이 성격을 다시 문(文)보다 실(實)로 바꾸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즉 실(實) 치중의 학문 형성을 위해, 그는 다만 외형상으로 공맹(孔孟)의 원시(原始) 유학(儒學)에의 복귀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전회(轉回)를 전제(前提)하고 이루어지는 서계의 반주자적 실학(實學)의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가?

우선 그의 우주(宇宙), 자연관(自然觀)부터 살피기로 한다. 그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 또 (주자는) 말하기를 나의 마음이 순정(純正)하면 천지(天地)의 마음도 순정(純正)하여지고 나의 기(氣)가 순화(醇化)되면 천지의 기(氣)도 순화(醇化)된다고 하였는데 아래의 이론(理論)은 참으로 옳지만 위의 이론(理論)은 역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천지의 마음이란 곧 리(理)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자연과의 합일(合一), 즉 '천인합(天人合)' 사상에 대한 주자 견해(見害)의 일단(一端)을 서계가 비판한 것이다. 주자는 원래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천인동질설(天人同質說)', 또는 우주의인화사상(宇宙擬人化思想)을 토대로 나의 마음과 천지의 마음이 같고 나의 기(基)와 천지의 기(氣)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주자는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적 기(氣)의 조작(操作) 내지 작용에 의하여 천지(天地)의 마음과 천지의 기(氣)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른 바 '천인상감설(天人相感說)'을 믿었다. 이러한 주자의 '천인상감설(天人相感說)'에 대하여 서계는 기(氣)에 대한 상감설(相感說)만 인정할 뿐, 심(心)에 의한 상감설(相感說)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천지의 마음은 하나의 리(理)로써 결코 인간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경험적으로 따진다면, 천지의 마음이란 모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선뜻 인간의 마음과 같다고 할 근거가 찾아지지 않는다. 반면에 물질적 질료를 의미하는 기(氣)의 상호(相互) 관계는 얼마든지 경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육체에서 나오는 힘이 곧 자연의 일부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험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 설 때 우리는 서계와 같이 기(氣)에 의한, 즉 물리적(物理的) 통로에 의한 '천인상감설(天人相感說)'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서계의 철학이 실제성 위주의 '주기(主氣)'라는 경험적 입장에 서 있음을 이곳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개개 사물(事物)로서의 자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주자는 일찍이 리(理) 철학(哲學)을 토대로 만유일체관(萬有一體觀)을 가지고 있었다. 주자의 경우 적어도 그 리(理)의 입장에 설 때에는 나와 남과는 물론, 사물(事物)과 나와의 구별도 해소된다. '인물일체(人物一體)'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서계의 견해에 의하면 '물아이분(物我二分)'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다. 물성(物性)과 인성(人性)이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맹자의 주장과 같이 '류(類)가 다르면 성(性)도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의 '물아이분설(物我二分說)', 또는 '인물이성론(人物異性論)'이야말로 보기에 따라서는 자연에 매몰(埋沒)되었던 의식을 탈피(脫皮)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자연(自然)에 대응(對應)하려는 대립(對立) 의식(意識)의 발로(發露)라는 풀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 본 그의 물리적 통로에 의한 '천인상감(天人相感)'의 견해는 바로 그 자연의 '도구화의 길'에 대한 자각의 일단 이라는 풀이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세적(中世的)인 성리학(性理學)적 자연관(自然觀)이 서계에 의하여 근대적(近代的) 자연관(自然觀)으로 전향(轉向)해 가고 있음을 본다.

서계의 이러한 경향은 윤리(倫理) 및 인간관(人間觀)에 있어서도 일관(一貫)된다.

일찍이 주자는 인간의 성(性)-(본성(本性))과 당위(當爲)의 도(道)를 한 맥락(脈絡)으로 이해했다. 주자는 '성즉리(性卽理)'의 입장에서 선천적(先天的)으로 본구(本具)한 리(理)가 곧 성(性)이고, 그 성(性)의 자연 발로(發露)가 바로 도(道)라 하였다. 당위(當爲)의 도(道)를 절대시하고 강조하려는 나머지 그것을 '불가리(不可離)'의 필연적(必然的)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서계에 의하면 도(道)와 성(性)은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며 도(道)는 또한 가리적(可離的)인 것임을 역설 한다.

특히 솔성(率性)으로서의 도(道)가 사물(事物)에게도 적용될 정도의 필연사임을 주장한 주자의 이론에 반대하여 도(道)의 필연성(必然性)을 부정(否定)한다. 그에게 도(道)는 어디까지나 인위적(人爲的)이고 선택적(選擇的)이다. 주자에 있어서 도(道)가 타고난 전통적 운명의 코스라는 성격을 띠는 데 반하여, 그의 도(道)는 자유로운 개인 의지(意志)의 결단과 성실성(誠實性)의 뜻을 가진다.

서계는 주자의 '심성관(心性觀)' 자체가 지닌 도식성(圖式性)을 비판한다. 주자학에서는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이 마치 인간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심리(心理)이듯이 '인욕을 버리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라'면서 인욕(人慾) 버리는 일과 천리(天理) 보존의 일을 엄격히 요구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두 가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욕을 버리면 결과적으로 천리 보존의 결과에 이르고, 천리를 보존하면 인욕을 버린 결과에 이른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

한다. 그는 심리 파악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심리의 움직임에 착안(着眼)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주자학에서 찾기 어려운 정감(情感) 중시의 태도를 낳는다. 그는 주자와 달리 인간의 정감(情感)을 믿는다. "시삼백편(詩三百篇)"에 대한 공자의 '사무사(思無邪)'를 주자는 독자로 하여금 무사(無邪)한 것을 생각게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반해, 그는 그것을 시(詩) 자체의 무사성(無邪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시가 정감(情感)의 발로(發露)로서 수식(修飾)과 허위(虛僞)가 없다고 그 자신이 믿었던 까닭에 이러한 이해가 나왔음은 물론이다. 추상적(抽象的)이고 공허(空虛)한 천리(天理)에 구애(拘碍)됨이 없이,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해방되려는 그의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심성관을 바탕으로 그는 성인(孔子)의 해석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심성 소유의 '생동(生動)하는 인간상(人間像)'을 그린다. 이 모두가 미약하나마 근대정신의 요소(要素)가 아닐 수 없다.

결론

〈白軒 神道碑文〉[38] 이 〈先正臣〉[39] 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 책은 〈경전을 훼손(毁損)〉한 혐의로 변파(辨破)의 대상이 되었다. 경전을 훼손하였다는 혐의는 이 책의 주해가 주자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명확하지 않은 〈대학〉의 장귀를 정자(程子)의 설에 따라 다시 획정(劃定)하였다. 그러나 〈사변록〉에서 문제가 되는 소위 주자와 다른 주해는 대학장귀의 개정보다는 주해 그 자체에 있었다. 서계는 주희의 경전 주해가 지나치게 고원(高遠)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성인의 가르침은 본래가 평이(平易)한 것인데 이를 지나치게 사유화하여 본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리고 이 지적의 진의는 우암에 의하여 절대화된 주자를 가변적(可變的) 인식의 대상으로 육화(肉化)하는 데 있었고 이를 통하여 도통(道統)의 계승자로 공인된 우암과 그의 도통주의를 공격하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우암의 문인들이 〈사변록〉을 문제 삼은 이유, 즉 멋대로 장구를 바꾸었으며, 그 주해

38) 백헌 이경석의 신도비문에서 서계는 작심한 듯 송시열을 공격한다. 이 비문에서 서계는 이경석을 봉황, 송시열을 올빼미에 비유하면서 송시열에게 '허탄한 일로 꾸미어 거짓된 행동을 일 삼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39) 우암 송시열을 뜻한다.

가 주자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다는 두 가지에 대하여 서계의 문인들이 변호한 바 역시 그 주지(主旨)는 주자의 해석이라고 해서 그것만이 절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주자 스스로도 경전을 해석하며 〈未詳孰是〉, 〈兩說皆通〉, 〈不敢强解 以俟知者〉 등으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오히려 제자들에게 선현의 해석에 얽매이지 말라고 강조하였다는 것과, 「채침, 「황간」 등 주자의 적통 제자들 역시 주자설을 전신(專信) 한 것은 아니라는 예를 들어 반박하였다

동시에 〈회재(晦齋)〉「이언적(李彦迪)」, 〈퇴계(退溪)〉「이황(李滉)」, 〈사계(沙溪)〉「金長生」, 〈계곡(谿谷)〉「장유(張維)」 등 우리 조선의 선유(先儒)들도 주자의 주석을 고치거나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서계의 제자 「이탄(李坦)」은 특히 「조익(趙翼)」의 예를 들어 조선의 학계에서 주자의 학설만이 절대화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서계는 단지 성인(聖人)만이 〈渾然天理〉하다는 이론을 반박하여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천리(天理)〉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사람에게 저마다 타고난 기질(氣質)이 있음은 인정 하나 그것이 절대 불가변의 천성(天性)은 아니기 때문에 〈學而盡之〉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는 봉건적 신분 질서의 근본을 부정한 것이다

그는 주자의 〈理 - 分殊〉와 〈性卽理〉를 부정하고 〈一旦豁然貫通〉 역시 부정하므로써 개별 사물의 理를 인식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경험과학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이는 사실상 주자 성리학의 전면 부정이었으며, 유교 경전에 대한 뚜렷한 해석 차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도통주의자 우암의 문인들의 입장에서는 서계야말로 더불어 생산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사문(斯文)의 난적(亂賊)일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무시와 경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계의 이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인식론과 실천론 모색의 단서를 여는 획기적인 사변이 아닐 수 없었다.



충남 서산·예산지역

답사기행

글 | 편집부



4월 25일

아침 일찍 문화원마당을 출발하여 달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모두들 들떠있는 마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며칠간 중국에서 불어오는 지독한 황사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있던 터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황사가 전국을 휩쓸던 날이 언제였던가 싶게 맑고 쾌청한 봄날씨라 마음마저 상쾌하다. 일행이 처음 도착한 곳은 금석학자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金正喜) 고택이다. 주차장이 널찍하게 마련된 곳으로 주변 정리가 꽤나 잘 정돈되어 있다. 버스에서 내리며 우리고장 유적지의 주차시설을 생각해 본다. 서계 박세당 사랑채의 입구, 신숙주 묘역의 입구 등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다.

1. 추사 김정희 고택

이 고택은 추사 김정희의 증조부인 김한신(金漢藎, 1702-1758)이 건립하였다. 김한신은 당시 영조의 부마(둘째딸인 화순옹주의 부군)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수한 목수를 보내 지은 집이다. 따라서 김정희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추사고택은 80.5평으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문간채, 사당채가 있다. 안채는 6칸의 대청과 2칸의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안방 및 건넌방의 부엌과 안대문, 협문, 광 등을 갖춘 'ㅁ' 자 형의 집이다. 안방과 건넌방 밖에는 각각 툇마루가 있고 부엌 천정은 다락으로 되어 있으며,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있는 대청은 6칸으로 그리 흔치않은 규모이다. 이러한 'ㅁ' 자형 가옥은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이른바 '대갓집' 형이다.

사랑채는 바깥 소슬대문을 들어선 마당에 자리잡은 'ㄱ' 자형

충남 서산·예산지역



집이다. 원래 사랑채와 안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가택 관념이었는데, 이는 유교적 윤리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랑채는 남쪽에 한 칸, 동쪽에 두 칸의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청과 마루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마루 공간이 큰 것은 주인공의 사회적 활동이나 예술적 활동을 하는데 요긴하게 쓰였을 것이다. 사랑채 댓돌 앞에 석년(石年)이라 각자(刻字) 된 석주(石柱)는 그림자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로 추사 선생이 제작하였다고 한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1786년 6월 3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영조의 부마인 월성위 김한신의 증손이며 이조판서 김노경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 김노영에게 입양되었다.

선생은 조선왕조 후기의 실학자이며 대표적인 서예가로 벼슬은 병조참판과 성균관 대사성에 이르렀으며 당시의 당쟁에 휩쓸려 제주도와 함

경도 북청에서 10여 년간 유배생활을 지내다 말년에 생부 김노경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과천에서 71세를 일기로 1856년 10월 10일(철종 7년)에 작고하였다.

선생은 단순한 예술가에 그치지 않고 시대사조의 구문화체계를 탈피하여 신지식의 기수로서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 들여 신문화 전개를 가능하게 한 실학자인 동시에 선각자(先覺者)이기도 하다.

선생은 북학파의 거벽(巨擘)으로 청(淸)조대의 고증학풍(考證學風)을 도입하여 학문으로는 경학(經學), 금석학(金石學), 문자학(文字學), 사학(史學), 지리학(地理學), 천문학(天文學)에 이르기까지 박통(博通)하여 북한산 기슭의 비석이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巡狩碑)임을 고증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완당집(阮堂集), 예당금석과안록(禮堂金石過眼綠),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 완당척독(阮堂尺牘), 담연재시고(覃揅齋詩藁)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넓고 깊은 학문과 천부의 재질을 바탕으로 한 추사의 예술은 시(詩) · 서(書) · 화(畵) · 전각(篆刻) 등에도 뛰어났으며, 서도(書道)는 추사체(秋史體)라는 독자일문(獨子一門)을 열어 서예사상 지고의 경지를 이룩하였다. 작품으로는 묵란도, 묵죽도와 국보(제180호)로 지정된 세한도(歲寒圖) 등이 있으며, 보물 제547호로 지정된 추사의 인장, 벼루, 붓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추사 김정희 영정



추사고택을 중심으로 좌측에 추사의 묘가 있고, 우측에 옹주와 김한신의 합장묘가 있다. 그 옆에 화순옹주의 열녀 정문이 있는 묘막이 있으며, 그 뒤에 추사의 고조할아버지인 김흥경(金興慶)의 묘가 있다. 이 묘 앞에 천연기념물 제106호인 백송(白松)이 서있다.

이 백송(白松)은 중국 북부지방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에는 몇 그루 없는 희귀(稀貴)한 수종(樹種)이다. 이 백송은 추사 선생이

충남 서산·예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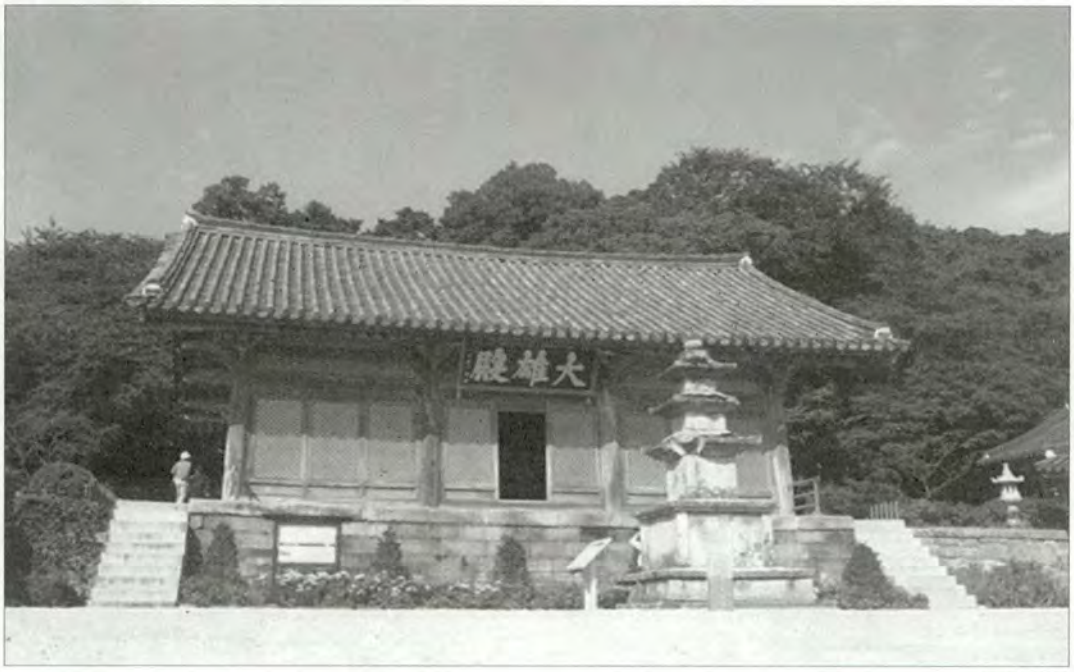
세한도

25세 때 생부 김노경(金魯敬)을 따라 자제군관(子弟軍官) 자격으로 청나라 연경(지금의 북경)에 다녀오면서 씨(種子)를 가져다 고조부 김흥경(金興慶)의 묘소 앞에 심은 것으로 원래 밑에서부터 세 가지로 갈린 수형이었는데, 두 가지는 고사(枯死)하였고 현재는 한 가지만 남아있다. 수령은 약 200년이며 수고(樹高)는 약 10m이다.

2. 선(禪)의 중흥도량 수덕사 (修德寺)

수덕사는 한때 화제를 모았던 '청춘을 불사르고'의 여류시인 김일엽 스님이 이 절에 기거하여 널리 알려졌으며, 원로가수 송춘희가 불러 크게 히트한 수덕사의 여승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이 때문에 여승들만 거주하는 도량인줄 잘못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수덕사는 근현대에 들어서서 경허 성우(鏡虛 惺牛) 스님을 비롯해 만공 월면(滿空 月面) · 수월 · 금오 태전(金烏 太田) · 벽초 경선(碧超 鏡禪) · 대의(大義) · 청담 순호(靑潭 淳浩) · 묘리 법희(妙理 法喜) · 일엽 하엽(一葉 荷葉) 스님 등의 고승이 주석하셨으며, 선(禪)의 중흥지



수덕사 대웅전

로 뿌리내려져 있다.

1984년에 덕숭총림(德崇叢林)을 개설한 수덕사는 종합수도도량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내 암자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선원인 견성암을 비롯하여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이 선풍을 휘날리던 정혜사와 금선대 등이 있다. 수선도량으로서 수덕사는 선(禪)의 생활화와 선풍진작의 계승을 위해 선 실천(禪 實踐)수련대회를 갖는 등 일반인들에게 우뚝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벽초 경선(碧超 鏡禪) · 원담 진성(圓潭 眞性)스님 등이 방장으로 주석하면서 수선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1996년에는 승가대학을 개설해 총림의 위상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일주문 밖의 상가 등을 정비하여 수행환경 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덕사에 가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대웅전

충남 서산·예산지역



수덕사 사천왕문

측면을 보면 가구(건물의 짜임새)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특히나 단청이 다 퇴색하고 자연스러운 나무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다른 곳에 비해 눈에 확연히 들어온다.

그리고 다음에는 직선재와 곡선재의 적절한 배치, 장식적인 포대공과 절묘한 곡선을 이루는 우미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목조가구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7층석탑



덕숭아씨와 수덕도령의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수덕사에 들어서려면 먼저 일주문을 지나야 한다. 일주문에는 〈동방제일선원〉, 〈덕숭산수덕사〉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있어 수덕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가람의 성격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일심(一心)으로 십선(十善)을 닦아야 부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되새기면서 진속의 경계라 할 수 있는



수덕사 경내연등

일주문안으로 성큼 들어가 보자. 수행도량답게 금당으로 향하는 길이 정갈하게 참배객들을 맞이한다.

공간의 위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일주문을 지나 금강문이고 금강문을 지나야 천왕문이 나온다. 참배객들은 금강문과 천왕문을 통과해야 한다. 통과의례처럼 무심하게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곳이지만, 속세와 해탈성지를 구획하는 이 두 곳의 수문장인 금강역사와 사천왕상이 금당으로 가는 이들을 안전하게 이끈다. 금강문과 천왕문은 외부의 잡신들이 경내로 침범치 못하게 하여 사찰을 청정케 하는 수문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법(法)의 집을 지키는 수문신장(守門神將)들인 금강역사와 사천왕들은 험악한 낯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섬뜩하다가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축생(동물)과 아귀(목마름과 배고픔 등 고통으로 가득찬 세상에 사는 중생)를 한발 아래 두고 있는 천왕들에

충남 서산·예산지역



수덕사 법고각

게서, 호령하는 듯 입을 벌리고 곧 내려칠 듯 올라가 있는 역사상(力士像)의 주먹 쥔 손을 보면 웃을 수밖에 없다.

수덕사의 가람조성은 산지형(山地型)이라 조금씩 올라가야 한다. 천왕문을 진입해서도 계단을 오른다. 대웅전과 마주하여 전면에 지어지는 누각이 있는데, 황하정루가 보인다. 강당누각을 가진 사찰에서 중심 불단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누하출입으로 루(樓) 밑을 통과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우각(隅角)출입으로 루(樓) 옆으로 돌아가서 진입하는 것이다. 수덕사는 누각강당을 설치하여 누하(樓下) 진입형식을 취했다. 가람의 규모를 자랑하는 사찰에서는 대체로 천왕문을 지나면 불이문을 설치하는데 수덕사는 불이문은 두지 않았다. 황하정루 누각을 기준으로 속세와 성지를 가름하고 도입부와 전개부로 다시 나누고 있다. 수덕사에서는 여기를 진

속의 참 경계선으로 보는 것이다.

사찰의 금당인 대웅전은 가람배치에서 가장 중심권역에 있다. 중심권역으로 나아가는데 각각의 단을 하단, 중단, 상단으로 나누고 상단 가장 높은 곳에 금당을 배치한다. 수덕사도 그렇다. 불법승 삼보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심권역으로 올라서면 하단 동 · 서측에 법고각과 범종각이 좌우대칭으로 마주하고 있다. 서측 범종각의 뒤편에는 승방 무이당이 동측 법고각의 뒤편에는 조인정사가 있다. 중단에는 대웅전에서 바라보면 좌청룡우백호 형상이라는 요사 청련당과 백련당이 있다. 좌체우용(左體右用)의 개념을 여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좌는 승(僧)을 우는 법(法)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佛)은 상단 중앙에 있다.

국보49호 수덕사대웅전이다. 대웅전과 같은 상단 동쪽 끝부분에 명부전이 있다. 절의 창건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관음바위는 대웅전 아래 서측 청련당 옆으로 돌아서 가면 바로 나온다.

학자들은 사찰의 가람배치에 따른 분류를 하면서 탑의 유무와 수에 따라 단탑식 쌍탑식, 무탑식(無塔式)으로 나누기도 하고 가람이 들어선 대지의 형태에 따라 산지형이니, 평지형이니, 구릉형 등의 유형분류를 하기도 한다.

가람배치 분류기준 가운데에서도 사원건축의 시원을 탑파에서 찾고 있는 만큼 탑은 중요하다. 그래서 단탑식의 경우에는 가람의 중심에 놓이는 정중탑(庭中塔)과 가람배치와는 무관하게 장엄용으로 한구석에 놓이는 경우로 다시 구분 짓는다.

삼층석탑



수덕사에는 세 개의 탑이 있다. 천왕문을 지나 황하정루 진입하기 전에 만공스님이 조성하였다는 칠층석탑이 있으며, 누하진입을 통해 하늘에 닿을 것 같이 공천(空天)만 보이는 계단을 오르면 남북통일과 민족화합을 상징하는 금강보탑이 있다. 한단 더 올라가면 가장 중심인 위치에 고려시대 삼층석탑이 있다. 수덕사가람배치는 정중탑배치인 것이다.

운수납자(雲水衲子 : 구름과 물처럼 수행처를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충남 서산·예산지역



명부전

스님) 들이 수행정진 하는 터, 수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5대총림(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수덕사, 백양사)의 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수덕사는 경내에서 백제의 기와가 발견된 것을 보면 백제시대에 창건된 절로, 현재의 가람배치는 고려시대에 이룩되었다. 경내에는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아울러 고려시대의 대표적 목조 건물인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이 있다.

1936년 건물 중수(重修)시 대들보에서 나온 묵서(墨書)에 의하면 1308년(고려 충렬왕 34)에 건립된 가장 오랜 건물 중 하나로, 정면 3칸, 측면 4칸의 특이한 구조를 가진 주심포 맞배집이다. 정면에서 보면 단순 소박한 주심포와 강한 배흘림기둥이 청순한 조화를 이루고 평이한 빗살문 장식의 세 쪽짜리 분합문(分閤門)과도 조촐하게 잘 어울려 길게 빠진 양쪽 처마 끝과 함께 마치 나래 편 한 마리의 학두루미를 연상케

해 준다. 측면의 아름다움은 더더욱 비길 데 없으니 기둥과 들보가 서로 받치면서 삼각형 4분할 5등분의 정제된 규격미를 자랑하면서 평주와 원주가 적절한 교차를 이루니 무심한 듯 세심하고 소박한 듯 화려하여 그 세련된 품위를 필설로 다할 수가 없다.

내부에 들어서면 천정이 없는 연등천정으로 마치 왕대밭에 들어선 듯 청신한 기운이 전내(殿內)에 가득하고 보(樑)에는 옛 단청이 남아 있어 더욱 조화롭다.

이 건물은 고려의 공예적 건축미를 엿보게 한다. 들보나 연목 어느 하나 주춤거림 없이 죽죽 벋어나 상쾌하게 서로를 가르고 나왔기 때문이다. 일체의 장식이 배제되어 있는데도 극도의 장려(壯麗)한 세련미를 느낄 수 있으니 과연 무기교의 기교가 최상의 기교임을 실감하겠다. 또한 옛 단청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 단청하지 않은 것이 옛스러운 원형미를 잘 간직하였다. 불단에 모신 삼존불은 법당 크기에 비해 다소 왜소해 보이는데, 이는 1938년 무인(戊寅)에 만공 대선사가 전북 남원군 산동면 귀정사(歸政寺)에서 이안(移安)해 온 석가, 약사, 미타의 삼계여래이기 때문이다.

대웅전 건물은 높이 2.4m의 장대석 석단위에 서 있는데 초석은 자연석이다. 그 외 일주문, 종루, 명부전, 금강문 등은 1970년 이후에 건립된 건물이다.

3. 충의사(윤봉길 의사 기념관)

윤봉길 의사 초상화



충의사는 윤봉길 의사의 사당으로 1968년에 처음 건립하여 1978년에 다시 중건하였다. 주차장 왼쪽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2001년도에 현대식 건축 양식에 한옥 기와로 전통미를 가미시켜 427평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최첨단 기법인 열상복합 모형으로 체계적인 전시연출로 역사의 산교육장화 하였다.

충남 서산·예산지역

윤봉길 의사와 김구선생



윤봉길 의사 기념관



윤봉길 의사 복원된 생가



또한 전시실에는 윤봉길 의사께서 사용하시던 유물(보물 제568호)이 전시되어 있는데, 유품으로 경대, 등잔, 벼루, 연상, 연적, 필통 등을 비롯해, 지갑과 중국화폐, 회중시계와 인장 등이 전시되었다. 지갑과 중국화폐는 1932년 4월 29일 상해홍구공원(上海虹口公園)에서 의거 당시 윤의사께서 가지고 있던 것이고, 회중시계와 도장은 1932년 4월 29일 김구 주석과 최후로 작별할 때 정표로 서로 바꾸어 가진 것인데 이것 또한 순국(殉國) 후에 일본 정부로부터 인장과 함께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

매헌 윤봉길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부친 윤황공과 모친 김원상 사이에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1세때에는 덕산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12세 때 일제의 식민지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퇴하였다. 19세 되던 해에는 농촌부흥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농촌부흥운동을 애국운동이라하여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져 국내에서 활동이 어렵게 되자 윤의사는 1930년 23세 되던 해에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그의 나이 25세때인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개최한 일제의 천장절 겸 전승기념 축하식장을 폭파하는 거사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카와바다(河端) 상해거류 일본인 민단장과 시라카와(白川)사령관이 죽고, 수뇌급 수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우리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였다.

윤의사는 즉시 체포되어 그해 5월 25일 상해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동년 11월 18일 일본 대판 위술형무소에 이감되었다가, 한 달 뒤인 12월 19일 금택형무소 교외 삼소우 골병작업장에서 총살형으로 25세의 일기로 순국하였다.

그 후 13년이 지난 1945년 해방되고 광복회 회장이었던

보부상 유물 전시관



이강훈 선생이 1946년 일본으로 건너가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모셔다가 서울 효창공원에 국민장으로 안장하였다.

이곳 충의사는 윤봉길 의사의 영정을 모신 본전지역, 태어나 4세까지 살았던 생가(광현당)지역, 그리고 4세때 이사하여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인 23세까지 살던 성장가(저한당)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윤봉길의사 기념관에는 유물 56점이 전시되어 있다.

4. 보부상 유품

보부상 모습



보부상 유품 전시관에는 조선시대 보부상들이 사용하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보부상(褓負商)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행상인을 말하는 것인데, 토기(土器)같은 일상용품을 지고 다니는 부상(負商)과 장식품 등 세공품을 지고 다니는 보상(褓商)이 있었다. 이들은 조선왕조의 건국에도 많은 협조를 했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병인양요 때에는 군량미를 조달하였다. 보부상의 길드(Guild)적 조직은 조선초기부터 형성된 듯하다.

보부상 모습



조선왕조는 1866년 보부청(褓負廳)을 설치하여 전국의 보부상들을 통합하였는데 1883년에 혜상공국(惠商工局)을 설치하여 보부상을 관장하였다.

1885년에는 혜상공국을 상리국(商理局)으로 개칭하여 부상을 좌단, 보상을 우단이라 불렀다. 1899년 상리국의 좌 · 우단은 상무사(商務社)에 이속되었다.

이 보부상조직은 엄중한 규율과 그들 상호간에 이익을 보호하던 불문율이 있었다. 충남에는 도접장(道接長), 도반수(都班首), 영위(領位) 등 20에 가까운 위계(位階)가 있었다. 도

접장과 도반수는 중앙에서 임명되어 보부상을 통솔 감독하였다. 이들 보부상이 쓰던 도장과 문서 책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충남에는 예덕 상무사 외에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에도 상무사의 유물이 남아있다.

5. 남연군 묘(墓, 덕산면 상가리)

조선 고종의 생부(生父) 대원군 이하응(李昰應: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의 묘이다. 2대에 걸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묘자리라는 지관의 말을 믿고, 그의 부친인 남연군의 묘를 경기도 연천에서 이곳에 이장하고, 그 후 고종이 탄생하였고 왕위에 등극하였다. 남연군은 조선 인조의 왕자 인평대군(麟平大君)의 6세손(世孫) 병원(秉源)의 아들이다.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서자 은신군(恩信君) 진은 숙종의 여섯째 아들 연령군(延齡君)의 손자로 입양되었는데, 남연군은 은신군의 양자가 되었다. 1815년(순조 15) 수원관(守園官), 1821년 수릉관(守陵官) 등을 지냈다. 남연군의 묘는 1868년(고종 5) 독일인 E.J.오페르트 등에 의하여 도굴되는 사건이 있었다. 순조의 묘정 (廟庭)에 배향되었다.

남연군묘







서산 마애삼존불

6. 서산 마애삼존불

4월 26일(수), 숙소에서 일찍 아침식사를 마친 일행은 서산사람을 닮은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곳은 서산군 운산면소재지에서 원평리로 넘어가는 길로 고풍 저수지를 옆에 끼고 강당골의 맑은 하천 건너편에 있으며 가야산의 끝자락인 수정봉 북쪽 산중턱에 위치한 커다란 암벽을 파내고 들어가 부조형식으로 조각된 삼존불상이며 우리나라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불상의 배치는 중앙에 석가여래입상, 좌측에 제화갈라보살입상, 우측에 미륵반가사유상을 배치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불 형식이며

충남 서산·예산지역


서산 마애불 전각

두 입상에 하나의 반가상이라는 독특한 배치이다.

석가여래입상은 조각솜씨도 뛰어나지만 진가는 그 웃음에 있다. 활짝 웃고 있는 유쾌한 얼굴은 독특하고 참신한 개성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인 가운데 젊고 쾌활한 장자풍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여유로운 표현을 학자들은 당시 백제가 국력의 신장으로 외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얼굴은 중국의 북제(北齊) 불상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백제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스타일이며 자비무한하고 순진무구한 백제불교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다.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달라지게 한 것도 백제인의 특이한 솜씨이다. 또한 목이 짧고 삼도가 없으며 복련대좌 위에 서있고 두광의 원안에는 연꽃과, 밖에는 불꽃무늬가 새겨진 보주 형 광배이며, 불꽃 안에 3구의 화불이 조각되어 있다.

좌측에 있는 제화갈라보살은 흔치 않은 보살로 석가에게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준 과거불인 연등불의 보살일 때 이름이며 웃음이 역시 일품이다. 연등불은 과거불이며 석가가 보살일 때 연등불이 지나가는 길이 질척한 것을 보고 석가가 자기머리를 풀어서 밟고 지나가게 했는데, 그 때 석가에게 "장차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준 부처이다. 이 보살의 티 없이 맑은 웃음도 역시 다른 부처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상이다. 흔히 보관에 화불이 있다하여 관음보살이라고도 하나 법화경사사에 의하여 제화갈라보살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우측에는 미래불인 미륵반가사유상이 있으며, 당시 유행하던 풍조가 모두 바짝 마른 형태이지만 여기에서는 통통하게 살이 찐 모양이 생기찬 소년적인 체구로 특이하며 이러한 세부처의 배열은 이곳밖에 없다고 한다.

학계에서는 서산마애삼존불상의 조성연대를 600년경(백제 법왕 – 무왕 때)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백제 불상의 제작연대를 보원사지 출토 금동불입상을 550년대, 태안 마애불을 570–600년, 서산마애삼존불을 600년 전후로 본다. 특히 이곳은 백제가 수도를 공주, 부여로 옮긴

이후 해로로 중국과 교통하던 백제의 고로로서 선박으로 중국을 왕래하던 승려, 사신들이 보원사에 머물면서 조성하고 무사항해를 기도하던 곳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보로 지정된 것은 1962년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백제 후기의 작품으로 얼굴 가득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어 당시 백제인의 온화하면서도 낭만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으며,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각기 달라지며 빛과의 조화에 의하여 진가를 보이도록 한 백제인의 슬기가 놀랍다.

중앙에 본존인 석가여래입상, 좌측에 제화갈라보살입상, 우측에 미륵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석가여래입상은 머리 뒤에 보주형 광배와 미간의 백호공, 초승달 같은 눈썹, 미소 짓는 그 입술은 매우 친근감을 주고 있으며, 또한 두 어깨에 걸친 옷자락은 양팔에 걸쳐 평행호선으로 길게 주름져 있어 입체감을 느끼게 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7. 보원사지

5층석탑



인근에 있는 보원사지는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16호로 서산시 운산면 강당계곡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특징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의 계곡이며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백제 때부터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 근거로 첫째, 백제시대인 550년경 작품인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되고, 둘째, 서산마애삼존불상이 한 사역권내에 있으며, 셋째, 법장화상전에 의상(義湘)의 학편십찰 중의 하나이다. 이후 통일신라, 고려조에 융성했고 조선조 후기에 폐사되었다.

보원사는 475년 한강변에 수도지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공주로 천도한 이후 중국과 교류하던 통로가 막혀, 새로 찾은 알맞은 이곳이 이곳 태안반도의 항구였다. 이 통로주변에 많은 불적이 남아있는데 태안

충남 서산·예산지역

법인국사 보승탑



당간지주



법인국사 보승탑비



마애불상, 서산보원사지 금동불입상, 서산마애삼존불상, 예산군 봉산면의 사방불 등이 있으며 태안 · 서산 · 덕산 · 공주 · 부여로 이어지는 이 길목을 "백제의 옛길"이라 명명한 것이다. 보원사지는 이 백제의 옛길 중 서산에서 덕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어 사신, 승려, 등의 항해 시 기도 처, 항해에 지친 승려들의 쉼터, 수도 처로 조성된 것이다.

보원사지 석조(보물 제102호)는 높이 65cm, 길이 384cm, 폭 175cm으로 그릇을 닦거나 쌀을 씻을 때 사용하였으며, 화강암 원석을 파내어 만들었다.

당간지주(보물 제103호)는 높이 420cm, 폭 37cm, 지주사이 60cm으로 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깃발이나 탱화를 걸어놓았으며, 장대하면서도 부드럽게 조각하고 끝을 둥글게 다듬었다.

보원사지 5층석탑(보물 제104호)은 통일신라에서 고려조의 전형적인 석탑으로, 아래층기단에 사자상을 위층기단에 8부중상을 새긴 것이 특이하다. 또한 이곳에 부처님의 사리장치를 목적으로 세웠으며 1968년에 해체 복원되었는데 사리장엄구가 4층 탑신부에서 나왔다.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탑(보물 제105호)은 높이가 300cm로 고려초(975년) 탄문국사가 입적하고 고려 임금 광종의 지시로 세웠으며, 법인이라는 시호와 보승이라는 탑호는 경종이 내린 것이고, 기단과 중대석, 상대석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조각이 되었다.

그 옆에 있는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 제106호)는 높이 450cm, 비몸높이 230cm, 폭 115cm로 고려초 고승인 탄문국사의 비이다. 975년에 사망하고 임금인 경종의 지시에 의하여 978년에 세워졌다. 귀부, 비신, 이수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보기 드문 대형이며 이수(螭首)의 네모서리는 문양화한 구

름을 가운데 두고 4마리의 뿔 없는 용이 마주보게 배치하였다.

지금은 휑하게 터만 남은 이곳에 군데군데 옛 사찰의 석물(石物)만이 세월의 흐름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 아직도 절터 한쪽에서는 인부들의 발굴 작업이 한창인 장면을 보고 돌아 나왔다.

8. 해미읍성

해미읍성(사적 제116호)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5백여년의 모진 풍파를 견뎌오면서 보존이 잘 된 해미읍성은 충청도 군사최고 사령부인 병마절도사영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후 호서좌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근무, 대원군 시절부터 100여 년간에 걸친 천주교 박해로 1,000명의 집단순교, 18세기말에는 동학군의 주둔과 진압 등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곳으로 원형 복원 및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성은 조선시대에 해안지방에 출몰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혀온 왜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하여 당시 덕산에 있던 병마절도사영을 옮겨 쌓은 것이다. 따라서 이 성의 기능은 충청도의 군사권은 물론 내란방지 등 사회질서까지 담당하는 격이 높은 성이었다. 또한 해미읍성은 1578년(선조 11년)에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이성에서 10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다.

해미읍성



한편 해미읍성은 조선조 말, 당진 지방은 천주교 신자가 많았으며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68년의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덕산 소재 남연군묘를 파헤친 사건이후 천주교도들이 개입된 사건임을 알고 탄압이 극심하였다. 이때 해미진영의 겸영장은 내포지방 12개 군현의 군사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해당지역의 교도들을 모두 잡아 들여 이곳 해미읍성에서 처형하였는데 그 수가 무려 1,000여명이었다고 한다.

충남 서산·예산지역



해미읍성 진남관

처형방법은 회화나무에 철사 줄로 매달고 고문하였는데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 서문 밖 돌다리 위에 자리개질을 쳐서 죽게 하는 방법, 많은 인원을 한 줄로 엮어서 여숫골에 끌고 가 진둠벙에 생매장하는 방법 등이었다.

옥사 터 옆의 회화나무에는 철사줄이 감긴 흔적이 있으며, 서문밖 돌다리는 하천 복개로 본래 있던 자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놓고 보호시설을 해 놓았으며 "자리갯 돌"로 이름 지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처형하면서도 재판 기록을 남기지 않아 신분이나 인원파악이 안 된다. 이와 같이 신도들의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장소여서 1965년부터 성지 조성 운동이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의 순교성지로서 매년 수 만 명의 성지 순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해미는 1418년(태종18) 병마절도사의 군영을 두었고, 1651년(효종2)

호서좌영이 되었다. 이 읍성은 1491년(성종 22) 축성하여 영장(營將)을 두고 서해를 방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석성의 성체길이는 1,800m, 높이 4~5m이다. 동 · 남 · 서에 문루(門樓)가 있는데 1974년에 복원하였다. 남문은 진남루, 서문은 지성루, 동문은 영양루라 하고 남문서편에 포루(砲樓) 두개가 있다. 이 읍성내에 객사 2동, 동헌 1동, 망루 1동이 있으며, 경내 면적은 6,435m²이다.

1886년에는 충청도 각 고을에서 잡혀온 천주교도들이 이 성에 수용되었다가 참혹한 순교(殉敎)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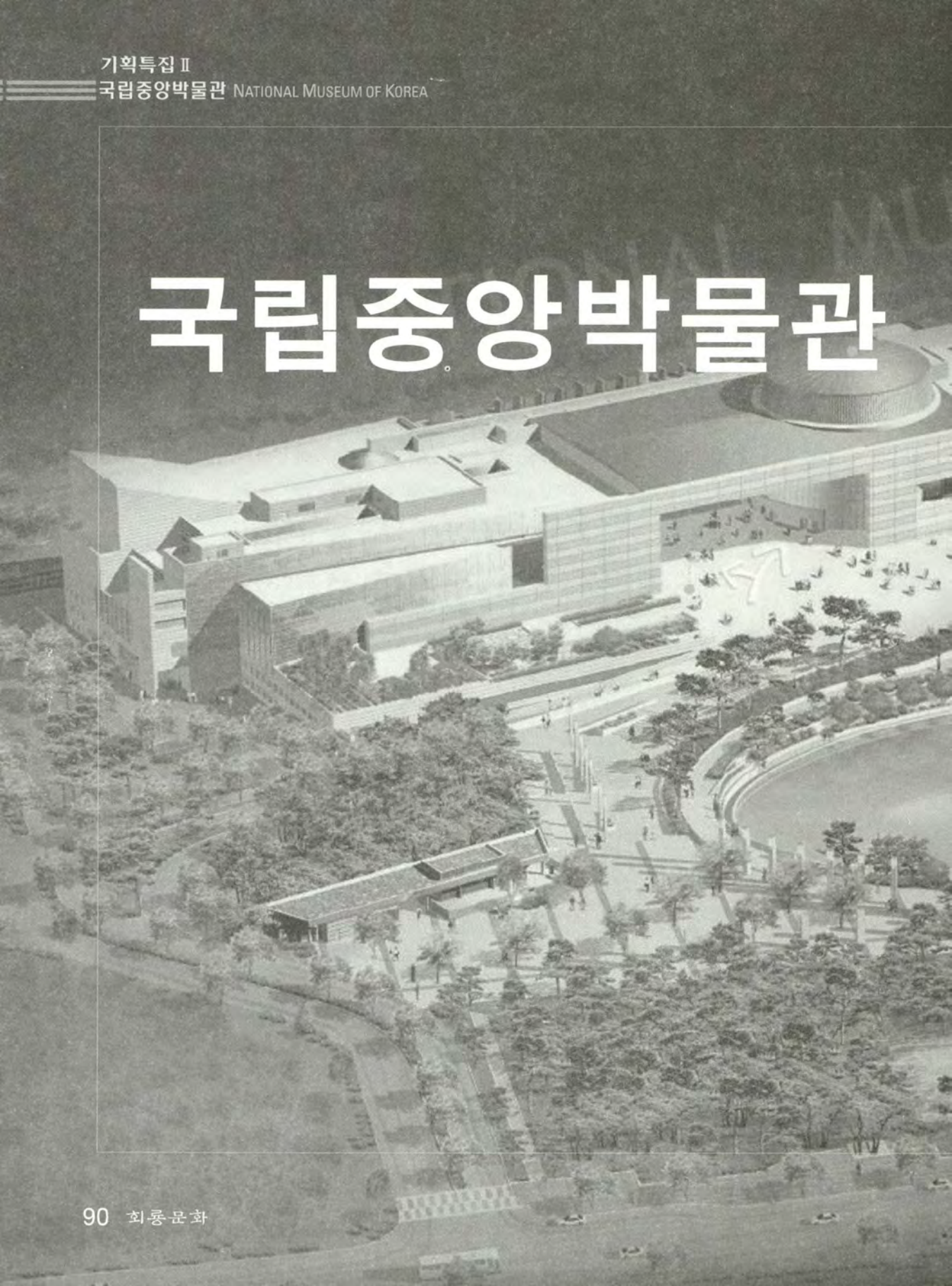
1579년(선조 12) 10월에 당시 35세의 이순신장군이 이곳 병영에서 훈련원 봉사(奉事, 교관)로 10개월간 근무한 일도 있다. 이 성은 한국에 남아 있는 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간간히 실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행은 귀가 길에 유명하다는 광천젓갈 시장을 둘러보고, 분위기가 그럴싸한 하얀 집 대덕산마루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끝으로 이번 답사를 마무리했다.

진남관 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개(하)

목 차

1.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
2.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
3. 상설전시관
   1) 고고관　　2) 역사관
   3) 기증관　　4) 미술관 I
   5) 미술관 II　　6) 아시아관

많은 사람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는 자신이 속한 그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고, 전통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래서 용산에 새로 건립된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글을 참고로 해서 문화가족 여러분 인생의 보다 풍성한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 모로 도움이 되었으며 한다.



지난호에 이어 박물관하편을 소개한다.

4. 미술관 I

2층 북쪽에 위치한 미술관1에는 서예 · 회화 · 불교회화 · 목칠공예실로 각각 나누어 전시되어 있다.

〈서예〉

한국 서예중심으로 구성된 서예실에는 문자예술을 알리는 힘찬 글씨가 역대 서예가들의 필적을 비롯하여 비석 및 탑본 등 서예 자료들을 비롯하여, 금석문에서 시문에 이르는 다양한 글씨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고려시대까지는 순수 필적자료가 드물어 돌에 새겨진 탑본(榻本)을 전시하였다. 한쪽 벽면에 가득 펼쳐져 있는 성덕대왕 신종의 탑본을 보는 즐거움은 글씨가 비석과 종이, 비단 뿐 아니라 종신(鐘身)에까지 새겨졌다는 사실은 새로운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먼저 패널을 통해 시대별 흐름과 서체의 종류를 익히면 작품이해가 쉽다. 특히 이곳의 금석문은 당대의 서체 연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서예는 한자 문화를 수용한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서예는 순수한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서예문화의 자극원이 되어 한국 서예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삼국시대의 글씨에서는 교류 관계에 있던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및 당나라 글씨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북조(北朝) 계통 글씨는 모가 크고 날카로우며 필치가 강하고, 남조(南朝) 계통 글씨는 글씨와 필획 모두 부드럽고 유연하다.

– 조선의 서예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서예는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양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그 문화의 품격을 이어 나갔다. 조선 전기의 서예는 송설체가 주도하였으나, 새로이 조선적인 서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은 한호(韓濩)의 석봉체(石峯體)로 결실을 이루었다. 또한 조선의 서예 분위기는 동국진체(東國眞體)로써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다. 금석학의 연구 및 청(淸)과의 학문 교류는 조선의 서예에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김정희(金正喜)는 한 · 중 서예사 에서 이상적 서체로 평가받는 추사체(秋史體)를 완성하였다.

조선중기에는 성리학의 발전과 함께 서예 문화인 송설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였다. 송설체는 그 아름다움이 지나쳐 본질보다 형상에 매달리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

했다. 이에 송설체를 극복하기 위해 서예의 원형으로 다시금 접근하여 해석하려는 시도, 다시 말해 조선의 정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글씨를 쓰고자 노력하였다. 한호(1543-1605)의 석봉체는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낳은 서체이다. 왕희지 글씨를 기반으로 이루어낸 석봉체는 강한 필력으로 힘을 강조한 굳세고 개성적인 서체이다.


추사 김정희

선조(宣祖, 1552-1608)는 석봉체로 천자문을 만들어 전국에 널리 보급하기도 하였다. 석봉체는 조선 중기 이후 영향력 있는 글씨가 되었으며 현판, 서책 등을 통해 오늘날에도 많이 전한다. 한호는 초서에서도 강함과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였다. 이후 오준(吳竣, 1587-1666)과 같은 석봉체의 대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석봉체를 위시한 개성적인 글씨들은 조선의 고유한 색감을 찾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특히 석봉체는 송시열(1607-1689)과 송준길(1606-1672)에 의해 더욱 발전했는데, 석봉체의 골격에 장중하고 굳센 필치를 결합한 이들의 글씨체를 양송체(兩宋體)라 한다. 송시열의 〈해동건곤 존주대의〉와 송준길의 〈논어 안연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양송체를 통해 굳센 필치와 격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1661년〉를 쓴 허목(許穆, 1595-1682)은 전서(篆書)를 깊이 연구하여 미수체(眉叟體)라는 자신의 글씨체로써 개성을 발휘하였다. 미수체에는 떨리는 필치의 전서체 외에 전서의 느낌을 넣은 행초서도 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석봉체, 양송체, 미수체, 등 개성 있는 글씨의 개발과 지속적인 서예 연구로 조선 글씨의 고유한 색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조선후기인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로 이어지면서 왕희지 해서체를 기반으로 한 서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 분위기의 서풍을 이끌어내는 기초가 되었다.

조선에서는 비석 연구의 학문적 성과가 김정희(1786-1856)의 추사체(秋史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추사체는 예서(隸書)에 바탕을 두고 각 서체의 조형미를 융합한 것으로, 필치에 돌의 거친 질감과 견고하고 강한 느낌, 즉 금석(金石) 기운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사체의 조형미와 글씨는 한국, 중국의 역대 서예사 속에서 갈망하던 모든 이상적인 요소를 통합해 표출한 완성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다. 그러나 추사체로 꽃피운 조선 후기와 말기의



서예 문화는 기화와 일제의 침략, 서구 문화의 밀물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준 높은 정신 예술인 서예는 옛 지식인층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현대 문화에 말려 서사(書寫)의 범주로 전락하는 침체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우리 서예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던 법고창신(法古創新 : 옛것을 토대로 하되, 이를 바탕으로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낸다)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서예의 맥은 다시금 우리 땅에서 새로이 발돋움하고 있다.

서예실에서는 요즘 '조선왕실의 묵향' 이란 주제로 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왕실의 글씨 속 옛 임금의 자취인 왕들이 남긴 서예 글씨들이 전시되고 있다.

〈회화〉

회화실은 산수화, 풍속화, 화조 동물화, 사군자, 궁중기록화와 장식화, 민화 등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조선시대 회화의 흐름과 변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작품을 감상하기에 앞서 옛 그림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아 놓은 공간을 마련하였다. 여기서는 옛 그림에 사용한 안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배웠는지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그림에 보이는 낙관과 제발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어떻게 꾸몄는지 등 그림 감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 사항들을 알 수 있다.



김홍도 풍속화첩

– 한국 회화의 흐름과 경향

한국의 회화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 아래 다채롭게 발전해왔다. 그 중에서도 조선 시대는 가장 다양한 화풍을 배양하고 우리 문화의 자생력을 길러낸 시기였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림 제작을 도맡은 도화서(圖畵署)라는 기구가 설치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많은 전문 화원(畵員)들이 배출되었는데, 화원들은 궁궐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그림 제작에 참여하면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

왕공 귀족이나 문인사대부 출신 화가들도 틈틈이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면서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해나갔다. 그들은 주로

학자다운 면모의 품격 있는 문인화를 추구하였고 새로운 화풍을 발달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회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시기별 특징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에 활동한 안견, 이상좌, 강희안은 주로 중국 직업 화가들의 그림인 이곽파(李郭派) 학풍, 남송원체(南宋院体) 화풍, 명대 절파(浙派) 화풍 등 북종화풍(北宗畵風) 계통을 선호하였다. 안견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화풍을 일구어내는 저력을 보였다. 이암, 신사임당은 새와 동물, 풀벌레를 소재로 삼아 한국적인 정서를 그림에 표현하였다. 조선 중기에 이정, 김명국, 윤두서, 등은 북종화풍과 함께 '사의(寫意 : 마음속에 품은 깊은 뜻)'를 존중하는 남종화풍(南宗畵風)을 추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화가들이 고려시대부터 왕실과 사대부들 사이에서 그리기 시작한 사군자(四君子)그림을 애호하였다.

문예부흥기인 조선 후기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분위기를 잘 반영한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와 풍속화(風俗畵)가 발달하여 조선 500년 회화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진경산수화의 기틀을 다진 정선은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산수를 우리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김홍도와 신윤복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 풍속화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해학적인 정서로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소박한 미의식과 색채 감각을 반영한 민화도 널리 보급되었다.

중국으로부터 명암과 투시원근법 등의 서양화 기법이 소개되면서 김두량, 강세황 등은 이를 적극 이용하여 화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국내외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외래 문물이 급격히 유입되었다. 이 시기의 화단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 김정희는 그림의 기량보다는 그림에 담긴 뜻을 제일로 여겼다. 즉 대상의 외형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높은 경지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진경산수화는 민화에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대신 남종문인화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청나라 문물과 고증학을 애호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서, 허유와 장승업을 거쳐 근 · 현대 화단으로 계속 이어졌다.

– 전통회화의 종류와 그 의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회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영역에 따라 크게 산수화, 사군자화, 화조 · 동물화, 인물화, 풍속화, 궁중기록화와 장식화, 민화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산수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산수화는 인간이 우주의 삼라만상에 대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형상언어로 전달하는 예술 매체이다. 옛사람들에게 자연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자 영적 세계로 간주될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였다. 산수를 그리는 화가들은 산수와 자연



겸재 정선 – 기려심춘(騎驢尋春)

의 형상 속에 도(道)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산수를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기운생동(氣韻生動)하게 나타내려 하였고,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상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없이 산수화를 제대로 그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누워서 산수를 유람한다는 '와유(臥遊)'의 개념은 옛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교감하는 수단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조선시대 산수화는 다양하게 발전해오면서 진경산수화라는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18세기 영 · 정조 때 정선이 이룩한 진경산수화는 한국 산수화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라 할 만하다. 중국의 산수화풍을 모방하거나 관념적인 산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경치를 직접보고 우리식으로 그린 것이다. 이와 같이 진경산수화는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재발견이자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였다.

– 사군자화

산수화와 더불어 문인화가들은 매화 · 난초 · 국화 · 대나무의 그림을 즐겨 그렸다. 조선 전기에 화원을 뽑는 시험에서는 대나무 그림을 으뜸으로 삼았다고 한다. 대나무 그림이 중시되는 이유는 사계절 변함없이 고결한 군자의 전개를 닮아서, 화가의 인품이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인 사대부들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시로 읊기도 하고 그림으로 나타내어 그 풍모와 운치를 완상(玩賞)하였다.



신사임당 – 묵포도

– 화조 · 동물화

꽃과 새, 동물을 그린 화조 · 동물화는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준다. 이규보(1168–1241)의 시속에 "새와 짐승을 그린 것을 완상(玩賞)하려고 좌우에 두네" 하는 구절

이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 새와 동물 그림이 가상화로서 뿐만 아니라 시문(詩文)의 소재로 사랑받아 왔음을 보여준다. 화조 · 동물화는 자연의 흥취와 시정을 느끼게 하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도와 주는 벽사(辟邪)와 길상(吉祥)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애호되었다.

– 인물화

옛 그림에서 인물화의 위상은 어느 영역 못지않게 높다. 인물화는 실존 인물의 용모와 자태를 그린 초상화(肖像畵)를 비롯하여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은자적인 삶을 담은 고사인물화(高士人物畵), 도교의 신선이나 불교의 인물을 소재로 다룬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풍속화

풍속화는 모든 계층의 생활상을 담은 그림이다. 우리나라 회화의 풍속장면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구려 무덤 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되었다. 그러나 풍속화가 본격적으로 그려진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였다.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민족적 자아의식과 서민의식이 싹트면서 크게 풍미 하였는데, 18세기 전반 윤두서(尹斗緖, 1668–1715), 조영석(1686–1761) 등 사대부 화가들에 이러 18세기 후반 김홍도(金弘道, 1745–1806), 김득신(金得臣, 1754–1822), 신윤복(申潤福) 등 화원 화가들에 의해 절정에 이르렀다. 그림의 소재는 대장간, 추수, 사냥 등 농경생활과 생업에 종사하는 장면 외에 씨름, 단오, 뱃놀이 등 풍류적인 삶을 통하여 인간의 정서와 운치를 묘사했고, 사회의 부조리까지도 풍자화 해학으로 표현하였다.



김득신 파적도 – 부분

– 궁중기록화

궁중기록화란 궁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공식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린 그림을 말한다. 왕세자의 결혼이나 책례(冊禮), 왕과 왕대비의 생일잔치, 그리고 왕이 친림하여 주관한 행사들을 보통 8내지 10폭 병풍에 나타냈다. 이러한 궁중행사는 일의 진행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의궤(儀軌)에 기록하였다.



일월오봉도(민화)

– 궁중장식화

궁중장식화는 궁중의례에 사용하거나 궁중의 여러 공간을 장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조선시대 궁중 의례가 다양한 만큼 궁중회화의 수와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왕이 집무를 보는 정전이나 빈전, 혼전 등에 놓인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 궁중의 벽을 장식한 용 그림과 세화(歲畵), 왕세자의 결혼이나 왕과 왕대비 생일의 축하잔치에 사용한 십장생도(十長生圖)와 모란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민화

민화는 전문 화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린 것으로 사물의 형태 묘사나 공간 구성이 세련되지 못한 그림을 통칭한다. 화려한 기교로 다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소망과 감정을 표현하여 보다 자유롭고 소박한 미감이 엿보인다.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색채 대비에서 오는 감각적인 느낌,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에서 민화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불교회화〉

불교회화실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제작한 그림을 주제별, 시대별로 구성하여 전시한다. 고려시대의 경전그림(寫經變相圖)을 시작으로 법당에 거는 다양한 불화, 즉 보살, 나한, 고승 그림 등으로 분류하여 차례로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불화 크기에 맞추어 천정이 높게 설계되었다. 세로 9m가 넘는 부석사 야외 의식용 불화(掛佛)는 법회 때 걸리는 현장감을 살려 노출 전시하고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이다. 올려다보고 있으면 조선후기 전란을 겪은 사람들의 절실한 마음이 느껴진다. 바로 옆 내부계단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가야 상단에 그려진 비로자나불과 양 옆의 약사불, 아미타불을 제대로 볼 수 있다.

– 진리의 그림

불교회화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불화는 예배 대상인 존상(尊像)그림과 부처의 전생설화(前生說話)나 전기를 그린 불전(佛傳) 그림 등을 뜻하지

만 법당을 장식하는 연꽃이나 여러 가지 장식 무늬도 넓은 의미의 불화라고 할 수 있다. 절에서 행하는 예배는 법당(殿閣)안에 모신 불상을 중심으로 한다. 존상화는 법당 중앙에 있는 주존불의 조각, 즉 불상(佛像)을 그린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대웅전(大雄殿)의 석가모니 불상 뒤에는,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그림을 걸어 석가가 인도 마가다국의 영취산(靈鷲山)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한 역사적 장면을 설명한다. 이처럼 불화는 법당의 주인공인 불상에 내재한 속성을 설명한다.



노한나

불화는 그 쓰임이 다양하지만, 의식을 행할 때 예배하기 위한 예배용(禮拜用), 절을 장엄하기 위한 장엄용(莊嚴用),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어려운 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교화용(敎化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쓰임새가 정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서로 그 내용을 겸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상의 뒤편 벽에 거는 불화〈후불화(後佛畵)〉나 야외 의식용 불화 등은 예배용 불화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장엄용 불화로서의 역할 도 한다. 불상의 뒤편 벽면에 그려진 벽화는 장엄용으로 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그린 교화용 불화도 일반 대중을 교화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법당을 장식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장엄용 불화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노상보응성관

– 귀족문화를 대변하는 고려시대 불교회화

불교가 국가종교였던 고려시대(918–1392)에는 개국 초부터 수도인 개성에 십대사찰을 창건하는 등 크고 작은 불사가 끊임없이 행해졌다. 이렇게 조성된 사찰에는 수많은 불화가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축되나 현재 남아있는 고려 불화는 국내에 몇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본을 비롯한 국외에 있다.

– 불교 의식과 괘불

불교 의식은 부처의 힘으로 질병이나 기아, 전쟁, 자연재해 등

과 같은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조선시대는 여러 불교 의식 가운데에서도 죽은 이의 영혼이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천도 의식을 활발하게 거행하였다. 대표적인 천도 의식으로 사십구재(四十九齋), 예수재(豫修齋), 수륙재(水陸齋), 영산재(靈山齋) 등이 있다. 사십구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다음 생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올리는 재(齋)이다. '미리 닦는다' 는 의미에서 유래한 예수재는 생전의 업보(業報)를 미리 닦아 사후에 지옥에서 받을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의식이다. '물과 육지' 라는 의미를 지닌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죽은 모든 중생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거행한다. 괘불(掛佛)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 의식용 불화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화면에 그린다. 현존하는 괘불은 1622년 조성된 죽림사 괘불을 비롯하여 90여점이 알려져 있다. 괘불은 동북아시아 불교문화를 공유했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시대 불교회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 금 · 은으로 쓴 사경

불교에서 경전(經典)은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법보(法寶)로서 불상이나 탑 이상의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전을 그대로 베껴 쓰는 사경(寫經)의 제작은 경전을 널리 유포시키는 공덕을 쌓는 것으로 불교에서 중요한 수행법(修行法)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은 통일신라 때 흰 종이에 먹으로 쓰고 그린 〈화엄경 그림 〈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大方廣佛華嚴經 變相圖)〉이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사경원(寫經院)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사경을 봉안하는 일이 널리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왕실 및 개인 발원의 사경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염원하고, 자신의 현세구복(現世救福)과 수행공덕(修行功德)을 추구하였다. 또한 먼저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공덕경(功德經)으로서 감지(甘紙 : 쪽물로 물들인 파란 종이), 상지(橡紙 : 상수리나무로 물들인 홍색 종이) 등 최고급 종이에 호화로운 금 · 은선묘(金銀泥)로 경전을 써서 봉안하는 불사(佛寺)가 많



묘법연화경

이 이루어졌다.

〈목칠공예실〉

조선시대 유교의 윤리관과 좌식(坐式)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제작된 목가구는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미를 전해준다. 간결하고 절제된 느낌의 목가구와는 달리 장식이 강조된 나전칠기(螺鈿漆器), 화각(華角) 공예품은 우리나라 공예 문화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 가부장(家父長)의 생활공간인 사랑방을 전시실에 재현하여 목가구(木家具)의 배치와 사용 예는 물론 조선 후기 사회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전칠공예

나전칠공예(螺鈿漆工藝)는 옻칠을 한 용기(容器) 위에 자개를 박아 넣어 장식하는 칠공예의 한 분야이다. 단단한 조개껍질을 오려내고 반복해서 옻칠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 과정을 거치지만 검은 색, 붉은색 바탕 위에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특히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우리나라 나전칠기는 나무 용기 표면에 옻칠을 하고 전복, 소라 진주조개의 속껍질을 얇게 갈아 무늬대로 오려 붙여 칠을 한, 무늬 부분의 칠을 긁어내 무늬가 나타나도록 한 목심칠기(木心漆器)가 대부분이다.



나전칠기

– 화각 공예

화각공예(華角工藝)는 얇게 편 소의 뿔에 무늬를 그린 것을 나무로 만든 용기 위에 붙여 장식하는 방법으로 조선 후기에 유행한 우리나라만의 공예기법이다. 이는 바다거북 등딱지의 뒷면을 채색하여 장식하는 대모복채법(玳瑁伏彩法)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외국에서 수입하여 구하기 어려운 대모대신 쇠뿔로 만든 얇은 판에 바다거북 등딱지 무늬를 그려 넣음으로써 이와 비슷한 효과를 얻으려 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나전칠기에서 볼 수 있는



대모복채법이나 화각공예는 재료의 뒷면을 채색하여 물건의 표면에 붙이는 점에서 그 기법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재료를 무늬대로 오려내 채색한 대모복채법과는 달리 화각공예는 재료에 여러 가지 화려한 무늬를 그려 넣어 장식한 차이가 있다.

5. 미술관 II

3층 북쪽의 미술관2 에는 불교조각 · 금속공예 · 도자공예가 각각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에 석조미술이 전시되어 있다.

〈불교조각〉

불교조각실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불교조각의 흐름과 시대 · 주제별 특징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시실에서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만든 중 · 대형 불상과, 국보로 지정된 반가사유상을 별도의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소형 불상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한국의 불교조각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태어난 싯다르타의 사상과 가르침에서 시작하여 발전한 종교이다. 싯다르타는 출가와 고행을 거쳐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 부처가 되었고 석가, 석가모니, 석존과 같은 여러 명칭으로 불렸다.

불교미술은 석가를 비롯한 불교의 여러 신을 찬미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회화, 조각, 건축 등을 가리킨다. 원래 종교적인 의미가 중요했던 불교미술은 근 · 현대에 이르러 하나의 조형미술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건축으로 나누어 감상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불교조각은 나무나 돌을 깎거나, 흙을 빚거나, 동이나 철로 석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신(神)을 형상화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불교조각은 비록 인도에서 유래한 것을 기반으로 했지만, 한자문화권의 사상과 생활 방식 속에서 새로운 도상이 창안되고 특정한 형식이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불교조각은 같은 문화권인 중국, 일본의 불교조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으므로 여러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점점 우리 고유의 풍토와 미감에 맞게 발달하여 후대로 갈수록 그 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 가장 오래된 연대를 지닌 불상

우리나라에서 불교조각은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에 중국 전진(前秦)에서 불경(佛經)과 함께 불상이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어, 적어도 기원후 4세기에는 한반도에 불상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오래된 연대를 지니는 불상은 〈'연가칠년'이 새겨진 부처〉이다. 이 불상의 광배(光背) 뒷면에는 연가(延嘉) 연간의 일곱 번째 해인 기미년(己未年),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있던 동사(東寺)라는 절에서 만든 1,000구의 불상 중 29번째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고구려 불상이지만 신라 땅인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된 이 불상은 생동감이 느껴지는 두툼한 옷과 미소 지은 얼굴이 특징이다.

– 반가사유상


삼성미술관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은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위에 얹고,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 모습의 불상을 말한다. 인도에서 비롯된 이 형식은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에 회의를 느끼며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혹은 일반적인 보살을 나타낼 때 등장하였다. 중국에서 반가사유상은 5–6세기에 독립상이나 협시상으로 만들어졌다. 명문에는 '태자상', '사유상', '용수사유상'과 같은 여러 명칭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6–7세기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주로 독립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반가사유상은 대개가 미륵(彌勒)으로 간주된다. 미륵은 석가모니를 이을 미래의 부처로, 현세에는 도솔천(兜率天)에 머무르지만 미래에는 이 세계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설법할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을 대표하는 작품은 국보 83호와 78호 반가사유상이다. 이 두 불상은 금동불로는 상당히 크며 완벽한 조형성과 철학적, 종교적 깊이를 지닌 걸작이다.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은 일본의 아스카, 하쿠호의 반가사유상 제작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교토 고류 사(廣隆寺)에 소장되어 있는 반가사유상은 국보 83호 반가사유상과 매우 흡사하여 주목된다.

–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전성기

통일신라 전반기 불교조각은 삼국시대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중국 당나라 불교조



약사여래상

각의 영향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세련되고 사실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전에 비해 얼굴과 몸에 살이 오르고 표정은 훨씬 섬세하며, 옷을 감싸는 얇은 옷자락은 자연스럽다. 경주 감산사 터에서 발견된 8세기 초의 〈아미타불〉과 〈미륵보살〉에서 변화의 초기 단계를 볼 수 있으며, 8세기 중엽의 석굴암 조각에서 완벽한 절정에 이른 모습을 보인다.

통일신라 후반기 불교조각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통일신라만의 독특한 경향이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손 갖춤을 한 불상 약사불, 비로자나불이 크게 유행하고, 철을 사용하여 만든 철불(鐵佛)도 많이 만들어졌다.

– 약사불

약사불은 온갖 질병을 고쳐주고 재난에서 구해주며 음식과 옷을 제공하는 등 현세적인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부처이다. 정식 명칭은 약사유리광여래이며, 대의왕불이라고도 한다. 아미타불과 마찬가지로 보살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던 때에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으며, 부처가 된 후에는 동방에 위치한 유리광세계를 다스린다고 한다. 약사불상은 일반적으로 둥근 약단지를 들고 있다. 둥근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불상이 삼국시대에 이미 만들어졌지만 통일신라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약사불상이 유행하였다. 앉아있는 불상의 경우 오른 손은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왼손은 약단지를 들고 있는 예가 많다. 단독상인 경우가 많지만, 사방에 머무르는 부처를 표현한 사방불(四方佛)에서는 동방을 상징하는 부처로 등장한다.

–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은 노사나불이라고도 하며, 진리의 빛으로 온 세계를 비춘다는 의미가 있다. 석가모니처럼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불교의 진리인 '법(法)'을 인격화한 부처로서 법신불(法身佛)이라 한다. 법신불은 세 가지 범주로 정의되는 부처의 몸(佛身) 가운데 하나로, 아미타불처럼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을 하고 공덕(功德)을 쌓은 보신불(報身佛)이나 석가모니처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에 응해 나타난 응신불(應身佛)과 구별된다. 비로자나불은 『범망경(梵網經)』과 『화엄경(華嚴經)』의 주인공이며, 이 두 경전에는 수많은 연꽃

으로 이루어진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에 비로자나불이 머문다고 적혀 있다. 비로자나불상은 중국에서 6-7세기에 등장하였고, 8세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조성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9-10세기에 유행한 비로자나불상은 지권인(智拳印)의 손 갖춤을 한 것이 특징이다. 지권인은 가슴에 올린 왼쪽 주먹에서 둘째손가락만을 세워 오른손으로 거머쥔 자세를 가리킨다. 이러한 손 갖춤은 밀교(密敎)의 대일여래(大日如來)에서도 자주 보이지만 우리나라 지권인 불상과는 달리 보관(寶冠)을 쓰고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이다.


불국사 비로자나불

– 고려와 조선시대, 새로운 미감의 불교조각

고려와 조선시대 불교조각은 통일신라 불교조각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실적인 표현과 세부 묘사와 같은 기술적인 면과 완성도에서는 통일신라 조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시기 불상의 비사실적이고 추상적인 묘사는 종교적인 권위와 초월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고려와 조선시대 불상은 종교미술을 평가하는 기준을 재고하게 한 점에서 중요하다.

고려 전기에는 항마촉지인을 맺은 불상과 지권인을 맺은 비로자나불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크기 10m가 넘는 거대한 불상도 적지 않게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단순하고 육중한 느낌을 강조하였고, 지방에 따라 특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전기보다는 세련되고 온화한 모습이 유행하였다. 특히 14세기에는 둥근 얼굴에 부드러운 옷주름과 정교한 장신구가 돋보이는 불상을 많이 만들었다. 여기에는 얼굴 표정과 장신구에서 중국 원(元)나라 '라마 불상'과 유사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불상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숭상하는 지도 이념으로 인해 불상제작이 다소 위축되었다. 다만 초기에는 왕실의 후원 속에서 화려한 불상을 제작하였는데, 남양주 수종사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불상이 이에 해당한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란 때 훼손된 많은 절을 수리하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였다. 이때 만든 불상은 대부분 조선 초기 불상에 비해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세부 묘사를 적게 한 모습이다. 비록 미적인 기준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전 시기의 불상에 못 미치지만, 조선시대 불상은 이 시기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성문화재단 소장

– 관음보살

부처의 자비심을 상징하는 관음보살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준말로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한다. 관음신앙의 기본 경전인 『법화경(法華經)』에 의하면, '관세음' 이란 중생이 고통받는 소리를 듣고 구원한다는 뜻이다. 관음보살은 이름에 걸맞게 세상 모든 중생의 바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구제해 주는데 이처럼 뛰어난 활약으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불교 신자들로부터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다.

〈금속공예〉

금속공예실에서는 불교공예와 생활공예로 나누어 한국 금속공예의 조형미와 기술의 우수성을 감상하고, 옛 사람들이 누렸던 생활의 격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본격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기에 앞서 금속공예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피고, 이어 공양구(供養具), 사리갖춤(舍利莊嚴具), 범음구(梵音具) 등 불교문화 속에서 사용되었던 공예품과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용구와 장신구들을 감상할 수 있다.

– 한국의 금속공예

금속공예는 금 · 은 · 구리 · 철 · 주석 등 금속이 지닌 특성을 이용하여 물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금속은 다른 재질에 비해 단단하고 빛에 반짝이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 금속의 반짝임은 각종 장신구와 거울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종(鍾)이나 무기(武器)등은 단단하고 녹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의 성질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열에 잘 견디고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로 각종 가열 용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소리의 울림은 종이나 방울의 탄생을 가져왔다.

불에 녹는 금속의 성질은 주조(鑄造) 기법을 가능하게 하였고, 늘어나는 금속의 성질(伸延性)은 두드려 형태를 만들어내는 두드림 기법(鍛造)을 발전시켰다. 합금이 가능한 금속의 성질은 도금(鍍金), 도은(鍍銀) 기법을 가능하게 하였고, 각종 정(釘)을 이용하여 표면을 파낼 수 있는 장점은 음각 · 양각 · 투각으로 무늬를 내거나, 파인 홈에 금속을 끼워 넣는 입사 기법 등의 새김 기법에 적합하여 다양한 공예품 제작에 활용되었다. 인류는 일찍이 금속의 이러한 장점을 취하여 공예 문화를 발전시켰다. 수천 년 전 시작된 금속 문화는 인류 문명의 진정한 출발점이었으며, 금속공예의 발전 과정은 곧 인류 문화의 발전 과정이었다.

– 고분 출토 금속공예품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무덤에 껴묻거리로 넣는 부장용품과 같은 의식용 물건들이나 신분 계층을 표시하는 상징물인 각종 장신구 등이 주목된다. 관(冠), 관장식, 귀걸이, 팔찌, 허리띠, 뒤꽂이, 신 등 삼국시대 장신구들은 대부분 무덤에서 출토된 것들로 화려한 금 · 은 제품이 많다. 5-6세기경의 신라금관과 장신구를 비롯하여 6세기 전반의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화려한 의장의 관장식, 신, 귀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 그리고 수저, 그릇 등의 일상용품은 형태의 아름다움과 제작 기술의 정교함으로 당대의 높은 문화수준을 대변하고 있다.

– 불교전래와 불교공예품

한국의 불교는 372년 중국으로부터 고구려에 불상(佛像)과 불경(佛經)이 전해진 데서 비롯되었다. 곧이어 384년 백제에 불교가 전래되었고 신라는 고구려보다 약 한 세기 반 늦게 불교를 공인하였다. 불교가 융성해지자 신앙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요구되면서 불교 의식과 규범에 의거하여 다양한 공예품이 제작되었다. 또한 사찰 건립과 함께 탑(塔)과 불상을 제작하였다. 탑에는 사리(舍利)를 봉안하였는데 경전에서 정한 것에 따라 여러 겹의 용기에 사리를 담아 안치하였다. 불교 용품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금속공예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전하는 불교 공예품으로는 범종(梵鐘), 향로(香爐), 쇠북(金鼓), 정병(淨甁), 보탑(寶塔), 당(幢), 경통(經筒), 금강령(金剛鈴) 등이 있다.

통일신라는 독자적인 경지에 도달한 불교 사상을 배경으로 금속공예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그 절정에 이르러 〈성덕대왕신종(높이 366cm)〉과 같은 큰 종을 주조하는가 하면, 이 시대 미술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갖가지 형태의 사리갖춤을 탑 속에 안치하였다.



청동 금동정병 국보

– 다양한 불교의식구

불교 의식은 구체적인 의식 절차를 통해 불교 교리를 대중들에게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행하는, 교리에 따른 수행의 실천 방법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식에 사용하던 각종 공예품들을 의식구(儀式具)라고 하는데, 이는 범음구(梵音具), 공양구(供養具), 장엄구(莊嚴具), 승구(僧具), 밀교법구(密敎法具)등으로 나눌 수 있다.

범음구는 범종(梵鐘), 쇠북〈금고(金鼓)〉, 운판(雲板) 등 소리로써 대중을 교화하고 불러 모으는데 쓰이는 도구이다.



감은사 동탑 사리갖춤

공양구는 불단(佛壇)에 정수(淨水), 향(香) 등을 바치는 도구로 정병, 향로, 촛대 등이 있다. 장엄구는 번(幡), 당(幢) 등의 각종 장식에 사용되던 것에서부터 사리 봉안에 사용되는 사리갖춤까지도 포함한다. 승려의 수행 생활에 필요한 승구로는 석장(錫杖), 발우(鉢盂) 등이 있다. 밀교 법구란 밀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뜻한다. 밀교는 삼국시대에 도입되었으나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다. 일본은 엄격한 법식에 의해 일습으로 갖추어진 예가 남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예가 거의 없으며, 금강저(金剛杵), 금강령(金剛鈴) 등이 따로 전한다.

범음구의 대표작인 하나는 종(鍾)이다. 종의 깊고 그윽한 소리는 부처의 진리의 말씀에 비유되기고 했다.

우리나라 종은 그 연원을 중국 종에 두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종과는 다른, 뚜렷한 한국 종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종을 매다는 종류는 중국식의 쌍두룡(雙頭龍)이 아니라 머리와 다리를 힘차게 뻗치고 있는 한 마리 용(龍)이며, 그 옆에는 중국이나 일본 종에는 없는 음관이 장치되어 있다. 무엇보다 종신(鐘身)의 아름다운 선과 소리의 아름다움에서 한국 종의 우수함이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상원사 종(725년)〉과 〈성덕대왕 신종(聖德大王 神鐘)(771년)〉에서 그 뛰어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천흥사 종(天興寺鍾)〉(1010년)과 같이 통일신라 종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종구(鐘口)가 조금씩 넓어지고 용의 자세가 정면을 향하며, 명문은 따로 구획 안에 넣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또한 〈청녕사년(淸寧四年)이 새겨진 종(1058년)〉에서 볼 수 있듯이 어깨 위에는 고려 종 특유의 꽃 장식이 일어서는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 종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소종(小鐘) 제작이 늘어났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교공예품인 향완(香浣)과 정병(淨甁)은 기형의 아름다운 선과 더불어 표면에 홈을 파고 무늬를 장식하는 입사(入絲) 기법의 발달로 특히 세련된 감각의 조형미를 완성하였다. 정병은 본래 승려의 필수품으로 깨끗한 물을 담는 물병이던 것이 부처님 앞에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로 사용되었다.

향(香)이란 본래 악취를 없애고 해충을 쫓기 위해 사용하였지만 잡귀(雜鬼)나 잡념(雜念)까지 제거해 준다고 하여 불교 사찰에서는 물론 각종 제사에도 빠짐없이 사용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의식이 활발히 행해져 향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 그릇인 향로가 여러 형태로 만들어

졌는데, 특히 넓은 테두리가 달린 완(垸)에 나팔형 받침을 지닌 향완(香垸)이 유행하였다. 다양한 무늬가 은으로 입사되었으며, 때로 제작 연대와 제작자, 봉안사찰 이름, 무게 등에 관한 명문도 있어 당시의 불교 공예에 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견고한 내구성과 실용미를 갖춘 생활용구

금속은 다른 재질에 비해 단단하고 강하며 광택이 있고 내구성이 좋아 매우 실용적이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고, 원하는 무늬를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인류는 일찍부터 매우 다양한 생활용품을 금속으로 제작해왔다. 화려한 장신구 이외에 금속제 식기도 일찍부터 제작하였는데 통일신라의 경주 안압지(雁鴨池), 황룡사(皇龍寺) 터, 부여 부소산(扶蘇山), 황해도 평산(平山) 출토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금속의 반사 성질과 광택을 이용하여 만든 거울(銅鏡)은 청동기시대 이래로 주술적이 면이 강하였으나 점차 화장용구로 정착되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섬세한 금속 세공 기술을 발휘하여 화려하고 장식적인 화장용구나 장신구, 실용성을 살리면서도 아름다움을 배려한 여러 생활용구 등을 만들었다.

조선시대는 불교공예품보다 일반 생활에서 더욱 발전하였는데, 고려의 공예술을 계승하는 한편 은제 그릇에 칠보를 입히거나 오동을 입사하여 색채 효과를 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촛대와 담배합 등에서는 바탕을 선으로 쪼아 은입사(銀入絲)하는 새로운 방법도 등장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일반 서민을 위한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와 문양을 지닌 일상용품도 많이 제작하여 공예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발달시켰다.

〈도자공예〉

도자공예실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자기 문화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한국 도자기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려자기, 조선분청사기, 조선백자의 세 영역으로 구분한 전시 공간에는 각 영역마다 시기별, 주제별로 지정문화재와 대표 명



품들을 엄선하여 전시하였다.

– 한국의 자기문화

도자기는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이 하나가 되어 만드는 예술이다. 아름답고 견고한 도자기를 갖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과 함께 신석기시대의 원시적인 토기로부터 다채로운 도자기가 공존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도자기 문화는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토기에서 자기(磁器)로의 혁신적인 도약은 세계 도자기 발달사뿐 아니라 인류 문명 발달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약을 입혀 1,300도의 정도의 뜨거운 불길에서 구워내는 자기는 제작 기술의 성숙과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가마 설비 등 여러 조건이 고르게 충족될 때 완성되는 고도의 섬세한 예술이다. 얇고 반투명하며 매끈한 자기의 제작은 바탕흙에 철(鐵)과 같은 불순물이 들어 있어 회색이나 갈색을 내는 투박한 토기와는 기술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자기는 규석과 장석 등이 함유된 바탕흙에 그릇 표면에 얇게 녹아 광택을 내는 유약을 입혀 1,300도 가량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 완성한다.

〈고려자기〉

삼국시대에는 중국 자기가 고분의 부장품으로 소량 사용되었으나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중국산 백자와 청자가 상당량 유통되어 제한적이나마 상류계급에서 실제 사용했던 것 같다. 익산 미륵사 터, 경주 황룡사 터와 같은 대규모 사찰 터나 완도군 장도 청해진 유적 등에서는 중국 당나라로부터 수입한 백자와 청자 등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른 시기부터 '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 자기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는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자기를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다. 그러나 가마터와 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자료들로 미루어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부터는 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편년 자료는 많지 않으나, 949년 사망한 고려 제3대 임금 정종의 무덤 안릉에서 청자가 여러 점 출토되었고, 경기도 시흥 방산동 등의 초시 가마들이 9세기 말에서 10세기 중국 월주요의 제작 기술과 그릇 모양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며, 황해도 봉천 원산리 2호 청자 가마에서 폐요 직전 가마 바닥에서 〈순화삼년(992년이 새겨진 굽다리 접시〉 및 안릉 출토 청자와 유사한 예

들이 출토된 점들로 보아 우리나라 자기 제작의 시기는 대체로 9세기말에서 10세기 초라고 할 수 있다.

고려자기는 11세기 중엽부터 눈에 띄게 발달하여 12세기부터는 귀족적인 세련미를 보이며 절정기에 도달한다. 예종(睿宗) 연간(1105~1122)에는 중국적인 요소가 거의 사라지며, 이후 인종(仁宗), 의종(毅宗) 연간에는 고려자기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가 펼쳐진다. 고려자기는 양각 · 음각 · 투각 · 상형 · 상감 · 철화 · 동화 · 퇴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아름답고 세련되게 장식되었으며, 일상 용품을 비롯해 기와나 타일 같은 건축 자재까지 만들어졌다. 특히 괄목한 만한 성과는 비취색의 은은한 광택을 띠는 비색(翡色)청자의 완성과 도자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상감(象嵌)기법의 개발이다.



청자 투각 칠보무늬향로

– 비색청자

고려청자의 맑고 푸르른 비취빛은 여전히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이다. 이 비취색은 유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량의 산화제이철(Fe2O3)이 산화제일철(FeO)로 환원하면서 발현된다. 이러한 화학 변화 이외에도 유약 속에 남아 있는 기포(氣泡)의 크기나 밀도, 그릇 표면의 요철에 따른 유약의 두께 등 여러 조건이 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색이다.

비색(翡色)은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비취색을 일컫는 대명사로, 비색 청자의 유약은 반투명하며 그릇 표면에 갈라진 금(氷裂)이 없고 광택이 은은하다.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까지 비색 청자는 세련됨의 극치를 보이는데, 상감 청자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약이 더 투명해지고 광택이 많아지며 빙열(氷裂)이 나타난다. 따라서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청자 제작의 경향은 은은하고 깊은 맛을 지닌 비색유나 아름다운 조형미를 추구하기보다는 맑고 투명한 유약을 통해 생생히 드러나는 상감 무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 고려청자의 종류

고려자기의 종류에는 청자, 백자, 철유자 등이 있으며, 사용된 무늬 기법에 의해 다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청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청자에 시문된 기법을 중심으로 그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순청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청자를 말한다. 이는 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멸할 때까지 가장 많이 만들어져 청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12세기 절정기의 순청자



청자참외모양병

는 티끌 하나 없는 청초한 색깔, 즉 비색이라 일컫는 고려의 하늘빛을 담은 푸른빛과 그에 걸맞은 단아한 형태를 추구했다.

② 음각청자는 조각칼과 같은 도구로 그릇 표면에 홈을 내어 무늬를 새기는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간단한 기법의 청자이다.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후 얼마동안은 무늬 없는 청자 위주였으나 대략 11세기부터 그릇 표면에 음각 기법으로 무늬를 장식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식물무늬를 간단하게 표현하였지만 이후 식물이나 동물, 자연, 그리고 상상속의 동 · 식물 등에서 얻은 다채로운 소재를 표현하였다. 음각은 가늘고 예리한 선에서 부드러운 선으로 변하는데 11세기 중엽 무렵부터 조각칼을 옆으로 뉘여 새기면서 선이 굵어지고 반쯤 양각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국보 97호 〈청자 음각 연꽃넝쿨무늬 매병〉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무늬의 전체적인 윤곽선은 조각칼을 옆으로 뉘여 음각하고 가는 음각선을 이용하여 화맥과 잎맥의 세부를 표현하였다.

③ 양각청자는 무늬 주변을 조각칼로 파내어 도드라지게 만든 청자이다. 음각 기법보다는 화려한 무늬를 나타내는데 이용된다. 양각 기법은 무늬 틀로 찍어내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를 인각(印刻) 또는 양인각이라 한다. 양각 청자의 예로 강진 사당리 당전 부락에서 출토된 〈청자 양각 모란넝쿨무늬 막새〉를 들 수 있다. 막새에 양각된 넝쿨무늬와 모란무늬의 표현이 더없이 세련되었으며, 『고려사』의종 11년(1157)조의 "양이정(養怡亭)이라는 정자의 지붕을 청자로 얹었다"는 기록과 부합되는 유물이라 당시 고려 문화의 완숙함을 엿보게 한다.



청자 대나무 모양병

④ 상형청자는 말 그대로 인물이나 각종 동 · 식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청자를 말한다. 형상의 대표적인 특징만을 간결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실제보다 강한 느낌을 준다. 상형 청자의 형태는 연꽃, 참외, 죽순, 복숭아, 사자, 오리, 원숭이, 상상속의 동물 등 매우 다양하다. 여러 소재들을 자연스럽고 지나친 장식 없이 유려하게 표현하여, 고려청자가 지닌 본래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화려한 귀족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보 60호 〈청자 사자 장식 향로 〉, 국보 61호〈청자 어룡 모양 주전자〉와 국보 95호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가 대표적이다.

⑤ 철화청자는 산화철 성분의 안료로 무늬를 그리고 유약을 입혀서 구워내면 무늬가 검게 나타나는 자기를 말하며, 철회(鐵繪)청자라고도 한다. 철화청자는 환원염 번조(燔造)를 기본으로 하는 청자의 범주에 속하지만 산화염으로 번조되어 갈색을 띠는 예가 많다.


청자 진과 받침대

이 기법은 4세기경 중국 청자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그 전통이 지속되지 않았던 데 비해 고려에서는 초기 청자부터 나타나서 이후 독특한 시문 기법의 하나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다. 철화청자에는 사물의 특징을 간결하면서 운치 있게 묘사한 예들이 많다. 특히 국보 113호 〈청자 철화 버드나무무늬 병〉은 양면에 각각 한 그루의 수양버들을 대담하게 그려 넣은 독특한 세련미가 돋보인다. 이는 섬세한 곡선, 비취색 유약 등의 특징으로 요약되는 상형 청자나 상감청자와는 또 다른 미감이다. 한편 그릇 전면에 철화 안료를 바르고 유약을 입히는 기법으로 제작된 청자가 있는데 이를 철채(鐵彩)청자라고 한다.

⑥ 상감청자는 그릇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파인 부분에 흰 흙이나 붉은 흙을 메워서 청자 유약을 입혀 구우면 흰 흙을 넣은 부분은 백색무늬로, 붉은 색을 넣은 부분은 검은 색 무늬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바탕에 다른 물질을 박아 넣는 기법을 상감(象嵌)이라고 한다. 상감기법은 아미 나전칠기나 은입사 공예에서 폭 넓게 이용되고 있었는데, 고려시대 장인들은 이러한 기법을 도자기에 도입한 것이다. 상감기법의 개발은 세계 도자사에 있어서 빛나는 업적으로, 비색 유약과 더불어 고려 청자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감 기법의 도자편은 이미 9세기 말 10세기 초부터 발견되는데12세기 중엽에 이르러 상감 청자가 매우 화려해지면서 크게 유행한다.


청자 상감 동화 포도동자무늬 주전자와 받침

상감무늬에는 고려인들의 정서와 취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보물1168호 〈청자 상감 대나무 학무늬 매병〉은 한가롭게 깃털을 다듬고 있는 학의 자세 등 사실적인 자연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보이면서 귀족적인 아취를 담고 있다. 또 의종 13년(1159)에 죽은 문공유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국보 115호 〈청자 상감 국화넝쿨무늬 완〉은 편년 자료로서 더욱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이미 상감 무늬가 매우 세련되어 이 완의 제작 시기보다 이른 시기부터 상감 기법을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⑦ 퇴화청자란 붓을 이용하여 붉은 흙이나 흰 흙으로 무늬를 그리는 점에서 퇴화청자는 철화청자와 같다. 그러나 안료가 그릇 표면에 두껍게 발라져 무늬 부분이 도드라진 점이 서로 다르다. 음각 · 양각 · 상감 기법의 무늬 주위에 퇴화 기법의 점이나 선을 곁들여 장식하거나 무늬 전체를 자연스럽게 그려준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퇴화 청자로는 〈청자 양각퇴화 여의두 연꽃무늬 병〉과 〈청자 상감 퇴화 풀꽃무늬 주전자 받침〉이 있다.

⑧ 동화(銅畵) 청자는 구리가 주성분인 안료를 사용하여 무늬를 그리고 청자 유약을 입혀서 구워내면 무늬가 적갈색으로 나타나는 도자기를 말하며, 이는 진사(辰砂)청자라고도 한다. 구리 성분 안료는 번조 조건에 따라 녹색, 검은 색, 붉은 색 등 다섯 종류로 색의 변화가 나타난다. 구리는 청자를 번조하는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는 증발되어 버리므로 낮은 온도의 도기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높은 온도에서 번조하는 자기에 붉은 색을 띠는 구리 안료를 사용하여 성공한 예는 고려시대 장인들이 세계에서 처음이었으며, 그 시기는 12세기로 알려져 있다. 전면에 구리 안료를 입힌 청자도 있으나, 상감 기법과 병행하면서 대개 붉은 색조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구리 안료의 사용이 명나라 선덕 연간(1426-1435)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점으로 보아 고려의 동화 청자는 상감 청자와 함께 고려 장인들이 얻은 또 하나의 개가라 할 수 있다.

⑨ 금채 청자란 상감 청자의 유약 표면에 다시 금으로 무늬를 장식한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금채 청자는 대부분 13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 예가 매우 드물다. 『고려사』에는 충렬왕 23년(1297) 원나라에 금으로 채색한 옹기를 바쳤으며, 조인규(1237-1308)가 원의 세조에게 화금자기를 헌상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하는 유물로는 〈청자 상감금채 원숭이무늬 항아리〉가 있다. 개성 만월대의 고려 왕궁 터에서 발견된 이 항아리는 상감 무늬의 인접 부분에 선을 음각하고 여기에 금채를 하였는데, 금을 붙이는 기법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금분을 발랐을 것으로 본다.


양각 분청사기 모란무늬 항아리

⑩ 연리무늬 청자란 철분의 함량이 다른 청자토 · 백토 · 자토를 섞어 반죽하여 성형한 후 유약을 입혀서 구워내면 각각의 흙이 회색 · 백색 · 흑색으로 나타나 투명한 유약 속에 마치 대리석 결과 같은 자연스러운 무늬가 형성되는데, 이를 연리무늬(練理文) 청자라고 한다.

〈조선분청사기〉

분청사기(粉靑沙器)는 옛 기록에는 없는 용어이다. 분청사기라는 용어는 1930년대 고유섭(1905-1944)선생이 회청색 바탕흙에 백토를 분장(粉粧)하고 그 위에 투명한 유약을 씌워서 구워낸 조선 전기

의 도자기를 '분장회청사기'라고 부른데서 시작된 것으로,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를 줄인 말이다.

분청사기는 15-16세기 조선 전기에 걸쳐 약 150년간 만들어지던 그릇으로, 고려 말의 질 낮은 상감청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분청사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힘과 자유분방한 매력이 있어 고려청자의 세련된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미를 나타낸다. 도자기의 역사로 볼 때 분청사기는 비록 짧은 동안 만들어졌지만 어느 도자기보다 한국적인 미감을 잘 살리고 있다.

- 분청사기에 새겨진 명문

분청사기에는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에 비해 명문(銘文)이 있는 예가 많다. 명문의 내용은 사기장(沙器匠) 이름, 납품할 관청명, 지방명, 제작시기, 사용처나 등급표시 등으로 구분된다. 관청명을 새기게 된 동기는 『조선왕조실록』태종 17년(1417)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관의 물품이 도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관청에 납품하는 사목기(砂木器)에는 해당 관청명을 새겨서 상납하게 하여 관물(官物)을 훔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분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청 이름은 '장흥고(長興庫)', '인수부(仁壽府)', '덕녕부(德寧府)'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 '예빈시(禮賓寺)' 등이다. 또한 '밀양 장흥고', '경주 장흥고', '언양 인수부', '합천 장흥고' 등과 같이 지방 이름과 관청명이 함께 적힌 예가 많은데 이러한 명문이 새겨진 그릇은 경상도 지방에서 만든 인화 분청사기에 많다.

- 분청사기의 종류

분청사기의 종류는 그릇 표면에 백토를 입히는 방법에 따라서 상감 · 인화 · 조화 · 박지 · 철화 · 귀얄 · 분장의 일곱 가지로 나뉜다. 여기에 사용되는 각각의 기법은 저마다 독특한 장식 효과를 지닌다. 앞서 말했듯이 분청사기는 전국 각지로 흩어진 가마들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되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인화 분청사기, 전라도에서는 박지조화 분청사기, 충청도에서는 철화 분청사기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귀얄 분청사기와 분장 분청사기를 끝으로 분청사기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분청사기 동화 모란무늬 병

① 상감 분청사기는 고려 말 상감 청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서툴고 단순한 선상감(線象嵌)의 단계에 머무르다가 점

차 능숙한 솜씨의 면상감(面象嵌)으로 과감하게 표현되면서 발전하였다. 〈분청사기 상감 모란연꽃무늬 대접〉과 같이 역상감과 면상감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무늬를 나타낸 경우도 많은데, 그릇이 하얗게 분장되어 참신한 분위기를 낸다.

② 인화분청사기에서 보이는 인화(印花)기법은 도장과 같은 틀을 사용하여 무늬를 찍고 그 속에 백토를 메우는 기법으로, 상감 기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화 기법은 13-14세기 고려 상감 청자에도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인화 분청사기가 제작되면서부터 비로소 분청사기는 고유한 특징들이 갖춰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화 분청사기가 발전하게 된 원인은 당시 거칠고 조잡하던 토산 공물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국가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③ 조화 · 박지분청사기란 상감이나 인화 기법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무늬의 구성을 보이는 것이 조화(彫花) · 박지(剝地) 기법을 사용한 분청사기를 말한다. 조화 기법은 그릇에 백토를 입혀 그 위에 무늬를 선각하고, 박지 기법은 무늬를 음각한 후 무늬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긁어내어 회청색 태토와 백색 무늬가 선명한 대비를 이루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조화 · 박지 분청사기는 물고기, 모란, 연꽃, 등의 무늬가 장인의 의지에 따라 기하학적으로 변형되거나 추상화되어 매우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느낌을 준다.

④ 귀얄 분청사기의 귀얄 기법은 돼지 털이나 말총 등으로 만든 '귀얄' 이라는 도구로 그릇 표면에 백토를 칠하는 기법을 말한다. 귀얄의 힘 있고 빠른 운동감은 그 자체만으로 경쾌하고 선명한 무늬 효과를 나타낸다. 귀얄 기법은 조화 · 박지 · 철화 기법 분청사기의 기본바탕을 이룬다.


인화 분청사기 항아리

⑤ 분장 분청사기의 분장기법은 백토 물에 그릇을 덤벙 담가서 분장하는 것으로, 담금 또는 덤벙 기법이라고도 한다. 대개 손으로 굽다리를 잡고 거구로 담그게 되므로 굽 언저리에는 백토가 묻지 않는다. 백토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자국은 꾸밈없는 격조를 느끼게 한다.

⑥ 철화 분청사기는 백토 분장한 그릇 표면에 산화철 안료로 무늬를 그린 것으로 철회 분청사기라고도 한다. 비교적 사실적이면서 해학적인 무늬와 간략하고 극도로 추상화된 무늬의 두 종류가 있다. 철화 분청사기는 분청사기 후반기에 유행하였으므로 다소 퇴락한 양식을 지닌다. 거친 태토를 감추기 위해 백토를 매우 진하게 입히며 제작 수법이 다소 거칠어 굽바닥에 굵은 모래 받침 자국이 있는 예들이 많다.

〈조선백자〉

조선시대 도자기는 분청사기와 백자로 대표된다. 분청사기는 그 화려했던 생명이 비교적 짧았던 반면 백자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사용되면서 조선과 운명을 같이 했다. 조선백자는 절제와 순수미가 돋보이며 유교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 조선왕조와 사대부의 사상과 생활에 적합하였으므로 그 안에 조선의 문화가 담길 수 있었다. 또한 백자는 경기도 광주에 설치되었던 왕실과 중앙관청용 백자제작을 전담하였던 '사옹원(司饔院)'이라는 관청의 하급관청인 '분원(分院)' 즉 관요(官窯)의 설치와 그 운영에 따라 발전하고 쇠퇴하였다.



백자 상감 모란당녀 편병

경기도 광주가 최상품의 백자를 구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지방의 질 좋은 백토가 공급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좋은 태토인 광주토(廣州土)와 풍부한 땔감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수도인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완성된 백자는 한강을 이용하여 왕실로 수월하게 운반할 수 있었다. 이렇듯 도자기 산지로서 광주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었고 광주는 조선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백자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 조선백자의 종류

조선백자의 기본은 순백자에 있다. 조선백자의 종류는 순백색 바탕 면에 어떤 종류의 안료를 사용하여 무늬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상감백자, 청화백자, 동화백자로 크게 구분된다.



백자 철화 매화 대나무 무늬 항아리

① 순백자

순수한 백색 자기를 말하는 순백자는 질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고려 백자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유백색의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15세기까지 제작되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 元 · 明시대 경질(硬質) 백자의 영향을 받아 만든 희고 단단한 경질 백자로 15세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백자가 바로 이 계통이다. 아름다운



백자 청화 매화 대나무 무늬 항아리

순백자를 선호하였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백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순백색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순백자는 조선시대 말까지 조선 백자의 중심을 이루었다.

② 상감백자

상감 백자는 연질과 경질의 두 종류가 있다. 그릇 표면에 가는 금이 그물처럼 번져있고 부드러운 우윳빛을 띠는 연질 상감 백자는 고려 백자의 맥을 이은 것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 가마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며 그릇의 모양이나 무늬가 상당히 세련되었다. 지방에서 만든 연질 상감 백자의 편년 자료로는 1466년의 연대가 있는 국보 172호 〈진양군 영인 정씨 묘지〉와 이와 함께 나온 〈백자 상감 꽃무늬 편병〉이 알려져 있다. 반면 경질의 상감 백자는 조선시대 관요가 있던 경기도 광주 일대 15세기 가마터에서 주로 발견된다. 상감 백자의 무늬는 중국 명나라 청화 백자의 영향을 받은 짜임새 있는 넝쿨무늬 계열과 분청사기의 소탈한 넝쿨무늬 계열의 두 종류가 있다. 상감 백자의 제작 시기는 15세기로 집중되어 있으며 16세기에는 소멸된다.

③ 청화 백자

청화 백자는 코발트가 주성분인 안료를 사용하여 푸른색 무늬를 그린 백자를 말하는데 옛 기록에는 '靑畵' 또는 '靑花'라고 했으며, 아주 드물게 '靑華'라고도 하였다. 당시 청화 안료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값이 매우 비쌌다. 그러나 청화 백자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산 청화 안료를 개발하고자 노력한 기록들이 세조 연간인 1460년대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값비싼 청화 안료를 사용하여 백자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전문 화원의 몫이었다. 해마다 왕실용 자기 제조를 담당하는 사옹원 소속 관리가 궁중 도화서의 화원을 인솔하고 관요에 나가 백자의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백자에는 우아하고 세련된 품격을 갖춘 작품들이 많다.

④ 철화 백자

철화(鐵畵) 백자는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여 흑갈색 무늬를 그린 것으로 철회 백자라고도 한다. 이는 전시기에 걸쳐 제작되었는데, 특히 17세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여파로 정국이 불안하고 전국의 가마가 파괴된 상태여서 청화 백자의 안료인 코발트를 구하기 힘들었다. 반면에 철화 안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17세기 에는 철화백자가 본격적으로 유행한다. 석간주(石間硃)로 통칭되는 이 적갈색 철화 백자는 생활 자기로 생산되어 임진

왜란 이후부터 조선말까지 일반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였다. 15-16세기의 철화 백자는 대체로 양질 백자에 궁중 화원의 세련된 솜씨로 무늬가 그려진 작품들이다. 극히 적은 수량이 남아 있지만 이 시기의 철화 백자에는 중국적인 장식 요소가 거의 없다. 철화 백자는 15세기 중반 경부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 동화 국화 무늬 병

⑤ 동화 백자

동화(銅畵) 백자는 붉은 색으로 발색되는 구리 성분 안료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릇 표면에 칠을 한 백자를 가리킨다. 이를 진사(辰砂) 백자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도자기에는 붉은 색으로 장식된 예가 매우 드물다. 고려청자 중에서도 동화 청자는 그 수를 꼽을 정도로 희귀하다. 조선시대에는 전기와 중기에 붉은 색으로 장식한 백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아있는 작품은 거의 없고, 대체로 18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된 듯하다. 철화 백자에서 볼 수 있던 추상화된 무늬는 동화백자에서 더 과감하게 변형되어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인 표현이 많다. 19세기에는 〈백자 청화동화 장생무늬 항아리〉와 같이 청화 백자에 구리 안료를 곁들여 흰 바탕에 푸르고 붉은 색이 어우러지는 비교적 화려한 백자가 유행했다.

〈석조미술〉

석조 미술품 가운데 탑은 박물관 남동쪽 정원에, 승탑과 탑비는 박물관 건물 앞에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의 길에는 경천사 십층석탑과 경기도 여주 고달사터 석등이 등이 전시 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석조미술

옛 사람들에게 돌은 그 강인함과 영원한 생명력으로 인해 신성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주위에 널려 있는 친근한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런 돌을 이용하여 도구(道具)를 만들기도 하였고, 선사시대 족장들의 무덤인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 옛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신앙을 커다란 바위에 갖가지 그림과 부호로 새기기도 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왕의 무덤을 돌로 만들기도 하고, 업적(業績)을 돌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뒤로는 돌로 부처님을 만들고, 탑을 만들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입구에 선돌과 돌장승을 세워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풍요와 다산을 빌기 위해 남근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두 석조미술품인 것은 어니다. 단순히 돌을 다듬는 것을 뛰어 넘어 거기에 아름다움을 담아냈을 때 비로소 석조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국시대 불교와 함께 들어온 석탑(石塔), 승탑(僧塔), 탑비(塔碑), 석등(石燈) 등 불교와 관련된 석조물이야말로 진정한 석조미술품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불교와 함께 시작된 석조미술은 삼국시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고, 통일신라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석굴암 조각, 불국사 다보탑,과 같은 우리나라 석조미술의 명작이 거의 이시기에 나타나는 것에서도 이를 헤아릴 수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는 각 계층의 요구에 따라 고품격의 명작에서부터 질박한 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래의 석조미술이 저마다의 특징을 발휘한 시기였다.

6. 아시아관

3층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관에는 중앙아시아 · 중국 · 낙랑유적출토품 · 신안해저문화재 · 일본실로 유물이 각각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많은 수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열대우림의 나라 인도네시아. 300여 종족이 수 백개가 넘는 고유언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문화 · 종교 · 관습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실에는 청동도끼, 금제 허리띠 등 국보급 유물들이 고대문화를 전해주고 있다. 그들이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불교, 힌두교 관련유물을 보면서 전시실 안에 퍼져있는 종교의 향기에 취하게 된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당당한 어깨, 강인함이 엿보이는 청동부처상 앞에 선다. 어부들의 수호신으로서, 험한 바다에서 생활하는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느껴진다. 귀중한 문화재로 6개월 후에는 다시 돌아간다 하니 한참을 더 바라보게 된다. 조금은 낯설어 보이는 비쉬누, 시바, 가네샤 등 힌두신이 그 옆으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보관(寶冠), 옷, 장식물로 한껏 치장한 두르가에서 관음보살의 모습이 교차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신앙심이 유물 하나하나에 배어 있다. 아시아 관을 통해 우리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느낌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국가나 민족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각자의 고유함 속에 또 다른 문화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가네샤 석조신상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실로 들어서면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가 한눈에 들어오는 붉은 빛 지도가 맞아준다.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멀리 지중해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족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했다. 이로 인해 문화의 교류와 화합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것을 창조했다. 전시물은 일본 오타니 탐험대가 수집해온 것으로, 고아복과 더불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나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복잡한 역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베제클릭사원의 서원화(誓願畵)를 보면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인지 보는 기쁨과 더불어 귀중한 유산을 약탈당한 그곳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란히 놓여진 불두들에서 시대별 동서양 문화의 어우러짐이 잘 나타난다. 천부흉상(天部胸像)은 신이기 보다는 그 시절을 살았을 정갈한 세속의 여인같이 다가온다. 통통한 얼굴, 높게 틀어 올린 머리, 붉은 의상, 이마의 화전까지 기마여인상(騎馬女人像)은 당대(唐代)의 유행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를 초월하여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여인의 마음은 같으리라. 익살스런 표정의 목제인형과, 벽화 토기 등 부장품에서는 보다 나은 내세를 기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엿보인다. 그 동안 쉽게 볼 수 없던 문화이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다.

중앙아시아는 아시아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를 통해 고대부터 지중해 지역, 서아시아, 인도, 중국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를 배경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국제적이고 절충적인 미술과 문화가 탄생하였다. 현재 사원 터에 남아 있는 벽화, 조각 등과 옛 주거지와 무덤에서 발견된 일상생활과 내세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은 이 지역에서 한때 번영했던 여러 오아시스 국가의 미술과 문화를 잘 보여준다.

– 종교미술

중앙아시아에서는 서아시아와 인도에서 발생한 조로아스터교, 불교, 마니교, 이슬람교를 비롯하여, 기독교의 한 종파인 네스토리우스교가 전해졌다. 각 종교는 여러 지역을 거쳐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다른 민족이 같은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교 활동에서 중심이 되었던 사원과 이를 장식했던 벽화와 조각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래한 미감과 표현 방식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었다.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된 사원, 제단, 상(像), 납골함 등은 쿠샨 미술과 소그드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니교 신앙은 전래 초기에는 소그드인이, 8세기 이후에는 위구르인이 중심이 되었다. 9세기 이후 위구르인이 지배했던 서역 북도의 투르판 지역에는 마니교도의 종교 생활을 보여주는 필사본, 회화, 석굴사원, 벽화 등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네스토리우스교의 신도들을 주제로 한 벽화가 투르판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종교미술은 불교미술이다. 특히 불교가 융성했던 동 투르키스탄 지역에는 현재까지 많은 불교 사원이 남아 있다. 미란, 호탄, 쿠차, 투르판 지역에서는 평지에 세웠거나 석굴로 만든 사원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본생도(本生圖), 불전도(佛傳圖), 여러 부처의 설법도 등으로 장식된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알려진 벽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예는 서역 남도에 위치한 미란의 사원지에서 발견되었다. 3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미란 벽화에는 이목구비가 큰 인물이 음영법(陰影法)으로 표현되어 있어, 헬레니즘과 간다라 미술과의 연관 관계가 잘 드러난다. 서역 북도의 쿠차 부근에 위치한 키질 석굴의 경우, 시기에 따라 인도, 서아시아, 중국 회화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특징적인 양식은 라피스 라줄리를 사용한 푸른색이 많은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보다 동쪽에 위치한 투르판의 베제클릭 석굴사원의 벽화는 필선과 색채 면에서는 중국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서원화(誓願畵)와 같은 특징적인 도상과 공양자의 표현 등에서는 지역적인 특징이 잘 드러난다. 벽화 이외에도 사원 안팎을 장식할 때 사용했던 비단, 마포(麻布), 나무판에 그린 그림, 경전 삽화, 판화도 발견되었다.

불교 조각의 경우 간다라 조각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연적인 양식과 도상이 발달하였다. 주로 사원의 중심부에 안치되거나 벽면을 장식했던 것이다. 나무와 청동으로 제작한 예도 있지만, 이보다는 재료가 구하기 쉽고 제작 방법이 용이한 소조상이나 스투코 상이 주류를 이룬다 제작 방법을 보면 손으로 빚거나 틀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든 후 불에 굽거나 그대로 말렸다. 그 위에는 색을 칠해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조각은 이목구비가 중심에 모여 있는 얼굴 모습과 채색법에서 이 지역만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중국〉

중국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온 박물관 소장품만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고대유물 · 도자기 · 회화로 구성되었다. 시대적 특성을 쉽게 비교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주제를 시대 순으로 나열하였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중국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보았다.

중국은 세계 고대 문명의 하나인 황하 문명의 발생국이다. 광활한 영토와 여러 민족을 바탕으로 중국의 문화는 수천 년 동안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황하문명의 채도, 청동기시대의 청동예기, 남북조시대의 불교미술, 당대의 삼채, 송 · 원대의 자기, 청대의 회화는 찬란했던 중국의 전통미술과 문화를 잘 보여준다.

〈신안해저문화재〉

신안해저문화재는 우리나라의 서남 해안인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침몰되어 있던 중국 무역선에서 건져낸 원나라 때의 교역품을 가리킨다. 이 선박은 14세기에 무역 상품을 싣고 중국 저장 성(浙江省) 닝보(寧波)를 떠나 일본으로 가던 중 난파되어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다. 수중 발굴을 통해 발견된 도자기 등 3만 여점의 유물은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무

역 및 동아시아인의 생활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일본〉

일본문화는 수용과 변형의 연속이다. 일본인은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인색하지 않아 스스럼없이 자신의 문화를 '잡식성'이라고 한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내부의 '조화'를 중시하면서도 외부의 문화를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중국, 한국 등의 아시아로부터 서양 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종교의 심오함, 귀족의 우아함, 무사의 강인함, 권력자의 화려함, 서민의 자유로움 등, 각 시대의 정서에 부응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일본 문화를 형성해왔다.

아시아 관을 통해 우리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느낌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국가나 민족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각자의 고유함 속에 또 다른 문화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중앙박물관에서 2007년 3월 18일까지 기획전시중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명화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루브르박물관전〉은 2006년 한 · 불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국내 최초의 루브르박물관 소장품 전시이다.

본 전시는, 교과서에 인용되었던 걸작 등을 비롯하여 프랑스 국왕들이 직접 애장한 회화 작품들로 이루어져 한국 관람객들에게 세계 최고급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프랑스 최고의 전성기였던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400년 동안 국왕들이 열정적으로 직접 컬렉션한 아름답고 희소가치가 높은 최고의 작품들을 한국에서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라고 하니 시간이 허락하는 분을 한번 들러 보기를 권한다.〈 끝 〉



프랑수아 파스칼 시몽 제라르
〈프시케와 에로스〉, 1797년



프랑수아 부셰
〈목욕하고 나오는 다이아나〉, 1742년



외젠 들라크루아
〈격노한 메데이아〉







40년, 오직 한 길 만우양복점

시내 중앙로에 위치한 만우양복점 안에 들어서니 깔끔하고 밝은 모습의 최종석 사장이 손수 맞아준다.

그는 경남 거창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집안의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세살 때 부친이 사망하고 난후 가세가 기울었다. 거기에다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형님들마저 잃게 되었다.

그 후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를 도와 생활하던 중, 16세의 소년 최종석은 쌀1말을 어머니 몰래 자루에 훔쳐서 가출을 하게 된다. 그 쌀 판돈이 200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는 그의 눈가가 촉촉하다. 그 200원을 갖고 부산행 기차를 타게 되었고 내린 곳이 부산역 광장이었다.

3일을 내리 굶은 터라 시장했던 소년은 역 앞의 식당으로 들어가 잡일을 하며 숙식을 해결 하게 된다. 일주일가량 그런 생활을 하던 중 매일 식사하러 오던 식당 옆 양복점주인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사장은 본격적으로 재단기술을 배우려면 여기보다 중심가가 낫다며 번화한 부산 광복동 만우양복점에 소개시켜 주었다. 그곳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5년간 열심히 재단 및 재봉에 관한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후 나이가 21세가 되던 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군대에 갈 나이가 된 최종석은 군 입대를 하여 훈련을 받고 28사단에 배치된다. 동두천에서 군대생활을 하던 최종석은 가까운 동료들과 의정부에 놀러 나오곤 하였다.

군대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던 날에 어머니 사망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 장례를 치른 후 의정부에 와서 정착하게 된다. 전에 동두천에서 군생활을 하던 중 의정부의 제일 큰 고려양복점을 봐둔 터라 망서림없이 의정부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양복점에 입사하여 밑바







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했다. 본격적으로 재단기술도 시작하면서 청년 최종석의 근면 성실함을 인정한 이성호사장의 소개로 현재의 부인과 결혼도 하게 되었다.

그 후 1967년에 고려 양복점으로부터 분리해 중앙로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상호는 맨 처음 재단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부산 광복동의 만우양복점을 회상하여 같은 상호로 결정하였다. 이제는 두 형제들도 모두 출가시키고 여유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매우 좋아 보인다.



1967년에 창업할 당시 시내에는 양복점이 약 30여개가 있었지만 70~80년도 중반까지는 양복주문이 많아서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그러나 맞춤양복이 1987년부터 기성복에 밀려기 시작하더니 90년이 되면서 주문량이 30% 정도 감소했다. 대기업에서 기성복에 손을 대면서 시간 제약이 없이 판매장에서 그냥 골라 입을 수 있는 기성복시대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사람의 성격도 급하게 변하게 되고, 이것을 간파한 대기업에서 기성복시장을 점유하면서 맞춤양복시대는 점점 후퇴하게 되었다. 기성제품의 양복은 싸이즈 및 디자인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어서, 맞춤 양복에 비해 고객



입장에서는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호감이 가게 된다. 맞춤양복은 조금 번거로운 면도 있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성복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보편화되어서 이제는 우리 눈에 익숙한 상표의 상점들이 시내도처에 즐비하다.

최종석은 1982년 2월 제33회 이용수 복장문화상을 수상했고, 1983년 6월에는 제 17회 전국주문신사복 기술경시대회에서 특선을 했으며, 동년 10월에는 제25회 전일본 신사복경기대회에서 기술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1984년 7월부터 한국맞춤양복 협동조합 등록업체 겸업을 시작으로 각종 양복맞춤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시내에 맞춤 약복점이 거의 폐업하고 몇 집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요즘은 그나마 체형 때문에 기성복을 입을 수 없는 분들이 찾아주어서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버티어 나갈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어느 분야나 다 불경기라서 어려운 실정이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근면성실하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싱긋이 웃는다.

업주명 : 최 종 석 / 주소 : 의정부1동 152-34 / 전화 : 846-5134







惠元堂 송동은 여사 창작과 봉사의 삶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
서예로 늘 초심자의 마음이
됩니다.

글 | 안희정

송동은 여사는 65년에 지인의 소개로 의정부로 이주,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70년대에 지역 새마을 운동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80년대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 부녀회장 경기도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90년대 들어서는 경기도정자문위원, 의정부시 애향회 부회장, 의정부시 샛별 유아원 원장 등을 지냈고 95년부터 의정부 문화원 이사로서 활동하다가 2004년 부터는 문화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항상 베풀며 사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남에게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는지, 항상 베풀려는 마음인지 자신을 되돌아보곤 한다고 한다.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의 전형으로

송여사는 이미 교육열이 남달리 높은 모친의 영향으로 덕성여자대학 국문과를 졸업한 인텔리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앞장선 주역으로 활동했다.

고교를 졸업하던 해에 6.25전쟁이 일어나 대학 진학이 늦어지기도 하는 등 시대의 아픔을 겪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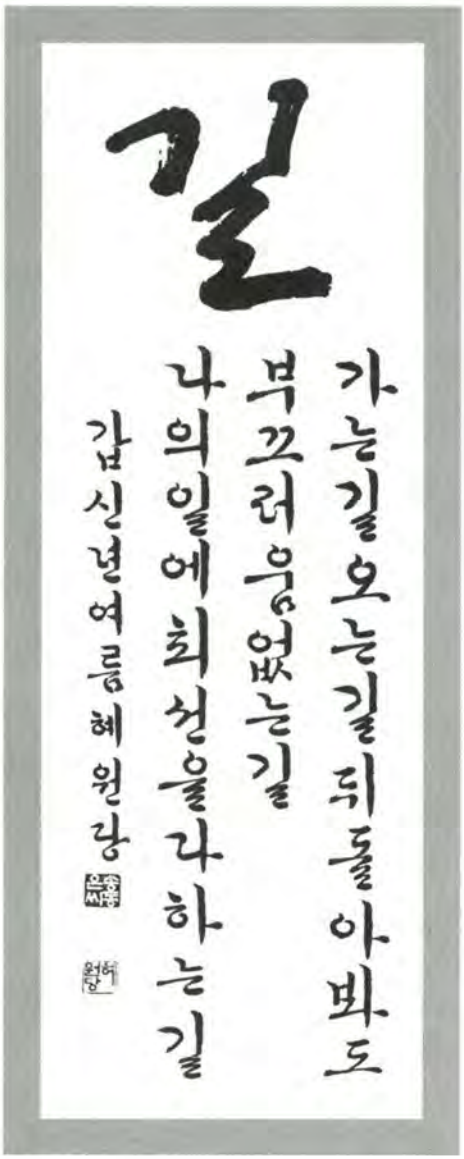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시대에 의정부에서 활동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
의정부4동 새마을 부녀회장, 자유총연맹 의정부시 부녀회장 지내

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의 삶을 이끄는 가장 큰 힘으로서 작용했을 것이다.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현재 외손자들도 미국에서 조기 유학중이라고 한다. 또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80년대 초에 여행을 하기 시작해 동남아, 유럽 등지를 모두 섭렵했을 정도다.

처음 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여느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쇼핑과 사진촬영에 열중하다가 그것들이 다 쓸모없고 낭비라는 생각에 이제는 여행 그 자체를 즐긴다.

또 몇년전에는 아들이 함께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해서 모처럼 만의 즐거운

가족여행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미 다녀온 곳이니 가지 않겠다고 거절 했다가 아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다녀왔다고 한다. 송여사는 노모가 평상시 친지들과 여행을 잘 다니셨기 때문에 자신은 어머니와 여행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아들이 자신보다 낫다며 쓴 웃음을 짓는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앞선 삶을 살아온 세대로서 요즈음의 사회에 대한 견해를 묻자 송여사는 '오염된 공기 등 환경문제와 젊은 층의 실업문제, 노인인구 증가'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짚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는 배운 것만큼, 노력한 만큼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즉 바람직한 사회가 무엇인지를 제시했다.

한편 노인들에게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인 만큼 자녀들에게 효를 강요하거나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 더불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남녀 각자의 성역할인 만큼 맞벌이할 경우 외에는 집안일이나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을 남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사랑받는 아내로서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아침은 꼭 해서 먹으라"는 충고를 덧붙인다.

그는 또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는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어린 남녀들을 볼때마다 '그 애정이 끝까지만 가라'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한다.

〉〉노인 건강대회에 출전 – 대상

송여사는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집을 나서 여성회관으로 향한다. 운동은 런닝머신과 자전거타기, 스트레칭 등으로 11시까지 계속된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특히 자신만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예의범절을 배워 항상 바른 몸가짐을 유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다고 한다.

지난 2002년에는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노인건강대회'에 출전해 대상을 차지. 확실한 건강진단을 받기도 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개인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지도를 받고 운동을 하던 중 지도선생의 추천과 권유로 노인건강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 여기서 갖가지 신체검사로 예선을 통과하

고 본선에서 외모와 재치, 정확한 발음과 자기표현 등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차지했다. 자신보다 훨씬 고령의 참가자가 수상을 하려니 생각했으나 송여사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고희전, 희수전 - 그칠없는 열정으로



평상시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송여사는 90년도부터 취미 생활로 서예를 시작했다. 그런 취미 생활이 이제는 지역의 중견 서예가로서 왕성한 작품 활동과 교회 등지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또 다른 활동의 계기가 되었다.

서예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며 다수의 출품전에서 여러번 입상을 하기도 했으며 98년에 고희 작품전시회와 함께 자신의 삶을 모은 수필과 논설, 평생의 사진들을 수록한 작품집을 발간했다.

지난해에는 희수(77세)전에 출품을 위해 여성회관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펄프공예를 배웠다. 매주 화요일에는 교회 은빛대학에서 서예를 가르치기 때문에 펄프공예시간이 다 끝나서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서부터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펄프를 손으로 다듬고 염색하며 아름다운 작품들을 하나하나 완성하여 희수전에서 더욱 풍부하고 깊어진 서예작품들과 함께 전시, 다양한 창작품들을 선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와석 연서회전

서예의 독특한 창조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여유의 미학을 깨우쳐주고 정화의 신성성을 느끼게한다

지난 11월 4일 경기북부 여성회관에서 여러 문인들과 서화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臥石 研書會展'이 성황리에 열렸다.

연서회전에서 김태훈 문화원장은 "의정부 서예인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속에 열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였고 "서예의 독특한 창조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여유의 미학을 깨우쳐주고 정화의 신성성을 느끼게 한다"며 "묵향이 우리 의정부 시민의 마음밭에



향기로운 물결로 펼져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축사 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송여사는 두 폭의 가리개에 천자문을 선보였다.

그는 "연서회는 주로 교직자들과 서예학원장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연서회를 지도하는 서명택 원장은 욕심없이 끝까지 서예의 길을 걷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한시 공부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는 또 "서예는 다양한 글씨체와 한문, 한글 많은 좋은 문장들이 있기에 새로운 글씨체를 배우려면 항상 초보로 돌아가며 문장들마다 써보고 싶은 욕심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꾸준히 배울 수 있다"며 서예에 대한 그침없는 열정을 드러낸다.



》노모와 함께해 온 70여년의 삶 그 이별의 길목에서… 보내는 편지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는 듣기만하여도 가슴 설레이고 정답고 그리운 아름다운 말이다.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희미해 지지 않고 또렷하기만 하다."

노모가 세상을 떠나신지 8년을 맞이하는 송여사는 여전히 아침이면 노모의 영정 앞에서 아침 인사를 드리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무사히 즐거운 하루를 보냈음을 고하고 문안을 드린다.

1908년 4월 서울 안국동에서 뼈대 있는 가문의 장녀로 출생하여 엄한 교육을 받고 성장한 후, 많은 남매에서 3남매만 남은 부유한 가정의 장남에게 출가하여 첫딸을 낳고 연로하신 시부모님의 귀여움과 남달리 정이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산 것도 잠깐, 겨우 3년만에 喪夫한 뒤 시어른을 모시고 호된 시누이와 개구진 시동생을 거느리며 고달픈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일편단심 그 딸만을 위하여 살아오신 모친에 대한 그리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사무치는 것일까.

고인에 대해 아름다운 외모와 단정한 모습에서 풍기는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상이라고 하며 외손자녀 3남매까지 흐트러짐 없는 사람으로 잘 길러주신 어머니가 실족하여 병석에 누운 이후로 송 여사는 딸을 위하여 평생을 말없이 희생하신 그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수년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간호했다고 한다.

'꺼져가는 등불 같고 건불 같은 힘이지만 그 어떤 큰 힘보다, 강렬한 빛보다 의지가 되는 위대한 것이 어머니의 힘'이라며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시집을

꺼져가는 등불 같고 건불 같은 힘이지만 그 어떤 큰 힘보다, 강렬한 빛보다 의지가 되는 위대한 것이 어머니의 힘



보내주시고 60이 넘도록 지켜봐주신 분이시기에 자신에게는 하나님 같고 천사 같고 어느 세상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절대 보호자였는데 병앓아 누우시니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병간호'밖에 없어 한스러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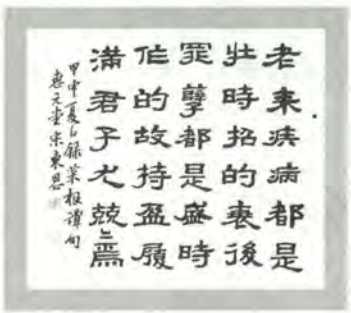
송 여사는 1백일 탈상 후에도 매년 붙이지 못하는 편지를 쓴다.

〉〉사모곡(思母曲) · 1백일 탈상

산천초목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앙상한 가지에 푸른 잎을 달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애타게 불러보아도 통곡을 하여도 대답 없는 어머니…

돌아보면 후회뿐입니다. 무슨 일이 그리 바빴기에 늘 기다림만 남겨드렸는지. 기다림에 지쳐서 떠나셨나요? 어찌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부모는 아무리 연로하여 떠나셔도 가슴 저미고 후회만 남는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당신은 중년의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이 땅에 또다시 진달래, 개나리, 목련화, 벚꽃이 아름다움을



어머니는 하늘에서 꽃을 가꾸다가 그 향기에 취해 길을 잃어 험하고 힘든 이 땅으로 오신 천사



뽐내고 있습니다. 늘 정성스럽게 가꾸시던 우리꽃밭에도 진달래가 피었지만 외롭고 쓸쓸하게만 보인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탐스럽고 소담하게 필수 있도록 이 딸이 잘 가꾸렵니다.

어머니는 하늘에서 꽃을 가꾸다가 그 향기에 취해 길을 잃어 험하고 힘든 이 땅으로 오신 천사였던가요. 그리도 꽃을 좋아하셨으니 말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젊어 보이시고 매사에 분명하며 빈틈이 없으셨지요. 당신이 가고 싶으면 어디고 가시는 어머니였기에 친지들과 관광도 많이 하셔서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한다는 생각조차 못한 부족하고 생각이 모자라는 자식, 이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휠체어도 거부하셔서 고작 서너 번 태워 동네 한 바퀴를 돌았을 뿐이지요.

문 앞에 앉아 오가는 사람과 차를 바라보면서 답답함을 달래시던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고 눈에 밟히어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3년전 눈길에 넘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계신 20일 동안도 전혀 귀찮게 하지 않으셨기에 딸이 한 일이라고는 매일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간간히 미음과 과즙을 떠 넣어 드린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는 이 딸의 기도가 上達되어 목사님의 손을 잡고 고통없이 아주 곱게 떠나신 어머니 70년 가까운 긴 세월을 기다리신 당신의 남편 곁으로 가셨겠지요.

또다시 꽃향기에 취해 길 잃어 남편과 헤어지는 일 없도록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못 다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후회를 달래고자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놓았던 흰 리본을 머리에 꼽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검은 옷을 입고 공식석상에 참석치 아니하고 근신한지 어느덧 백일이 되었습니다.

상주는 죄인이기에 위축이 되고 만나는 사람 서로가 조심성스



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묘살이도 하였건만 시대의 변천으로 居喪을 입는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되었지요.

남은 삶을 건강하고 밝게 살면서 자식들의 짐은 절대로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오히려 무엇이든 남을 도우면서 자녀들의 튼튼한 후원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딸을 지켜보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어느 때고 어머니 곁으로 불러주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역사문화 추계탐방

자운서원에 도착한 일행은 율곡기념관에 들러서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새삼 율곡선생의 업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입구의 육각형으로 지어진 2층건물의 기념관에는 율곡 이이선생의 탄생설화부터 성장과정, 과거급제한 내용을 해설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해설을 곁들여 전시해놓았다.

선생은 조선중기의 대표적 학자이자 경세가로 선대의 세거지인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서 성장하였고 법원읍 동문리에 묘가 있다. 또한 율곡의 생애와 관련이 깊은 지역이 세 곳이 있는데,

첫째는 그가 태어난 외가가 있었던 강릉 오죽헌이고,

둘째는 처가가 있던 황해도 해주의 석담,

그리고 셋째는 덕수이씨 가문의 세거지이면서 그가 성장했던 파주의 율곡리이다. 자리를 옮겨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는 강변에 위치한 화석정은 5대조인 강평공 명신(明晨)이 1443년(세종25)에 세운 뒤 증조의 의석(宜碩) 대(代)에 증축하였는데 율곡이 어린시절 학문을 익히고 관직에서 물러나 후진을 양성하던 곳으로 그의 학문과 사상의 형성에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율곡 선생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였으나 당파싸움으로 이뤄지지 않아 관직을 그만두고 이곳 파주에 와서 제자들과 지낼 때, 틈만 있으면 임진강 나루 화석정 기둥에 소나무 관솔기름을 발랐다. 사람들은 벼슬을 그만두니 돌았다고 말을 했지만 계속하여 그 일을 반복하였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임금이 피난길을 떠났는데 비는 억수같이 오고 날은 저물어 임진강에 도착하니 배를 타고 건너야 되겠는데 칠흑같이 어두워 불가능하였다. 이때


자운서원

율곡선생의 제자들이 정자에 불을 붙이니, 관솔기름을 잔뜩 바른 정자는 빗속에서도 잘 타, 강 건너까지 환하게 만들었다. 무사히 강을 건너온 선조임금께서 그때 율곡 말을 듣고 10만 군사를 양성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셨다고 전한다.

다시 일행은 방촌(厖村) 황희(1363-1452)선생 유적지로 옮겼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대표적인 정승(政丞)이자 청백리로 잘 잘려진 황희 정승은 인품이 원만하고 청렴하여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시문에도 뛰어나 몇 수의 시조 작품도 전해진다.

선생의 초명은 수로(壽老), 호는 방촌(厖村),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1363년 개성 가조리에서 출생하였는데, 어머니 용궁 김씨가 그를 잉태했던 열 달 동안 송악산 용암 폭포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그가 태어나자 비로소 예전과 같이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전한다. 유적지에



반구정

는 방촌영당(厖村影堂), 반구정(伴鷗亭), 앙지대(仰止臺), 월헌사(月軒祠), 방촌기념관 등이 있다.

반구정은 방촌 황희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내던 곳이다. 임진강 기슭에 세워진 정자로 낙하진에 인접해 있어 원래는 낙하정이라 하였다. 선생의 사후에도 그를 추모하는 팔도의 유림들이 유적지로 수호하여 내려왔으나 애석하게도 한국전쟁 때 모두 불타버렸다. 그 뒤 이 일대의 후손들이 부분적으로 복구해 오다가 1998년 유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반구정과 앙지대 등을 목조건물로 개축하였다. 이곳은 임진각이 내려다보이는 강안(江岸) 기암 절벽위에 위치하고 있다.

점심식사는 사찰 아래의 식당에서 산채비빔밥으로 대신하고 문화원 대의원 협의회를 가졌

황희 정승 초상화



다. 오후에 보광사에 올라 가을 정취를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광사 대웅보전 외벽은 목판으로 짜여있고, 거기에 벽화가 이채롭다.

남쪽벽면에는 구획된 칸마다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왼쪽 그림은 신중도로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채 긴 칼을 가슴께에서 가로로 길게 들고 있는 위태천(韋太天)이고, 가운데는 해태로 보이는 커다란 짐승위에 올라탄 천인(天人)을 그렸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웃옷을 벗은 채 왼손에 긴 칼을 비껴들고 두 눈을 부릅뜬 신장을 그렸다.

북쪽벽면 한쪽에는 흰 코끼리 위에 올라탄 동자가 코끼리를 몰고 가는 그림인데 동자는 조그맣게 표현되었지만, 코끼리는 화면 전체를 채울 정도로 크게 그렸고 또 상아가 양쪽으로 3개씩 전부 6개인 것이 특이하다. 다른 한쪽에는 수월관음과 동자가 있는 바위를 3명의 남자가 매우 힘들게 지고 가는 것을 그린 매우 색다른 소재의 그림이다. 수월관음은 흰옷을 입고 앉았는데 천의자락이 길고 구불구불하게 늘어뜨려져 있으며 그 뒤로 동자가 버들가지가 꽂힌 정병을 두 손으로 잡고 있다. 바위를 짊어진 남자들 아래로는 바다를 표현한 듯한 파도가 짙은 먹선으로 그려있다.

대웅보전의 뒤쪽 벽면에는 네모진 구획을 지어 두 개의 그림을 그렸다. 하나는 용의 형상을 한 배인 용선(龍船) 위에 삼존불을 비롯한 5위의 불보살상이 그려진 그림이다. 전체적인 그림의 내용은 중생을 인로(引路)하러 가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 그 옆의 그림은 연화왕생(蓮花往生) 장면을 그린 것이다. 연못에 연꽃이 가득 피어있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연꽃 위에는 왕생하는 사람들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사이사이 불보살이 앉아서 이들을 인도하거나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화면 위쪽에는 보궁(寶宮)이 있고 그 주위를 칠보무늬로 장엄함으로써 연화장 세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광사의 색다른 것은 절 뒤쪽 왼편으로 조금 올라간 곳, 넓은 터에 높이 12.5m에 달하는 거대한 석불이 있다는 점이다. '호국대불'로 불리는 이 석불은 이 지역에서 순국한 호국영령들을 위해 이곳 군부대와의 협조아래 1981년에 봉안한 대불로서, 대웅보전에 있는 보살의 복장(服藏)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와 그밖에 보석 및 불경 등을 복장으로 봉안했다고 한다. 이 호국대불은 가까이는 보광사를 굽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산화한 여러 무명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따뜻한 미소로 위로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대충마무리하고 귀가 길에 올랐다. 날씨도 따뜻하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가을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2006 문화원 소식

















문화학교 제22기 입학식

2월 25일 문화관광부 지정 '의정부문화학교'는 전 시민 모두가 '한사람 한문화'를 몸에 익혀 뿌리 내리게 하는 시민문화의 샘터를 지향하고, 제22기 신입생 14개과 264명을 맞아 문화학교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문화원 대의원 정기총회

3월 3일 문화원에서는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는 대의원 정기 총회를 거행하였다.





춘계 서산 · 예산 지역 유적답사

4월25일, 26일에는 1박2일 예정으로 문화원 연례행사인 서산 · 예산지역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다. 추사 김정희 고택, 수덕사, 충의사, 보부상유물기념관, 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묘,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지, 해미읍성 등을 관람했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

6월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문화유적에 대한 순례교육을 통해 옛 선인들의 충효 · 정절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역사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우리고장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총 21회에 걸쳐 문화유적답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유적지 답사코스는 문화원(영상교육) →정문부장군묘 → 신숙주묘역 → 박세당고택 → 노강서원 등을 위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만을 선별해서 답사하였다. 유적지 소개 및 안내에는 특별히 교육받은 노인 해설사 20명, 어머니 해설사 8명 등 여러분이 수고해 주었다.

학교별로는 우리고장 문화유적내용의 칼라만화교재를 특별히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30개 학교이고, 동원된 차량은 대형버스 146대(초과분은 학교 자체 조달)이다.









경기도 청소년 민속 예술제



9월 7일과 8일 양일간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지회 주최로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거행하였다.

경연종목은 27개단체 1,100여명이며, 시연 종목은 1개단체 40여명(광주시 광지원 농악)이 출연하였다.

특별출연으로는 의정부시 무용단공연으로 이미숙외 30여명이 회룡의 울림과 전통무용을 선뵈었으며, 택견 의정부 전수관의 택견시범이 있었다. 그리고 성남시 춤사랑 무용단 신미경외 12명의 한국의 정에대한 무용이 있었다. 예술제에 참가한 의정부 청소년팀 60여명(효자중학교)이 거북마을 거북놀이로 우수상 및 특별상(소품상)을 수상하였다.





거북놀이의 유래

거북놀이는 경기지방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여러 지역에서 연희된 흔적이 남아있다. 거북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토속적인 무속 신앙에서 파생되었으며 세월이 가면서 제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마을공동 집단 놀이로 변화되면서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추수를 전후해서 감사하는 뜻의 토착의례로서 마을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무병장수를 축원하는 거북놀이는 밝은 보름달아래서 청소년들이 박속으로 거북이 머리를 만들고 수숫대 잎으로 거북이 등을 둥글게 엮어 덮어쓰고 뛰며 노는 놀이이다.

거북놀이는 동리의 대동단결을 목적으로 하며 마을의 집단의식과 일년의 수확을 감사드리며 각 집집마다 두루두루 안녕과 태평을 빌어주고 모든 재앙과 액을 멀리 쫓는다는 무속적인 놀이로 마을 전체가 상부상조하며 화합을 돕는 놀이로 같은 집단 민속을 통해 우리 민족은 스스로 자활의 터전을 일구어 왔으며 공동체 적인 의식으로 인정이 넘치는 마을을 가꾸어 왔다는 점은 특이할만한 일이다. 또한 이 놀이는 특징은 다른 민속놀이와는 달리 추석날 달 밝은 밤에 연희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토요문학가 산책

7월과 8월 총 9회에 걸쳐 문화원 상설무대에서 한여름 밤의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국악으로는 민요, 창극, 사물놀이 등을 공연했으며, 무용으로는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클래식 파트로는 팝오케스트라 연주와 클래식 기타연주를 곁들였다. 그 밖에 7080콘서트, 마당극, 째즈, 퓨전음악 등 실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공연하였다.

7월 8일

세대의 벽을 허무는

세대공감 7080콘서트

이성훈, 김수정, 7080밴드



먼지 쌓인 추억들 한편에 놓인 젊은날의 노래
노랫말도 가물거리는 그 노래를 기억속에서
꺼내 흥얼 거리면 피곤한 현실을 잠간 잊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

추억을 재현하고 낭만을 노래사는
〈세대공감 7080콘서트〉는
젊은 세대들과 중장년층을 하나로 묶는
시간이 될 것이다.





7월 15일

서양타악기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리

폴리사운드

퓨전 퍼커션밴드 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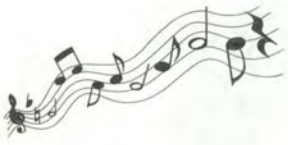


합성과 다중의 의미를 가진 Poly를 그룹명으로 체택하여 의미 그대로 클래식과 라틴뮤직에 사용되는 다양한 악기들인 마림바, 실로폰, 라틴퍼커션 등의 악기편성으로 환상적인 클래식, 재즈 라팀뮤직을 연주하는 퓨전 퍼커션 밴드이다.

국대 유을의 퓨전퍼터션 밴드로 타악을 활용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대중적인 클래식 레파토리를 다양한 서양타악기로 편곡하여 비트와 리듬으로 아름다운 폴리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7월 22일

비트서클 새로운 개념이 타악 퍼포먼스 – 동서양의 만남







비트서클은 난타배우, 군악대 주자, 여성 마칭주자, 전자드럼주자 등 새로운 개념의 타악 퍼포먼스로 동 · 서양 타악의 만남을 재연한다.
최첨단 악기인 전자드럼과 동양의 고전 북을 이용하여 새로운 퍼포먼스를 시도한다.
전자드럼의 다양한(약 10,000개 이상이 음원) 샘플링 이용, 두명의 드러머가 협연을 하고(솔로, 드럼 배틀, 협연) 동양타악 주자와 협연함으로써 고대와 현대의 만남을 재연한다.
전혀 새로운 느낌의 타악 연주를 경험한다.



7월 29일

국악기로 듣는 대중음악향연

한경교의 뮤직솔루션

깽깽이의 앙증맞은 가락
퉁소의 구슬픈 소리
모든 음악을 우리 국악기에 담다



최근 퓨전국악열풍으로 다양한 서양음악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국악의 현대화를 이루고 있다.
한뮤직솔루션은 전통 우리 국악기를 통해서 다양한 서양음악들인 팝, 영화음악, 재즈, 대중가요 등을 국악으로 편곡하여 우리 국악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2005년 결성되어 동유럽 3개국 한국전총문화사절 공연을 비롯하여 지역축제, 정기공연 등 다양한 공연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8월 5일

시애틀샛별예술단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수놓다 – 현대적 감각의 전통 가무악



한국인 해외입양아와 교포 2세들로 구성된 샛별예술단은 지난 1985년 미국 시애틀에서 결성되었다. 3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샛별예술단은 미국 22개주를 비롯하여 세계 17개국을 무대로 한국 전통예술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문화 사절단으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KBS 한민족레포트에 출연하였고, 현재까지 1,000회가 넘는 전통공연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한국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오픈공연으로 원시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발달시켜온 전통무예 택견공연





8월 12일

로스아미고클레식기타합주단

낭만과 열정의 스페니쉬 기타설율

스페인어로 '친구들'이라는 뜻을 가진 'Los Amigos 클래식기타합주단'은 지난 1998년 10월에 클래식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결성된 연주단체이다. 창단이래 49회에 이르는 정기공연활동 및 해외 유명 클래식 기타합주단과 현연, 그리고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활동도 해오고 있다.
바로크 시대 류트 음악에서부터 현대 스페인의 플라멩고, 그리고 팝뮤직까지 대중적인 공연레파토리로 사랑을 받고 있다.





크로마 하프

오픈공연으로 의정부문화원 크로마하프반의 공연. 크로마하프의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연주자뿐 아니라 청중 모두가 노래를 하며 함께 어우러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준다.



8월 19일

송파실버악단

은빛 설율이 흐르는 아름다운 실버 음악회

KBS, 국립 교향악단, 해군악대 등 전문적인 악기 연주자들이 정년 후 결성한 송파실버악단은 전문적인 악단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송파실버악단은 1994년 결성된 악단으로 12종의 다양한 악기로 흘러간 옛 추억의 노래들을 들려준다. 특히 다양한 공연활동을 통해서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하철예술무대 및 크리스마스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정기공연 활동을 통해서 실버세대이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오픈공연으로 의정부문화원 한국무용반과 사물놀이반 회원들이 만들어 내는 신명난 공연









8월 26일

온고지신의 참뜻을 이어가고 있는

의정부시 무용단

하나되는 남북한의 소리춤

휘영청 밝게 뜬 달을 보며 환희와 기쁨을 표현하는 춤이다. 우리 남한춤으로 보면 강강술레와 내용은 비슷하나 이춤은 동작동작의 연결보다는 춤과 표정, 표현하는 몸짓이 매우 잘 된 춤으로 과히 북한춤을 표현하는 춤이라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의정부시무용단은 전통무용공연활동을 통해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전통무용 기본춤사위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창작무용을 주로 선보이는 무용단으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공연에도 한국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힘찬 위상을 무용예술로 표현하는 무용단이다.

지금까지 제작한 작품은 〈회룡의 울림〉, 〈오고무〉, 〈장고춤〉, 〈향〉, 〈살풀이〉 등의 작품이 있다. 오픈공연으로 라틴댄스의 진수를 보여준 이광식 댄스아카데미









8월 19일

대한민국 색스폰의 자존심

김원용밴드









대한민국 색스폰의 대부
김원용이 들여주는
감미로운 째즈여행

김원용은 나훈아, 남진, 송대관, 설운도 등 트롯트 가수들의 노래연주에 많은 참여를 하였고, 발라드 부문의 박화요비, 변진섭, 조관우, 김종서 등과 댄스부분이 터보, 신화 등의 노래연주에 참여를 하였다.

그리고 전원일기 주제가, 행복찾기, 호텔, 여인천하, 미스테리 극장 등 많은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오픈공연으로 의정부지역과 근처 여러 지역의 플룻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플룻사랑.

플룻사랑은 아름다운 음악을 사랑하는 2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공연 등 많은 연주회를 갖고 있다.

가족영화상영







땡땡땡 ! 실버문화학교





의정부 문화원에서는 복권기금 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문화원 연합회(회장 권용태)가 주관하고,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으로 음악에 관심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버문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의정부 관내에는 2003년을 기준으로, 경로당 1천544곳, 무료양로시설 1곳, 무료전문요양원 1곳, 노인종합복지회관 2곳 등이 마련돼 있으나 이용인원은 7천300여명에 불과, 4만여 명에 이르는 노인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문화원

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은 그간의 노인복지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계에서 접근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생계 중심의 살기 위한' 노인복지에서 '문화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노인복지로의 전환의 필요성의 하나로, 생산적 복지 또는 생산적 여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는 첫째 단계로, 문화교육을 받고, 다음 단계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 등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 소일거리를 넘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의 성과를 올리는 과정을 통해 실버세대를 문화 분야의 인재로 재설정하고, 문화 어르신, 지역문화의 리더, 이모작 인생을 가꾸는 활력 있는 문화세대로 길러 낸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21회 회룡문화제

10월에는 문화원 최대 행사인 제21회 회룡문화제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경기제2청사 앞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체육관에서 극단미추의 마당극이 펼쳐졌고, 예술의 전당에서는 각종 전시회 및 무용제 등이 펼쳐졌다.

시민참여행사인 끼자랑 한마당을 관내 4곳을 돌며 진행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회룡문화제 최고 하일라이트인 왕실행차와 함께 중앙로에서는 거북놀이 등 각종 시민참여행사가 펼쳐졌다. 그리고 중앙로 특설무대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회룡문화제는 막을 내렸다.





문화원 임시 대의원 협의회(파주지역역사문화추계탐방)

11월 10일 문화원 임시 대의원 협의회 겸 파주지역 역사문화지인 자운서원, 화석정, 황희정승유적지, 보광사 등을 탐방하였다.









문화학교 제22기 수료식





회룡문화

2006 통권 통권 제21 · 22호

의정부문화원 임원

원 장 김 태 훈

부 원 장 윤 종 균 / 조 수 기

이 사 이 홍 기 / 김 상 기
신 상 태 / 정 병 열
권 혁 용 / 최 영 희
윤 상 국 / 정 익 현
정 윤 구 / 이 종 모
송 노 원 / 이 광 수
육 광 남 / 임 홍 재
김 종 맹 / 윤 종 희
박 정 숙

감 사 황 말 무

사무국장 원 용 목

문화학교

문화학교장 이 장 우

향토문화연구소

상임고문 안 국 승

소 장 홍 정 덕

회룡문화 誌 배부처

직접배포

의정부문화원 / 문화원회원 /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 의정부관내 동사무소
민원실 / 청소년회관 / 의정부예술의 전당

우편발송

문화관광부 /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 / 정기구독자
의정부 관내 초 · 중 · 고 · 대학교

원고모집

회룡문화는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의정부문화원 '회룡문화 誌'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 수필, 기행문 등
- 의정부와 관련된 역사, 전설, 민속 등 생활 문화내용

발행인 김 태 훈

발행처 의정부문화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793
전화 : (031) 872-5678
853-0400
828-4736
팩스 : (031) 853-0433

편집/인쇄 디자인 동심원
전화 : (031) 852-9333
e-mail : hannooll@hanamil.net

「회룡문화」 誌 는 의정부시의 지원받아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찾아오시는 길



교통안내 : 203, 203-1, 205-1, 206-1, 10, 3-1, 23, 72-1
송산주공1단지 or 금오주공9단지 앞 하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93 의정부문화원 (우:480-072)

연락처 : 031) 872-5678, 853-0400

이메일 : ujbcc@naver.com



의정부문화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793
☎(031) 872-5678, 853-0400
828-4736
Fax.(031) 853-0433
http://www.iloveculture.or.kr
E-mail : ujbcc@naver.com